

2021

#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에세이 사례집



# 2021

## 나는 일,

##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에세이 사례집

## 용기 있는 목소리를 책으로 펴내며

---

### 센터장 발간사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는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을 2회째 개최했습니다. 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 총 49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5편의 수상작과 20편의 가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작품이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에세이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한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용기가 되는 순간을 진솔하게 나눠준 모든 지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 기억으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

에세이 본선 진출작 36편 중 17편(47%)이 사회초년생 시기의 성희롱 피해를 다루고 있어 위계에 의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규직, 사무직군 외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와 여러 일터 공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학원 강사와 교사, 콜센터 직원, 서빙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공장 노동자, 광고 디자이너, 예술 계열 종사자, 캐디, 비서, 간호조무사, 군인 등)이 직종별 성희롱 경험과 그에 관한 대응 경험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비해 남성 참가자들이 늘어났고 남성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에세이 공모전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나/너/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대주제 아래, 직장 내 성희롱 해결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성희롱에 맞섰던 경험, 연대의 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알고자 했습니다.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회사의 대응보다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동료의 연대와 지지’가 많았던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30편의 수상작 중 ‘연대가 만드는 변

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은 18편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연대'라는 단어가 쓰인 글은 7편입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나의 일'일 때는 참다가도, 다른 동료가 피해를 겪을 때 용기를 냈다는 사례들에서 연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한 경험이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에세이 사례 중에는 사내 처리 절차 및 재판을 통해 가해 행위자의 사과와 사내 징계,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퇴사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위드유** 센터는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에세이 수상작 30편을 단행본과 전자책,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공모전 취지를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성희롱 피해 생존자들인 에세이 저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널리 알려져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희롱 예방체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 에세이집이 나올 수 있도록 단행본 발간에 동의해주신 에세이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에세이 저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읽어 주신 히스토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실시  
하고 수상작을 에세이집으로 발간하기까지 애써주신 센터 실무  
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 박현이



#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 서울위드유상

미아  
저랑 같이 가실래요?

## 위드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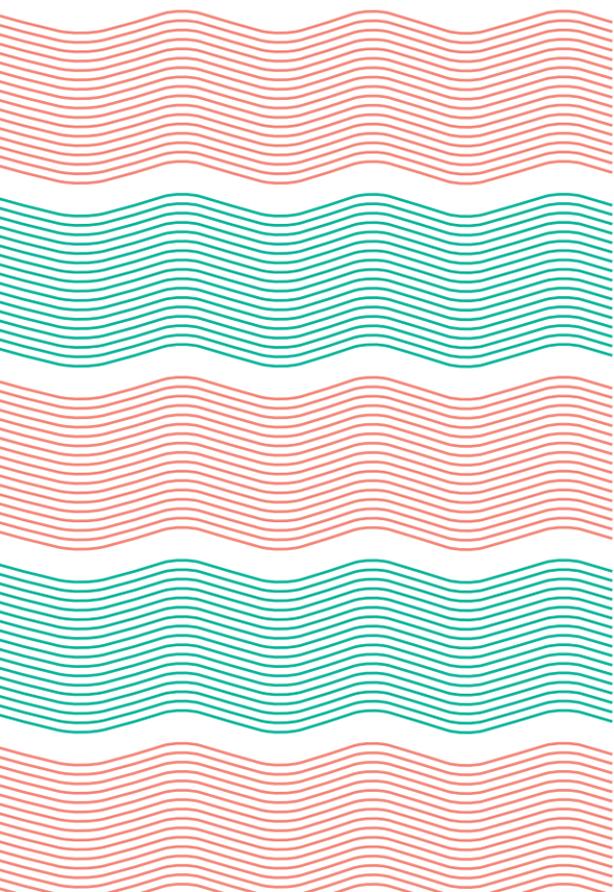
보라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

조은지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고망  
재난 행동요령

정은주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 목차

### 용기 있는 목소리를 책으로 펴내며

센터장 발간사 4

### 그들이 내게 해준 말,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그 말.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분석 14

## 1

### 당신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던 순간

미아 저랑 같이 가실래요? 32

성아린 단 한 사람의 힘 40

익명 덮어둔 상처를 모두가 보듬을 때까지 48

정은주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54

김시영 눈과 입과 그리고 손 62

주진영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 70

곽예인 이걸 끝이 아니다 76

조은지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84

## 2

### 일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홍산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94
채은비	나는 ‘언니’가 아니다	100
익명	만지지만 않으면 괜찮아?	106
오민지	직장에서 만난 도른씨: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하여	112
익명	미스 박의 라떼는 말이야~	118
익명	후회는 금물, 용기있게 연대하고 나아가세요	126
익명	나를 아가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134

## 3

### 개개인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보라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	142
고망	재난 행동요령	152
김혜빈	스티커의 주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158
김민영	이름 없는 시간	164
최양수	남자가 쪼잔하게 뭘 따져	170
고성운	내가 네 편에 설게	176
서여름	직장 내 성희롱 솔직한 대화로 타파하다	186
익명	성희롱에 변명하는 상사들의 자세	194

## 4

### 이제 일터가 변할 차례

익명	모두 자연스러웠지만, 난 아니었다	202
박성근	‘마음의 소리’를 읽다	208
장태기	성평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214
익명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220
익명	변화를 만드는 용기에 대하여	226
홍보라	가까우면 안 되는 사이	232
늘설렘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속앓이를 넘어 연대로	240

### 부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면?	248
서울지역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기관 안내	2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51

그들이 내게 해준 말,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그 말.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

---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분석

### 미투 운동 이후의 시대

미투 운동은 #MeToo(나도 말한다), #WithYou(당신과 함께한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성희롱, 성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집단행동으로, 2017년부터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졌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공개적으로 검찰 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도 말한다”라고 외쳤고, 그들의 말하기는 그 자체로 서로에 대한 연대가 되고 운동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이 이어 말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한동안 뉴스에서 각계각층의 성폭력 고발 사건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부터 3년이 지났다. 가해자들은 이제 쫓리는 구석이 있을 때 “혹시 미투 하려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다.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거부하다 느끼는 사람, 성희롱, 성폭력을 농담거리로 만들어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미투’를 대체어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마저도 직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미투’가 될 만한 일이라는 감각은 갖게 된 것이다. 그 감각이 반갑든 반갑지 않든, 우리 모두는 미투 운동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성의 경험을 스스로가 ‘말할 수 있다’는 자각, 그리고 가치적인 연대의 성과에 힘입어, 개별 여성들이 일터에서 마주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 또한 변화해 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그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작년에 이어 <2021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을 열었다.

작년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회상하게 된 과거의 피해 경험 속에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오늘과 대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어제 사이에서 ‘나는 왜 그랬을까?’ 혹은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피해 경험자의 진솔하고도 현

실적인 마음이 두드러진 작품이 많았다.

올해 에세이 공모전은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해결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지 물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섰던 경험, 연대의 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알고자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나/너/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대주제 아래 응모된 2021년 에세이들은 미투 운동의 큰 물결이 지나간 후에 개별 단위의 조직에서 이어지고 있는 변화의 분위기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출품작 중 많은 글들이 ‘연대가 만드는 변화에 대한 확인’을 주제로 담고 있고, 이를 미투 운동이 가져온 변화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글도 있었다.

작년이나 올해나, 성희롱 문제의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진부하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생각은 변했다. 옛날 같았으면 참고 넘어갈 일을 참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 참고 참다가 후배가 똑같이 당하는 꼴은 못 보겠다고 나서는 여성, 성희롱 대처 방법 등을 다른 여성에게 배우는 여성들의 경험이 이번 에세이에 녹아 있었다. 2021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 박다혜(한겨레21) 기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으로 “피해 생존자 분들이 ‘나

의 일’일 때는 참다가도 같은 일을 다른 동료가 겪자 용기를 냈다”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내는 여성들이 도처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골프장, 호프집, 초등학교, 광고회사,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드러나면서도, 그 안에서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어떤 문제로 경험되는지를 글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실감하게 되었다.” 권김현영 심사위원장 여성현실연구소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의 총평이다.

## 직장 내 성희롱, 권력 관계의 문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여성경험의 집합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1970년대 미국 여성들이 직장, 학교, 군대 등 공적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된 구조적 차별과 폭력 경험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든 이름이 sexual harassment고, 이를 한국어로는 성희롱이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특정 성별, 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공격하여 공적 사회에 속하기 어렵게 하는 각종 행위, 이를테면 성차별적 언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심사위원 손희정은 “한국에서 여성은 안전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에세이”라고 평했다. 일터에 나간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지긋지긋한 경험 밑에는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던 유구한 역사가 뿌리박혀 있고, 공모전에 응모한 많은 여성 글쓴이들은 그 사실을 기민하게 알아차린다. “모든 여성은 와이프 타입, 여자친구 타입, 딸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sup>『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sup>고 평가하는 상사, 자신을 “따끈따끈한” “아가”<sup>『나를 '아가'라고 부른 사람들에게』</sup>라고 부르는 상사 밑에서, 몇몇 여성들은 차차 “직장에서 여직원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sup>『만지만 않으면 괜찮아?』</sup>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연스레 “모든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존감에 상처 입지 않기를”<sup>『미스 박의 라떼는 말이야』</sup> 바라는 마음으로 향하게 된다.

또 한편, 글쓴이들은 성희롱이 “약자의 절박함을 먹고 커지는”<sup>『만지만 않으면 괜찮아?』</sup>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성희롱이 성별과 무관한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성별 또한 하나의 권력관계라는 뜻이다. 일하는 동안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겪는 경험의 차이는 한 여성, 혹은 한 남성의 고유한 속성과 뗄 수 없는 자연적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권력관계의 역동이 바뀌면 변형되고 탈착될 수 있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이라는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한다고 짚는 「덧어둔 상처를 모두가 보듬을 때까지」 익명 글쓴이의 비판은 정확하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여자도 남자도 성희롱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sup>1)</sup>성평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다. 남성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올해 수상작에는 남성들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는 ‘남자답지 못한’, 즉 ‘여자 같은’ 남성을 멸시하며 특정한 형태의 남성성에 남자들을 끼워맞추려 한다. 남자라면 (여자와 달리) 무거운 물건을 잘 들어야 하고, 울거나 힘든 기색을 보이면 안 되고, ‘사소한’ 일쯤은 대범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식이다. 남성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남자가 쪼잔하게 뭐 그런 일 갖고 따져”<sup>2)</sup>남자가 쪼잔하게 뭘 따져 라는 말이 되 돌아온다. 그러나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뭐 그런 일 따위가 아니다. 인간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불의에 맞서는 행위는 조급도 쪼잔하지 않다.

여성 상사에 의한 남성 피해 경험을 살피며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점, 권력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짚는다.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이자 연대자로서, 목

격자로서,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남성의 경험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다린다.

## 연대는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말하기라는 형식 자체로 연대의 힘을 확인했던 미투 운동이 먼 곳에 있는 여성들을 연결시켰다면, 미투 이후 여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대면하는 폭력과 싸워 나가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하는 연대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사위원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직장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는 연대와 공감의 키워드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서른 편의 수상작 중 ‘연대가 만드는 변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은 열여덟 편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연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인 글은 「저랑 같이 가실래요?」, 「단 한 사람의 힘」, 「이건 끝이 아니다」, 「만지만 않으면 괜찮아?」, 「후회는 금물, 용기있게 연대하고 나아가세요」,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속앓이를 넘어 연대로」로 총 일곱 편이다.

일곱 편의 글 속에서, 연대는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연대’의 정체는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게 다가와 같이 가자고 말을 건 사람, 내게 힘을 주었던 단 한 사람, 커

피라도 사주고 싶은 후배, 탄원서 위로 일렁이는 이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나와 내 주변을 연결하는 울타리였다.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를 쓴 익명의 글쓴이는 “당당하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두세 명이 뭉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피할 수는 있었다”며 “공감은 작은 연대의 일환이었다”고 말한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속살이를 넘어 연대로」의 글쓴이 늘셀렘은 혹시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여성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글쓴이 곽예인의 말처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연대한 수많은 어제들을. 나를 도와줬던 여자들과 내가 도와줬던 여자들을. 아주 조금 살만해진 오늘을. 내일의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씻은 뒤 포근한 침대에 눕는다. 좀 더 살만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울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이건 끝이 아니다」 연대라는 ‘우산’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아래 여성들은 구체적인 ‘행동요령’ 「재난 행동요령」을 습득하며 방어 능력치를 쌓아 가고 있다. 심사위원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작가 역시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과 의지, 연대, 스스로와 주변의 변화를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아무리 개개인이 처세술을 익히고 행동요령을 만들어도, 연대 행동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내도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성희롱이 퇴사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낀다.” 라는 신상아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덧붙인다.

## 개개인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일터에서, 여성들은 성차별과 성희롱이라는 다른 현실 때문에 이중으로 고군분투한다. 성희롱 상황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못 들은 척”<sup>「내가 네 편에 설게」</sup> 하며 그저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sup>「성평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sup> 하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매뉴얼을 되새기”<sup>「내가 네 편에 설게」</sup>며 수많은 전략을 세우고, 차별적 태도를 가진 상사 앞에서 “정신을 맑게 고치고 차근차근”<sup>「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sup> 설득하면서, “조금씩 말을 받아치는 방법을 익혀 갔다.”<sup>「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sup>

가해자들이 “골치 아픈 일과 엮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불필요한 언행을 줄이”는 듯 하지만 잠시뿐이고, 성희롱 상황은 “끊이지 않고 일어”<sup>「내가 네 편에 설게」</sup>난다. 수많은 전략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해를 하고,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직장 내 성희롱 솔직한 대화로 타파하다」의 글쓴이 서여름은 상황을 녹음하고 바로 사과를 요

구한다.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가해자에게 그 만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동안의 심리적 압박 역시 피해자의 몫이다. 「이름 없는 시간」을 쓴 김민영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애써 그 순간을 부정”하다가 상급자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가해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조치가 취해지는 듯 하였으나 회사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는 “두 달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의 보라는 성희롱 전수 조사와 가해자 징계 등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회사 대표와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싸움을 계속한 끝에 국정감사에서 까지 사건이 다뤄져 일부분 승리를 얻었지만, 기나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의 노력과 인내는 피해자의 몫이었다. 가해자와 직장으로부터 한 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보라는 “이런 것도 승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라 질문한다.

## 실패했더라도 헛되지 않았고, 과정은 남는다는 깨달음

이 책에 실린 에세이 속 사건들 중 어떤 것들은 통쾌하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퇴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이 움직이기보다, 피해자 스스로 상처를 다독여야 하는 날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그 결과로 좌절을 맛보더라도, 글쓴이들은 노력했던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성희롱 피해 이후 소송 절차를 포기한 고망의 “나중이라도 후회된다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괜찮다.” 『재난 행동요령』 라는 말은, 우리에게 낙담보다는 힘을 준다. 성희롱 피해가 나에게만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우리는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정은 결코 아니었다. (중략) 한번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혼자 속앓이를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sup>18</sup>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속앓이를 넘어 연대로,

“표면적으로는 그 회사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나의 행동을 보고 각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용기 내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투쟁할 용기를 주었다.”<sup>19</sup>

용기를 낸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은 “불의의 순간을 애써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sup>20</sup> 자신의 경험이 단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글쓴이들은 명확히 짚어낸다. 이들의 일터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조직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확실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싸우는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방관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 우리의 싸움은 쌓여 확실한 자국이 된다.

## 이제 일터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 피해자들의 노력만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본인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희롱범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sup>「성희롱에 변명하는 상사들의 자세」</sup>하며 개인의 분투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일터가 변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를 쓴 익명의 글쓴이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처음 당장은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교육은 조금씩 회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여태껏 취한 행동들이 성희롱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저 과거부터 으레 해왔던 행동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지속된 교육은 기업문화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나의 회사생활을 과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sup>「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sup>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의 안녕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 시간을 채우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지금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sup>「성희롱에 변명하는 상사들의 자세」</sup>고 주문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 직종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어렵다. 게다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사내 비치 또는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고, 연대할 수 있는 동료 가 적거나, 손님들의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또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제 직업이 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직업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sup>1)</sup> “나는 언니가 아니다.”라는 당연한 말이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상급자인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다. 「덮어둔 상처를 모두가 보듬을 때까지」의 글쓴이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희롱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라 짚어낸다.

박성근의 「‘마음의 소리’를 읽다」에서는 조직이 성평등한 문화로 나아가는 데 상급자의 조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글쓴이는 국장이 된 첫날,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성희롱을 고발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 함’을 설치한다. 그 후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글쓴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끔 여직원들에게 그냥 웃자고 가벼운 성적 농담을 건네던 일부 직원들도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통

쾌해하는 여직원들도 많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가해자들은 어떤 행동이 성희롱이 되는지 알고 있다. “분명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알”<sup>「변화를 만드는 용기에 대하여」</sup>면서도, 그래서 안된다고 제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계속한다.

그래서 이 에세이북의 글쓴이들은 직장과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는 것뿐이다.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가해의 씨를 말리는 것, 결정권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구조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 (중략)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대처법을 가르치기보다 가해자가 가해하기를 그만두도록 교육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드는 지름길 일 것이다.”<sup>「내가 네 편에 설게」</sup>

## 상대를 아름답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도록

「모두 자연스러웠지만, 난 아니었다」의 익명 글쓴이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해주는 일터였다고 말한다. 마틴 부머를 인용한 “나와 너”는 상대를 아름답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동행의 모습이다.”<sup>「마음의 소리를 읽다」</sup>라는 박성근의 말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직장과 사회를 위한 본질적인 해답에 가까울 것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관계맺기는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부단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노력을 규칙에 적어넣는 조직과 법조항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 노력에 모든 직장의 책임자들과 남성들 또한 함께해주기를 기다린다.

작년에 이어서 발간되는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에 실린 글들은 상처를 매만지며 이만큼 함께 걸어온 우리의 귀중한 흔적이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 그 자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당연한 세상, 모두가 자기 역량을 즐겁게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기 모였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기로 했다는 보라의 “그들이 내게 해준 말, 이제는 내가 깊어야 할 그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 (중략)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sup>1</sup>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라는 말로 그 마음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실천의 가이드라인이 되길,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연대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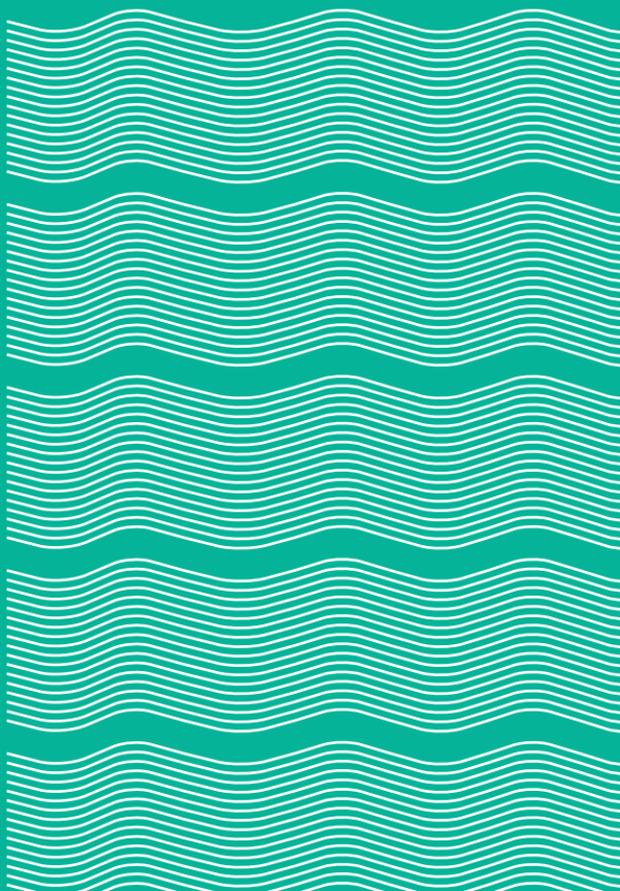
허스토리 대표 류소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한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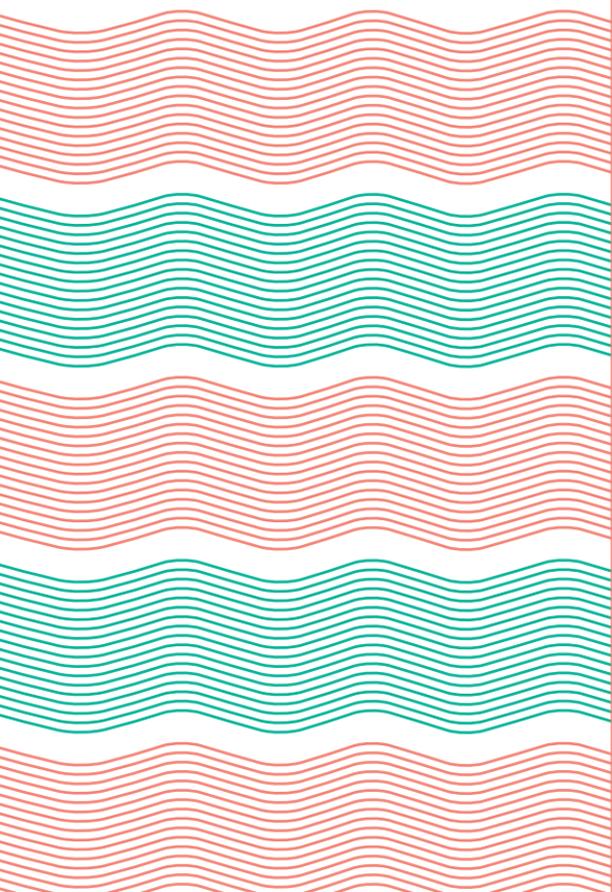
# 1

당신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던 순간



저랑 같이  
가실래요?

미아



“오늘 집에 갈 때요.”

말을 건 사람은 나보다 서너 살 어린 동료 교사였다. 과학 선생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끔 들었고 복도를 오가며 목례도 몇 번 했지만, 사담을 나눈 적은 없었다. 2016년 당시 나는 스물여섯, 대학교 4학년이었고 보습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지만, 동료 선생님이 퇴근을 함께 하자고 말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하고 나는 선선히 대답했다. 원래 성격대로라면 낯선 사람과 퇴근길을 함께할 만큼 친근하거나 살갑지는 못하지만, 일터였고 상대가 여자였기 때문에 나답지 않게 기꺼운 마음이 들었다. 그 선생님의 순하고 착한 눈매와 여동생처럼 옛된 느낌도 그에 한몫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학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아파트 단지를 따라 15분 남짓 걸어갔다. 날씨 이야기, 가르치는 아이들 이야기, 서로의 생활 이야기가 두서없이 이어졌다. 내심 학원 생활에 대해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밤 산책이라도 하듯이 즐거운 퇴근길이었다. 나는 그녀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오늘도 저랑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퇴근길을 함께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함께 집에 가던 날, 우리가 가르치는 남자 중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온갖 여성 혐오적 표현들로 화제가 튀었다. 나는 그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들 중 한 명에게 ‘선생님 김치녀예요?’ 소리를 듣고 기가 차 있던 참이었다. 그래도 그럴 땐 내가 감내해야 할 모욕감보다 다른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혐오 표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창 하던 중, 갑자기 선생님이 머뭇거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보다도… 그, 원장님이 자꾸 저한테 그런 짓을 하는데요.”

걸던 걸음이 나도 모르게 멈추었다.

“네?”

“별써 몇 번 있었어요. CCTV 없는 곳에서. 다리나 그런 부위를 자꾸 만져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저보다 더 오래 일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으셨나 하고.”

순간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 선생님이 당한 일 자체가 놀라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1년 전, 바로 내가 당했던 일이라서.

그리고 그 일을 한동안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된 건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냈던 나 자신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전년도 여름에 학원장과 복도에서 마주쳐 짧은 이야기를 나눈 후, 내가 인사하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학원장이 내 허벅지를 주무른 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교사로는커녕 고용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존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혐오스러웠다. 그때 기분으로는 월급이야 어떻게 되든, 두 번 다시는 학원에 발걸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도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한 학기 동안 나에게 배우던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도살장에라도 끌려가는 기분으로 별수 없이 그다음 날도 출근을 했다. 원장실 앞을 지나갈 때 원장과 눈이 마주쳤으나 인사는커녕 본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무시했다. 고용주에게 그렇게 구는 건, 어렸던 내 판에는 '제발 나를 해고하라'는 사인이었다. 차마 '저에게 왜 그러셨냐'라든가 하는 식으로는 그 끔찍한 사건을 입 밖에 낼 엄두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장을 지나치고 나자 학생들을 마주 대할 때는 다시 평소의 국어 선생님이로 돌아올 수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공부한 그 학원 아이들에 대하여 나는

애정이 각별했다. 그리고 그 학기에도 아이들의 국어 성적은 전 과목 중 눈에 띄게 잘 나왔고, 원장은 자신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내 임금을 되레 올려주기도 했다. 또 그날 이후 다시 나에게 불쾌한 접촉을 하지도 않아서, 나는 내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그날의 일을 무의식 속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원장이 그날 이후 그 짓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과학 선생님의 말을 들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지 타깃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견디다 못한 과학 선생님이 자신과 말 한마디 나누어 보지 못한 나에게 이걸 상담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별생각 없이 함께 걸었던 그 15분 남짓의 밤거리가 그 선생님에게는, 이 상황을 전달하기에 얼마나 망설여지고 어려운 길이었을지도.

가슴이 팍 막혀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존경심이 들었는지 모른다. 먼저 나에게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지만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믿고 이야기해준 것이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나보다 더 어린 그녀에게로 상황이 넘겨진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통찰력에 크게 감동했다. 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

다. 내가 혹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했는지와 같은.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학원에서 오래 근무한 다른 여성에게 그 점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가 먼저 나와 연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를 치유해주고 사건에 뛰어든 용기를 주었다. 며칠 뒤 그녀와 나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학원장을 형사 고소했다.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재판이 이루어져, 마침내 학원장은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20대가 되고 나서 겪어온 여러 성폭력 경험 중 처음으로 해본 진짜 ‘대응’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혼자서라면 법적 대응은커녕 그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기도 차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일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먼저, 성폭력은 대개 일터에서 겪는 다른 문제들보다 피해자 간 연대가 어렵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내밀한 상황,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 없이는 타인이 이를 알 수 없어서이다. 또 학원강사 같은 직업군이라면 직장동료들과의 팀워크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니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절로 해결되는 성폭력 문제는 결코 없다는 것. 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 내가 해야 했던 모든 올바른 대응을 나서서 해준 사람이 있어, 나 역시 늦게나마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흘러 이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다. 그녀에게 배운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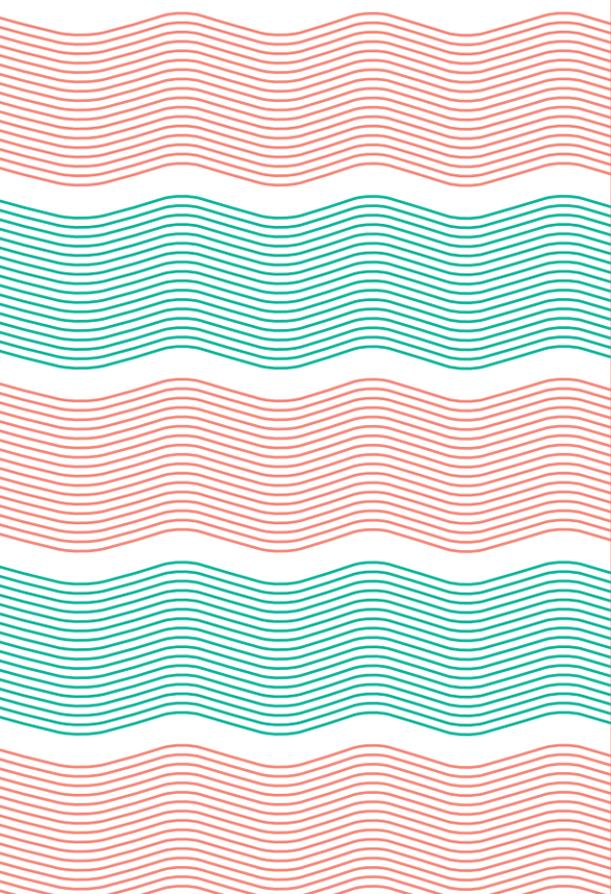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때 그녀가 어색함을 무릅쓰고 망설이며 꺼냈던, ‘저랑 같이 가실래요?’라는 말 한마디. 정말 생각해보면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어떤 길을 같이 가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때의 어린 나보다 더 어렸던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까. 그 용기가 나에게 빛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한다.



단 한 사람의  
힘

성아린



이 글은 내게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회사 구성원이 적을수록 사적인 거리는 더 쉽게 좁혀진다. 나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상대방은 인사담당자이자 기존 멤버로서 회사 내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직급에 따른 차이가 생겼으나 팀이 달랐기 때문에 업무로 많이 부딪히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기분이 널뛰곤 했으며 이리저리 타인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면접 날에 “무슨 반지예요?”라고 물기에 “커플링이요.” 하고 대답했던 것이 입사하자마자 소문이 나 “신입 두 명 중에 누가 커플이야? 반지 낀 사람이 있다던데?”라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들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말을 거는 것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지낼 사람이고, 나도 여기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에 스스로 입조심하자는 생각으로 경계를 풀고 그 사람을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내 자리는 회사의 중앙 복도에서 모니터가 다 보이는 통로 쪽 자리였다. 중앙 복도를 지나 탕비실에 가거나 회의실에 갈 때마다 내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이리저리 참견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통로 쪽 직원들의 모니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중에서도 만만한 자 혹은 친한 자의 범주에 속했던 것 같다.

처음엔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마우스를 아무렇지 않게 겹쳐서 잡으려 하거나 혹은 내 의자에 자신의 팔을 걸치고 몸을 앞쪽으로 기대는 행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는 이런 행동이 매우 놀라웠고 ‘이 사람이 진짜 경계가 없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직급 차이도 있었고 괜히 오버한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 넘어갔다. 이러한 내 반응이 허락의 의미는 절대 아니었으나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였는지, 그 이후부터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내 책상에 있는 휴지로 코를 풀고 나와 동기가 쓰는 휴지통에 그것을 버리는 개념 없는 행동부터 피곤하겠다며 목덜미를 안마 하거나 내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더러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친밀감의 표현을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상사에게 보고하여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가벼운 사람

이니까 가볍게 행동하는 거라고, 그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사심을 담아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넘겨짚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별것 아니라는 듯 오히려 “아, 쌤 여기 좀 더 세게 눌러봐요. 이제 좀 시원하네.”라고 받아줬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니고 나는 쿨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올라오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별거 아니다’라고 속으로 외치며 이러한 행동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회사에 새로운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이 신입사원의 직무는 해당 남자직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은 대화도 많이 해야 했고, 업무적으로도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경우들이 많았다. 모든 일들이 다 내 뒷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통로를 두고 서로 등을 지고 있었기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남자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여자 직원은 자기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업무를 알려준다고 옆에 앉아 계속 다리를 들이밀어서 무릎이 부딪혔다고 했다. 그래서 의자를 옆으로 비켜주었는데도 계속 따라와서 너무 불편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아무렇지 않게 손을 덥석 잡거나 먼지를 털어준다며 다리를 만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거 말로만 듣던 성희롱이다’ 싶었고, 싫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그 사람이 성희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스킨십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고 신입사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것은 명백히 성희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시작된 가벼운 터치는 어느덧 선을 한참 넘어가고 있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이 큰 화근으로 돌아옴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나의 경험과 신입사원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 다독였다. 바로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한 점, 뿌리치지 못한 점 등등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말했다. 의무교육으로만 듣던 직장 내 성희롱이 생각처럼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다.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경험한 일이 성희롱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현재 나에게 큰 불편감을 주고 있는 일이 맞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 회사 안에서 형성한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하여 이러한 스킨십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고, 더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불편감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이후 선을 넘는 터치를 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해올 경우 싫다는 의사 표현을 시작했다. 상대방은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편하고, 싫고, 더 이상 내 목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1:1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한 신속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러한 행동이 싫을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남자 직원은 처음에는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으며 서운하다는 듯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생각 없이 타인을 만지는 행위가 점차 다섯 번에서 네 번으로, 세 번, 두 번 정도로 줄어 가는 것을 보며 의사 표현의 힘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과 표현을 통해 행위자가 알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희롱 교육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이였다. 그렇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이게 성희롱인가? 성희롱으로 느끼는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고민과 함께 이것을 말했을 때 회사 내에 생길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직장 내 권력 구도까지 참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했다. 그럼에도 더 빨리 말하지 못했던 것이 신입사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는 죄책감, 나 스스로 지금까지 괜찮다고 다독거리며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아픔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늘 사례에만 나오는 ‘오, ○○ 씨 오늘 몸매가 좋은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성희롱 언어표현이 아니더라도 친밀을 가장한 터치 역시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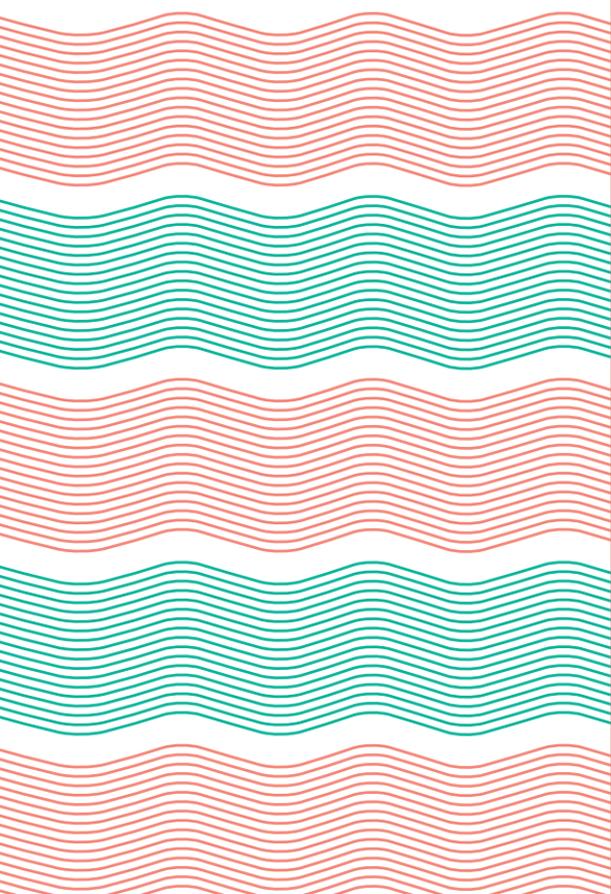
직장 내 커다란 연대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단 한 명의 마음 맞는 사람과 연대함으로써, 성희롱을 경험한 뒤 느꼈던 수치심과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그 과정이 힘들었던 마음을 녹이는 데 큰 작용을 하였고, 나아가 내가 방관자로 남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표현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남자 직원이 자기 인식을 시작하고 행동의 빈도를 줄여나간 것이다. 성희롱으로 불편한 경험을 가진 내가 같은 경험을 가진 너를 만나 우리 모두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었던 점은 회사 생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들을 보며 느끼는 바를 적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간의 의지는 물과 같아서 중간에 바위를 만나 부딪힐 수 있고 폭포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흘러가야 할 곳에도달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 문제에 대해 경

각심을 세우고 나, 너, 우리가 되어 연대한다면 궁극적으로 지향  
해야 할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세상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덮어둔 상처를  
모두가 보듬을 때까지

익명



“아, 또 생각났어. 왜 그때 그렇게 못 했지!”

가끔씩 자기 전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애꿎은 이불만 쥐어뜯게 되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지 않을까?

2015년 첫 직장은 아무 연고가 없어 오롯이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 당시에는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그저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해 일을 시작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다. 사회생활이라는 건 누구나 어리숙하게, 조금은 아둔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경험이란 겹겹이 쌓아져 견고하게 날 지켜주는 벽이 되는 과정인데, 첫 시작 지점에서는 경험 없이 맨몸으로 모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 같다.

첫 회식이었나, 갑자기 타사 분들과 합동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다. 신입사원인 나에게 집중된 관심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긴장한 채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회식에 참여했던 것이 문제였을까, 그다음 날 들려온 이야기에 뒤통수가 얼얼해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내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인사와 소개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 직장에서 유일한 처녀 직원이야.” “처녀인 건 어떻게 아세요? 아닐 수도 있죠~” 라는 대화가 바로 내 옆 테

이불에서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 듣지 못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걸 뒤에서 듣게 된 걸까.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나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달려가 따지지 못했던 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무서움 반, 수치스러운 마음 반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나 혼자만 모른 척 덮으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처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 후로 사회적으로 성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로 듣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듣는다고 저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정작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라고 불평만 했었다. 그러던 내가 문제해결에 임하며 조금이나마 변하게 된 것은 연차가 쌓이며 생긴 경험이라는 방어막, 그리고 무엇보다 후임자들의 존재 때문이었다. 후임자분들의 피해를 눈으로 목격했을 때, 후임자분의 눈물에 내 마음속 덮개가 녹아 상처가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가시 박힌 손끝의 상처처럼, 가끔 따끔따끔 하던 게 물에 불어 굵게 된 것같이. 그 당시에 나도 뒤에서 험담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모

두 같이 나의 편을 들어주길, 나의 말을 대변해주길, 나와 함께 해주길.

그제야 내가 예전에 해야 했던 일을 시작했다. 무례하고 성적인 발언에 불편함을 내비치고 그건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는 행동들.

성희롱 상황에서는 적절한 개입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처음엔 “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냐, 한번만 참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다. 그때 나는 “다들 불편해하면서 왜 참아야 하죠? 왜 저만 말해야 하나요? 저도 힘들어요.”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다 같이 얘기하자고, 우리가 말을 해야 상대방도 조심할 거라고. 처음엔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민망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약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자긍심이 우리 행동의 기반이 되었다. 우리의 올바른 권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크게 부풀게 했다.

모두가 동참하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가볍게 웃으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이거 성희롱인가요?” “지금 성차별하신 건가요?” 지나가듯이 가볍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서히, 지금까지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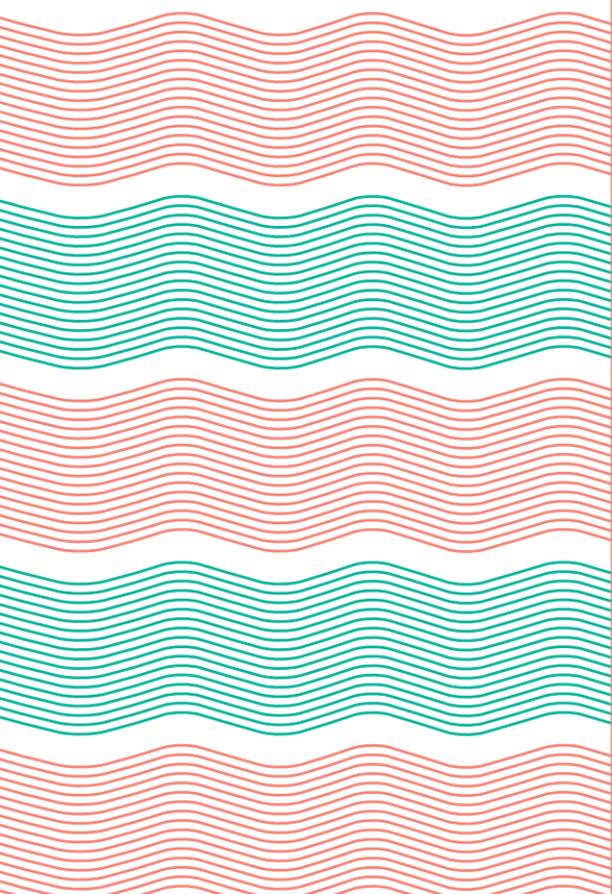
성희롱,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성평등이라는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여자인 나 스스로가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안타깝다. 스스로도 신입일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기본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희롱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하며 대화 중 성차별적인 내용, 성희롱은 바로 가볍게라도 지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다. 물론 아직도 기성세대인 분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불편해하며 헛기침이나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역지사지로 자신의 자식이나 지인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분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숨긴 상처가 끓아 덧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그때의 나처럼 혼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렷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아야겠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가 평등할 수 있는, 모두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  
길 희망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 자신과 모두가 존  
중받을 수 있도록.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정은주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나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곳이 어떤 직장이었는지 미리 밝혀야겠다. 초등학교 교사 사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단지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그렇게 하겠다.

초등학교 교사 사회는 해당 지역 교육대학교 출신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대개 대학 선후배 관계이면서 동시에 직장 동료 관계가 된다. 극도로 폐쇄적인 조직으로,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다. 단체 채팅방에 이름, 학번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대학 시절 교우관계, 성적, 평판, 연애사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교사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초등교사는 담임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동료 교사와 업무상 협력할 일이 거의 없다. 의논할 일도 없고, 누구의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다. 자신의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교과 교육을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평교사 외에 초등학교에는 교장, 교감이라는 관리자가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인, 남자 교사는 흔치 않은 조직임에도 관리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여성 관리자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각 교육지청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이들 대부분이 남성이다.

교육 대학을 졸업하고, 초임 발령을 받은 후 근무하던 학교는 상당히 규모가 큰 편으로, 60학급 가까이 되는 대규모 학교였다. 교감은 2명이었고, 각각 홀수 학년과 짝수 학년을 담당했다. 나는 첫 2년 이후 쪽 6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학기 중에 여간해서는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하는 것 빼고는 대체로 괜찮았다.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거나,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선생님께 준비도 없이 학급을 덜렁 떠맡기는 건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수업이 끝난 후 조퇴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리통이 너무 심했다. 진통제를 다량 털어 넣고 수업을 마치고 나니 죽도록 피곤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퇴를 올렸는데 담당 교감이 결재하지 않은 것이 보였다. 월요일 교직원 회의에서 기안 올리고 결재 전에 퇴근하지 말라고 들었던 게 떠올라서 교무실에 내려갔다. 교무실에 담당 교감이 없었다. 교무부장에게 대강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근하려는데 다

른 학년 담당 교감이 나를 불러 세웠다.

“정 선생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아서요. 기안 올렸는데 담당 교감님이 확인을 안 해주셔서요.”

“어디 병원 가요?”

“생리통이 심해서요.”

“생리? 생리한다는 증거 있어요?”

“네?”

“증거 가져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 선생이 생리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생리대라도 가져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야지.”

교무실에는 그 교감을 제외하고 세 명의 부장 교사와 네 명의 교무실무사가 있었다. 조금 어두웠던 오후 교무실의 풍경, 온도, 열이 나던 머리와 다리가 조금 떨렸던 느낌은 아직도 선명하다. 가슴이 막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타자 치는 소리만 들렸다. 잠시 뒤, 교무부장이 내 옆으로 와서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무실을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해 해당 교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교무실로 내려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사과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 교감은 교무실에 있던 부장 교사들, 회의하러 온 5학년 교사들, 교무실무사들 등 열댓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반말로 나에게 고함을 쳤다. 어린게 기어오른다고 했다.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10분간이었다.

며칠 뒤 대학 시절 동아리 선후배 몇 사람에게서 우리 학교 교감이 나에게 관해서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며칠 뒤에는 교내 선생님들에게 교감이 내가 편부모 가정 출신인 것을 흠잡으며 ‘에미 없이 커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악질적인 점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을 말살할 권리와 권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가 그것을 요란하게 문제 삼기 전에 나타나는 작은 징후들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나는 녹음파일을 첨부해서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했다. 학교에는 휴직 신청을 했다. 휴직원을 올리던 날 교장은 자기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다. 교장의 곤란함에 대한 긴 이야기는 해가 기운 후에 끝났다. 전에 없는 피로 속에, 배운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날의 감

정은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초등학교는 정말 이상하다. 위에서 정한 사업, 교장이나 교감의 출세를 위한 연구 과제 따위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짠다. 그런 내용을 찬반 투표에 부치면 찬성률이 100%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사회의 구성원인 교사가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관리자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덮고 넘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권 존중 주장을 지정해 인권 교육을 하는데, 정작 교사는 온갖 이상한 방식의 인권 침해에도 교장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를 강요당한다.

휴직 후, 나는 절망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고독했다. 집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같은 학년 선배 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잠깐 보자고 했다. 한 달 만이었다. 오후 늦게 만난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하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녹음 파일을 들은 교직원에게 받은 청원서와 서명을 전해주었다. 언제 이런 걸 했을까. 60학급짜리 학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다 큰 어른이지만, 길에 서서 평평 울었다. 또박또박 쓴 이름들이 일렁였다.

지난 한 달간, 교장은 여러 번 전화했다. 우리 반 아이들 행실

이 어떻다는 등, 아이들과 학부모의 민원을 운운하며 나에게 출근하라고 말했다. 휴직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냐 묻기에 “그럼 제가 학부모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할게요.”라고 말하자 그러지 말라고 했다. 단 한번도 교감이 나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고거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아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평교사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했던 얘기는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끈끈한 관계 같은 건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일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일이 나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할 정도로는 사회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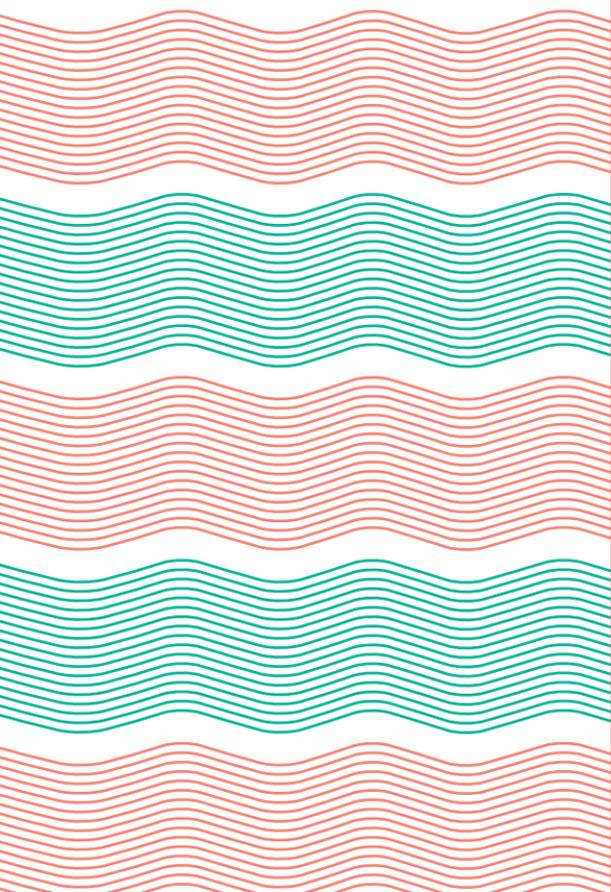
서명을 붙인 청원서가 교육청에 도달하자 드디어 교장은 교감이 나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성희롱과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 방지와 접근 금지에 대한 각서를 썼다.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가끔 복도를 걷다 마주치는 선생님들과 목례를 하면서 살짝 미소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외에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는 일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다. 임금의 대가는 우리의 노동이다. 명시적으론든 암묵적으로든, 나는 임금의 대가로 나의 성(性)과 존엄을 지불하겠다고 동

의한 적 없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라는 평  
등일 뿐이다.

눈과 입과  
그리고 손

김시영





단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 나의 진로도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멈춰 섰다. 가장이란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냈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던 나는 어느 순간 언더웨어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어있었다. 내가 하고 싶던 일은 아니었지만, 졸업 전에 취업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나의 일터이며 어린 동생들과 아픈 엄마까지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삶의 터전이 된 그곳에서 나는 야근을 도맡아 하며 일거리를 만들어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회사생활은 점점 두려워져 갔다. 직장 상사였던 누군가의 눈과 입과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무너뜨렸다. 출근과 동시에 아래위로 나를 훑어 내려가던 시선.

“신입사원이 시원하게 입고 다녀야 일할 맛이 나지!”

“여사원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예의 아니야?”

칼날처럼 쏟아지던 성희롱 발언도 곤혹스러웠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이나 되던 회식 시간이었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

TV에서나 보았음 직한 원색적인 성희롱. 여직원들은 모두가 막혀 했지만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저 그 상사의 옆자리를 자신만은 피해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술 취한 듯 실수인 듯 이어지던 터치. 처음엔 손을, 손목을, 그다음은 은근슬쩍 허벅지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2차 장소였던 노래방에선 더, 더 잔혹하게….

그 상사의 성희롱 때문에 퇴사한 직원도 몇몇 있다 했지만, 사장의 후배라는 그 상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 왔다고 했다. 사장보다 더 실세라는 그 앞에서 남자 직원들은 성희롱을 ‘농담’, ‘장난’으로 포장해주기까지 하였다. 그저 그의 뒤에서만 분노했다.

“내가 애만 없으면 당장 때려쳤다. 어디 지 딸만 한 신입사원들에게. 아휴~”

“참는 수밖에 더 있어? 중소기업치고는 여기 연봉도 괜찮고…”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울며 삼키는 쓰디쓴 소주 한 잔이 전부였다. 그리고 자꾸만 그 한 잔 술에 취해야만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다. 그의 면상에 사직서를 내던지고 회사를 관두는 꿈을 자주 꾸었다.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던 자존감에 가슴이 찢겨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버릴까, 고민과 갈등이 거칠

게 나를 잡아 흔들었지만 하루 종일 빨갛고 노란 전선을 끼우는 부업을 하시며 죄인처럼 미안하다 하시는 어머니는 내가 직장에서 겪는 성희롱 문제보다 더 가까이에 계셨다. 통통 부은 눈으로 출근하는 날이 늘어 갔다. 이런 부당함을, 그 사람의 범죄를, 왜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회사에서는 사장 딸 빼고는 모두 성희롱을 당했을 거라는 어느 선배의 농담 같던 진담이 귓가에 맴맴 돌았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했다. 회사 업무에 익숙해지며 일 잘한다는 소리도 꽤 들었지만, 그의 성희롱은 날이 갈수록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와 둘이 있게 되거나 회식을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발작이라도 하는 듯 심장이 두근거리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다. 어김없이 헛구역질이 이어져 탕비실로 달려가 얼음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는 버릇까지 생겨났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하얀 밤 내내 나는 그를, 그리고 세상을, 결국엔 나조차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신입사원이 입사했고, 언제나 그러했다던 품문처럼 그의 주 타깃은 신입사원이 되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신입사원을 나 또한 선배들처럼 모른 척하고 지냈다.

그날은 아침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속옷 패턴을 만지작거리

던 그가 말했다.

“어이, ○○ 씨! 이렇게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해? 자기 게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보지? 쪽쪽 빵빵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사 후 처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열정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었던 후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미칠 듯한 수치심이 내게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랫입술을 짹 깨물었다. 속으로 속으로만 마른 침을 삼켰다.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참자. 참자!’ 스스로를 달래면서….

“뭘 잘했다고 울어? 이거 봐. 이게 안 작아?”

그는 속옷 패턴을 급기야 그녀의 얼굴에 내던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 또한 그녀를 따라나섰다.

“스탑! 스톱! 김시영 씨는 왜 나가는데? 나갈 거면 회사 때려치울 각오하고 나가!”

그의 말을 뒤로 한 채 화장실로 향했다. 너무도 서럽게 들썩이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선배님! 이거 누가 봐도 성희롱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왜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거로 하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을 더 울었다. 화장실에서 우리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아침에 정성껏 했던 화장이 다 지워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손을 잡고 웃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의 꿈처럼 서랍 속에 숨겨 두었던 사표를 그에게 던졌다. 그의 얼굴에 던지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순간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그녀와 나는 회사 앞 단골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줄지에 실업자가 되었지만, 그날의 낮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달고 시원했다.

속옷 패틴을 뒤집어쓴 사람이 나왔다면, 어쩌면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손에서 힘겹게 자라나 할머니 호강 시켜 주려고 취업했다는 나보다 어리고 어린, 아무 잘못이 없던 그녀에게만은 참으라는, 참는 것이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동안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해야 했지만, 그날의 일을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녀는 가끔 안부를 전해왔다. 어느 날은 동료들 성희롱하는 상사를 향해 그만하라고 말했다가 꼭 선배처럼 일자리를 잃었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모멸감과 자괴감까지 느껴야 했던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내 가슴에 불덩이처럼 식지 않고 남아있다. 성희롱에 대한 법과 규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

다지만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 더러는 남성들까지도 직장이라는 공간, 상사라는 권위 아래서 성희롱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성희롱을 포장해주는 또 다른 가해자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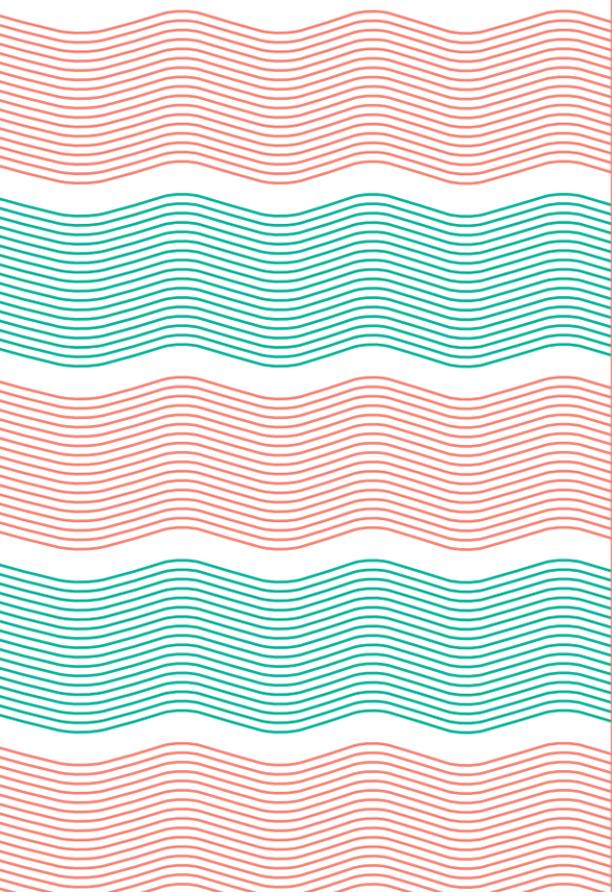
성희롱을 당하는 매 순간 절실했던 누군가의 도움. 그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었다. “그만!”이라는 한마디의 말이었다. 그 작은 외침은 나를 우리를 세상을 변화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나와 타인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 후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만!”이라고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용기는 다시 메아리처럼 곳곳으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지위고하가 나뉘진 곳이기에 더 버거웠고 더 두려웠던 직장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었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곳을 그 누구도 성희롱당하지 않는, 그 누구도 성희롱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눈과 입, 그리고 우리의 손만이 성희롱 없는 우리의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

주진영



5년 전, 노량진에 있는 한 고시학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본사로부터 공시생 커뮤니티 카페에 우리 학원과 관련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관리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공시생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 우리 학원과 관련된 게시물을 살펴보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 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거인 누나’라고 불리고 있었다.

나는 170cm가 훌쩍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다. 웃은 항상 달라붙는 상의와 짧은 팬츠를 즐겨 입었다. 학생들이 그런 내 외모를 보고 ‘거인’이라고 칭하며 카페에 글을 올리고 희롱을 한 모양이었다.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글을 읽어보았다. 글이 올라온 지는 한 달이 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첫 게시물을 올린 학생은 우리 학원생이었으리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외모를 묘사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배신감이 치밀었다. 내용들은 아주 가관이었다. 사람들은 내 몸매를 칭찬함과 동시에, 얼굴은 별로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며 나를 희롱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내 외모가 이슈가 되자, 나를 보기 위해 우리 학원에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커뮤니티에서 나는 라이징 스타였다. 그때의 모욕감이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일상이 무너졌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노랑진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 사람도 그 글을 썼거나 봤겠지?’ 하는 망상에 시달렸다. 잘 웃다가도 영영 울었으며, 가끔 참을 수 없을 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 그리고 한 편으로 범인이 꼭 잡히기를 바라며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런 내 바람이 닿아서였을까. 다행스럽게도 범인은 빨리 잡혔다. 자수해 온 가해자는 최초 게시글이 올라오기 3일 전 우리 학원에 입소한 학생이었다. 다행이다 싶었다. 나와 친한 학생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내가 충격으로 휴직을 한 동안, 직장 동료들이 매일같이 학원에 안내 방송을 하며 자수를 종용했단다. 자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말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누군가가 내 일에 마음을 써주고 있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고소하겠다는 나와는 달리, 본

사에서는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를 원했다. 공시생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한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생의 입장도 좀 생각하자는 거였다. 가해자의 어린 나이와 어려운 가정형편도 한몫했다. 어차피 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서만 쓰자는 설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때 직장 동료이자 나와 친했던 언니 한 명이 나섰다.

“우리가 가해자 앞날까지 생각해줄 만큼 한가요? 진영이 앞날은 어찌라고요!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합의금이라도 왕창 가져오라고 하세요!”

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나보다 사건 해결에 앞장서며 매일 저녁 나에게 전화를 해 긴 수다를 떨어주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친 나에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냥 예쁜 오솔길을 걷다가 똥을 밟은 거야. 똥 밟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자책은 그 새끼가 해야지 왜 네가 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내 얼굴이 좀 더 예쁘게 생겼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책하는 나에게 ‘너의 잘못은 없다. 가해자 잘못이다’라는 언니의 말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한 학원생은

조용히 나를 찾아와서 자신이 주짓수를 잘하는데 가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는 상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나보다 더 분노하고 사건을 해결해주려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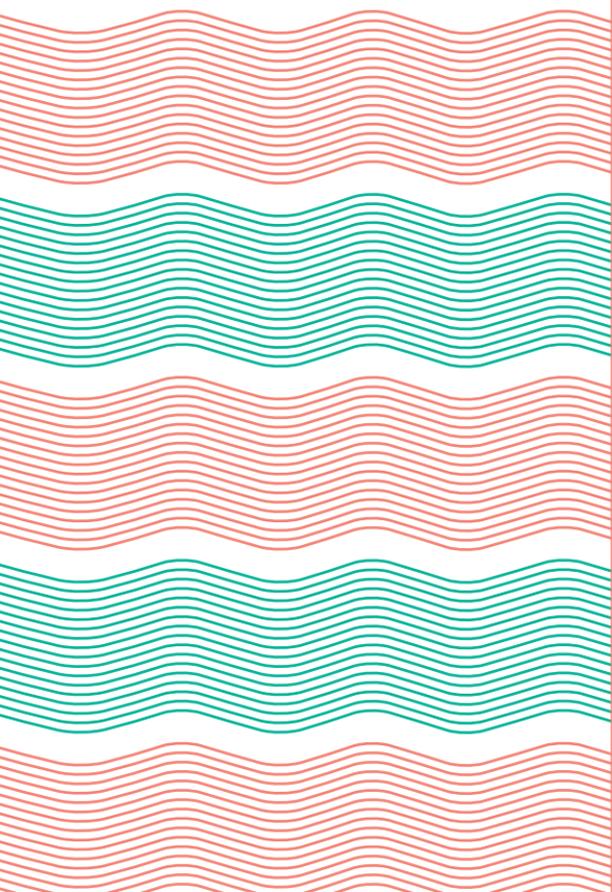
성범죄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자주 보는 댓글들이 있다. 대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이다. ‘그러게 누가 밤늦게 돌아다니랬냐’, ‘짧은 옷을 입으니까 그렇지’라는 반응들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게 만든다. 모르겠으면 외우자. 피해자에겐 죄가 없다. 오직 가해자에게만 죄가 있다.

시간이 흘러 고시학원 일은 그만두었지만 난 여전히 노랑진을 자주 간다. 여전히 내가 즐겨 입는 짧은 바지와 딱 달라붙는 상의를 입고서 말이다.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 덕분이다. 언젠가 나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품에 꼭 껴안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세상은 성범죄와는 거리가 먼,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하며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다.



이건 끝이  
아니다

곽예인



살다 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겪고 싶지 않아도 겪게 되는 순간들. 누군가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지는 순간이나 불쾌한 언어들로 점철된, 관심을 빙자한 희롱을 듣게 된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순간.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끝없는 잡념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함께 힘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굴복당했다는 수치심이 밀려와 세상에 대한 혐오감과 절망감에 잠기게 된다.

나는 이제 그럴 때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소중한 이들의 품에 안겨 울고, 잠을 자며 마음을 달랜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주변의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시간을 곱씹어본다.

작년 봄, 코로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프리랜서 예술가에서 벗어나 취업을 했다. 면세점 촬영실에서 제품 사진을 찍는 일이었다. 팀원이 세 명뿐인 대기업 하청업체였지만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잘 맞았다. 이번 직장을 계기로 회사원의 삶을 살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심정이었다. 상사들도 친절한 편이고 감정

노동 강요도 없고, 서로 거슬리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또래 남자애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것보다 나아 보였다. 하고 있는 예술 작업과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쉬워서 내일채움공제도 알아보고 저축계획도 세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 신입 직원 J가 들어왔다.

다소 과묵한 편인 나에 비해 20대 초반 특유의 발랄함을 가진 J는 사무실 공기를 한층 들뜨게 만들었다. J의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과거에 만났던 선배 언니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린 나이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J가 대단했다. J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 시간, 업무를 진행하다 메신저로 상사 뒷담을 하며 키득대는 시간은 나의 회사 생활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다음 주에 팀 회식을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 J와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르는 채 그저 회식돈으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그렇게 대망의 회식일, 음식이 익어가고 술 한잔 기울이며 알뜰뜰한 분위기가 흐르던 중, 갑자기 실장이 팀장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능력 없이 권력자 옆에 붙어 생명줄을 이어나가는 사람 특유의 습관인 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열심이였다. 팀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겸손을 떨지도,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다. 침을 튀겨가며 낮부끄러운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는 실장 옆에서 다리를 짝 벌리고 앉아서 70%의 거만함과 20%의 기특함 10%의 뿌듯함으로 만들어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회식 자리가 이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집어 먹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서막에 불과했다. 실장이 지쳐가던 즈음 한층 거만해진 팀장이 입을 열었다. “예인 씨와 J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나는 ‘네’, J는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그때부터 팀장의 오지랖을 가장한 무례가 시작됐다. J가 이렇게나 예쁘고 짹짹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었고, J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커리어를 키우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팀장은 ‘핑계인 거 다 안다, 혹시 얼굴을 보냐, 남자는 능력이 전부다’ 같은 헛소리를 줄줄 늘어놓았다. 자긴 그냥 마음이 잘 맞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된다는 J의 답변에 그는 입에 있던 씹다 만 음식물을 잔뜩 노출한 채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J씨 생각해 봐. 솔직히 본능이 그렇잖아. 나도 마음 봐.”

“그래도 만약에 내 앞에 여자 연예인 A가 앉아있어? 그럼 나는 당장 개를 가만둬?”

“실장, 봐봐. 너는 가만둬? 가만 안 두지. 술 먹여서라도 어디

데려가야지.”

“지금은 내가 결혼했으니까~ 안 그러는 거지.”

“하다못해 뽀뽀라도 해야지. 안 그래?”

팀장의 성희롱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사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J의 얼굴이 어떤지 살필 겨를이 없었다. 시뻘게진 얼굴로 깔깔대는 그들이 혐오스러웠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당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선내가 가득한 공간에서 J와 함께 탈출해야 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팀장님. 그런데 저희 술이 약해서요. 집도 멀고,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이제 가볼게요. 두 분은 더 드시고 내일 뵈어요. 정신없이 J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 그게 최선이었을까? 더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J가 사과받을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거 같아 J에게 문자를 보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J는 성희롱이라 느꼈다고, 회사에 건의하고 싶지만 말을 할 용기가 없다고 했다. J와 나는 그날을 시작으로 며칠간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J의 안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좋게좋게’로 마무리

해야 할지. 둘의 머리를 합쳐 열심히 굴렸는데도 명쾌한 해답은 없었다. 대표는 팀장을 신뢰한다. 실장은 변기 옆 휴지걸이처럼 팀장 곁에 꼭 붙어있다. 게다가 성희룡의 주어가 J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하다. 무엇보다 정식 철차까지 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다. 여기에는 J나 나 같은 사람들을 지켜줄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 그래서 J와 나는 후회 없는 마무리라도 해 보기로 했다. 내가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면담 신청하겠습니다.’

대망의 면담 날. 팀장은 터진 블루베리 같은 안색을 한 채로 우리를 맞이했다. J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나는 회식 자리에서 했던 그 말들이 성희룡이었음을 알렸다. 팀장은 그게 어떻게 성희룡이냐며 언성을 키웠다. 나는 J에게 성희룡으로 느껴졌냐고 물었다. J는 당차게 “네!” 하고 답했다. 팀장은 그걸 왜 꼭 주임이 말하냐고 성을 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말한다고 했더니, 그건 자신의 사적인 얘기였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 나도 화를 내며 밀어붙였다. 아니, 그건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회식은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고, 회사는 공적인 영역이고, 당신이 한 발언이 타인을 향할 때는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로 머물 수 없다. 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명백한 성희룡이다! 라고 답했다. 팀장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

애지기를 반복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을 배배 꼬고 다리를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과했다. J에게, ‘미안하다’고.

그 후는 대강 이렇다. 팀장은 내게 다시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나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팀장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들어와 힘든 티를 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J와 나는 업무를 마무리했다. 실장은 며칠 동안 메신저로 나를 괴롭혔다. 내가 ‘무능한 조직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명언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뒤에야 괴롭힘이 멈췄다. 그리고서 J와 나는 취업전선으로 다시 내던져졌고, 각자 여러 일을 거쳐 가고 있다. 여기에 대단한 사이다 썰은 없다. 이게 끝이다.

아니 어쩌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 그 팀장은 앞으로 말을 조심할 것이다. 어디 가서 성희롱을 하면 망신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비슷한 말을 내뱉고 싶을 때마다 자기보다 스무 살은 어린 여성 두 명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 여자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그 날로 내던져질 것이다. 무의식의 저편부터 울컥울컥 그 순간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말을 아낄 것이다. 두 번 다신 당하고 싶지 않은 치욕이었을 테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마음으로 진정 깨닫지 못했다고 한들, 큰 상관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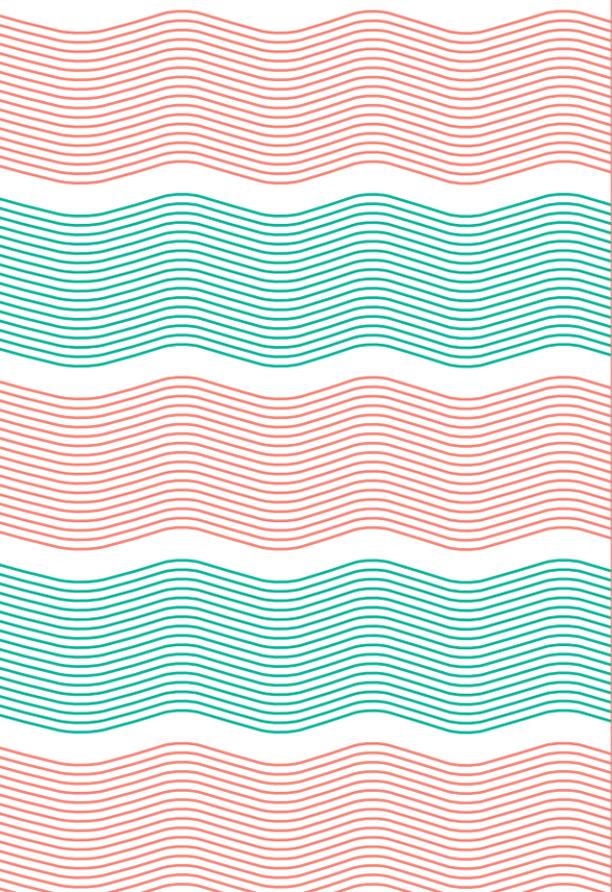
다. J와 나는 그게 성희롱이라고 말해냈고, 그 사람은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내가 그날 그랬던 것처럼, 지난날의 누군가도 작은 용기를 냈겠지. J처럼 또 나처럼. 그리고 그 어제들이 모여 오늘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됐을 것이다. 성희롱을 당하면 싸울 수 있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 속의 나는 여전히 무력하다.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는 건 싫다. 그러나 나는 떠올릴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연대한 수많은 어제들을. 나를 도와줬던 여자들과 내가 도와줬던 여자들을. 아주 조금 살만해진 오늘을. 내일의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씻은 뒤 포근한 침대에 눕는다. 좀 더 살만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울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조은지





서명란으로 향하던 손이 멈췄다. 앞 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서명들을 잠시 훑어보고 나서야 펜이 움직였다.

“아니, 나도 그 양반 별론데 그 정도가 성희롱이 되나 몰라. 아무튼 수고해.”

입사 동기 김이 서둘러 펜을 놓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목표한 서명 인원의 마지막이었다. 후배 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 채웠어. 이번 주 안에 넣자.’

읽음 표시가 되고 20분이 지난 후에 답장이 왔다.

‘선배님,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정의 둥근 얼굴과 큰 눈이 아른거렸다. 기도, 목소리도 작은 정은 입사 9개월 차였다. 그리고 그 일은 입사 7개월이 갓 지나던 때에 일어났다.

“대리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야 해요.”

코로나 19 발생 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정착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회사에서는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공지를 반복했고 특히 회의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 사내 행사나 회의 때에는 참여자 중 인턴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이 입구에 서서 마

스크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 사용을 권했다. 정은 그날 행사 참여자 중 막내라는 이유로 논의 없이 입구에 세워졌다. 박 대리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행사장에 입장한 이후에야 나타났다.

“마스크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아, 제가 준비해뒀어요. 이거 쓰시면 되세요.”

정은 포장지에 든 일회용 마스크를 건넸다. 박 대리는 마스크를 받지 않고 정을 긴 시선으로 훑어봤다.

“나는 쓰기 싫은데, 그렇게 쓰게 하고 싶으면 씌워주든가.”

허리를 숙여 정 앞으로 갖다 던 박 대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정은 몇 초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불쾌함이 몰려왔다. 대꾸할 말을 고르려는 순간 곧 행사가 시작된다는 안내 멘트가 울렸다. 박 대리는 “이러다 행사 시작하겠네.” 하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마스크를 꺼내 박 대리의 양쪽 귀에 걸었다. 마스크는 코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영성하게 씌워졌다. 박 대리는 “손이 부드러워네, 아주.”라고 말하곤 마스크를 고쳐 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정은 박 대리의 귀에 닿았던 손의 촉감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날은 그 이후로 멍한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던 거 같아요.

마스크 포장지를 어떻게 뜯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박 대리가 정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크림을 보고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손이 부드러워지냐고 물어본 날이었다. 정은 박 대리에게 대답하지 않았고 메신저로 같은 팀 내 유일한 여자 선배인 나에게 퇴근 후 면담 신청을 했다.

정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이게 성희롱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순간 자신이 느낀 불쾌감, 이후 박 대리에게 대한 불편함의 이유를 고민하다 보면 매번 성희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확신이 없어 일주일 넘게 고민만 해왔다는 것이었다.

나와 정은 긴 대화 끝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알아보고 사건을 회사 측에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 나서는 일은 모두 내가 도맡기로 했다. 정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잘 견뎌주기만 해도 충분했다.

다행히 박 대리는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여성 직원들은 물론이고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종종 직원들을 타고 들려오곤 했다. 피해자를 찾는 일은 조용히 가지가 뻗어나가듯 진행됐다. 가장 친한 여성 동료에게, 그 동료가 또 다른 동료에게 박 대리에게 인한 피해 사실을 물

었다. 가까이는 옆 팀, 멀게는 층이 다른 팀 소속의 여성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하고 그들과 정, 내가 포함된 단체 메신저 창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각자의 피해 사실을 작성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이내 공론화에 대한 부담감이 뒤따랐다.

‘누군지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것과 피해 내용을 종합한 탄원서를 작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직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어떨까요? 서명수가 직원 절반을 넘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비밀 보장 요청하고 사건 접수 서류에만 우리 이름을 쓰면 신뢰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무리하지 말고 서류에도 익명으로 하고요.’

수많은 논의 끝에 방법이 결정되고 모두 함께 쓴 최종 탄원서가 작성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탄원서와 서명부를 들고 출근 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 이후에 서명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성 동료들의 절반, 남성 동료의 3분의 1 정도가 서명란을 채웠다. 목표한 인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나와 피해자들이 친한 동료들을 설득해 채울 수 있었다. 서명란이 채워진 스캔본을 메신저 창에 올린 날, 익명을 요구했던 피해자들까지 마

음을 바꿔 모든 피해자들의 실명이 서류에 기재됐다. 피해자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원할 때는 내가 동석했다. 피해자 조사에 동석했을 때가 입사 후 첫 대면 대화인 동료들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대면대면하지 않았다.

박 대리는 가해자 조사 직후부터 매일 직원들을 붙잡고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이 근처에 있을 때는 더 큰 목소리를 냈다. 뉴스에서 흔하게 봐왔던 성폭력 가해자의 말들이 박 대리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회사 내 분위기는 부서별로 갈렸다. 어느 팀장은 회의 시간에 불만이 있으면 뒤통수치지 말고 찾아와서 말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어느 부장은 탄원서를 복사해 모두에게 정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과 내가 속한 부서장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조사할 때요. 중간중간에 선배님이랑 눈 마주치는데, 어쩐지 모두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혼자서는 못 했을 거예요.”

정은 공식적으로 가해자 좌천이 발표되자 내 자리로 와 기뻐하다 조금 울었다. 서명을 한 동료들과 서명하지 않은 동료들 모두 정을 보지 않는 척하며 힐끔거렸다. 누군가가 한숨을 쉬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우리는 고개를 돌

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웃었다.  
메신저 창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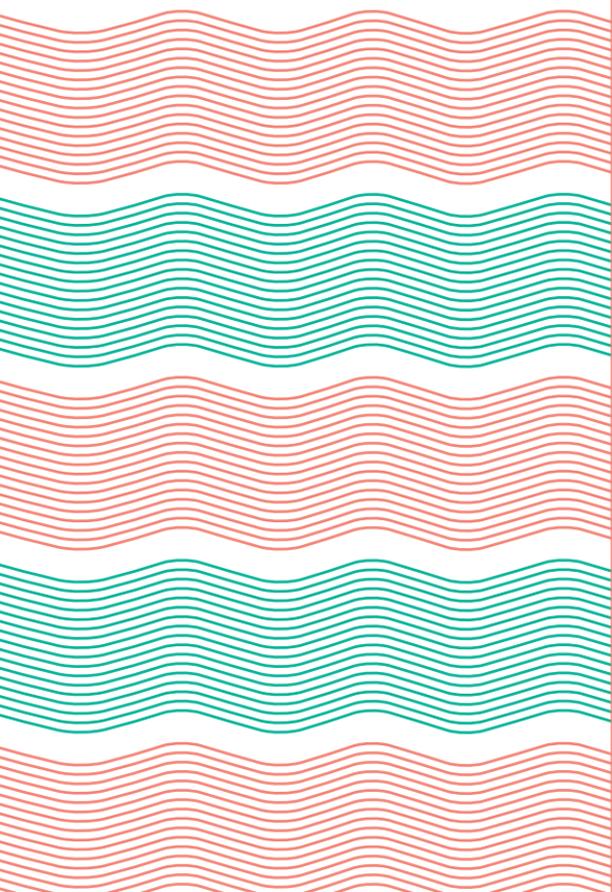
## 일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

홍산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범주를 포함하는가. 세 개의 회사에서 겪은 여성 혐오의 스펙트럼은 ‘누가 들어도 시대착오적인 범죄 급 언행’부터 ‘은은하게 불쾌한 성희롱 의심적 언행’까지 매우 다채롭다. 나는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은은하게 불쾌한 성희롱 의심적 언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외국계 종합광고대행사에서 아트디렉터로 약 2년간 근무하며 모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보직의 팀장이 대표적인 ‘은은한 불쾌함’ 유발자이다. 이 팀장을 ‘제리’라고 칭하겠다.

제리는 평균 은퇴 나이 40을 자랑하는 잔인한 광고업계에서 47세의 나이에 본인의 자리를 지켜낼 정도로 실적이 괜찮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제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사내 오픈리 게이 사원이 딱하니 앉아있음에도 당당하게 ‘난 게이가 싫어!’를 외칠 정도로 용기가 있다.

또 제리는 모든 여성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와이프 타입, 여자친구 타입, 딸 타입. 처음에 나는 그에게 훌륭한 딸 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가 훌륭한 딸 감이 되는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돈을 벌기 때문이었다. 함께 일한 지 반년 쯤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최악의 여자친구 감이라고 평가했다. 내

가 독하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주장이 세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평가였다. 훌륭한 여자친구의 재목은 자기주장이 세지 않은 고분고분함이라는 따분한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제리의 3타입 평가 척도는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본부에 상관없이 어린 여성이라면 그의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타 본부의 대학생 인턴은 제리의 ‘부담스러운 언행’ 때문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했다. 또 다른 아트디렉터 Y는 제리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무지함이 귀여운 여자친구의 재목이긴 하나 부하직원으로서는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해외 유명 운동복 브랜드의 시즌 캠페인 비딩(bidding)을 준비하던 때였다. 2019년 새해에 온에어 된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캠페인은 한녀들의 심장 한구석을 찡하게 울렸다. 우리가 준비한 비딩은 이 캠페인의 주제 의식을 이어가며 동시에 ‘요가 라인’을 잘 팔아야 하는 시즌 캠페인이었다. 쉽게 말해 페미니즘으로 요가복 좀 팔아달라는 것이었다. 페미니즘으로 요가복을 팔든 뺄스를 팔든, 페미니즘을 주제로 광고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 나는 한 없이 신났다. 내가 제리보다 광고는 모를지언정 페미니즘은 잘 알았다. 나는 아이디어 회의를 위하여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를

꼭꼭 눌러 담은 일곱 개의 안을 준비해 갔다. 제리는 처참하게 내 안 들을 밟아 뭉겼다.

“네가 보편의 여성이라고 생각해? 넌 너무 극단적이야. 여자 들이 왜 운동을 하냐고? 예쁜 옷 입고 싶어서, 살 빼고 싶어서,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너처럼 생각하는 여자는 어디에도 없어. 광고인답게 생각해.”

저연차 아트로서 안들이 밟히는 건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만 나는 그간 제리가 계속하여 덧칠한 ‘은은한 불쾌함’의 실체를 마주했다. 제리에게 이러한 언행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스스로 애처로워서 갑자기 영화처럼 눈물이 후드득 흘렀다. 같은 팀 카피라이터 홍 부장(40세, 여성)이 회의실 밖으로 날 불러냈다.

“야, 울지 마. 제리가 말 짜증나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질 질 짜잖아? 다른 여자들도 같이 욕먹는 거야. 정신 차려.”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야근을 하던 중 제리가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내 말이 뭐가 그렇게 틀렸니? 설득해 봐.”

팔짱 낀 제리 앞에 나는 정신을 맑게 고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갔다. 90년대 페미니즘부터 오늘날의 페미니즘까지, 페미니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 설

명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여자들은 어떤 어젠다를 이야기하는지, 왜 해외 유명 운동복 브랜드가 이러한 광고를 만들었고 왜 이것이 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입안에 침이 마를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제리는 어느덧 팔짱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말한 여자들 이야기, 공감은 안 돼. 근데 이해는 되기 시작했어.”

“CD님은 저와 같은 세상을 살지 않으니까요. 공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만으로 충분해요.”

제리의 이해를 득한 영광의 밤이었다. 나는 이걸 승리의 야근이라 명하기로 했다.

승리의 야근 이후 제리가 극적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더 이상 사내 젊은 여직원들을 3타입 척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든 평가적 언행은 자신만을 향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애적 시선을 잔뜩 담아 자기 자신을 ‘순정 만화 남주’ 타입이라 평가하기 시작했다. 슬렌더 체형, 댄디한 옷차림 등의 근거를 들어서 말이다. 승리의 야근 후 주변 직원들로부터 간간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리가 옛날에 비해 ‘사랑이 되어서’, 일하기 부쩍 편해졌다고 했다.

승리의 야근 후 일 년 반가량을 더 근무한 후 회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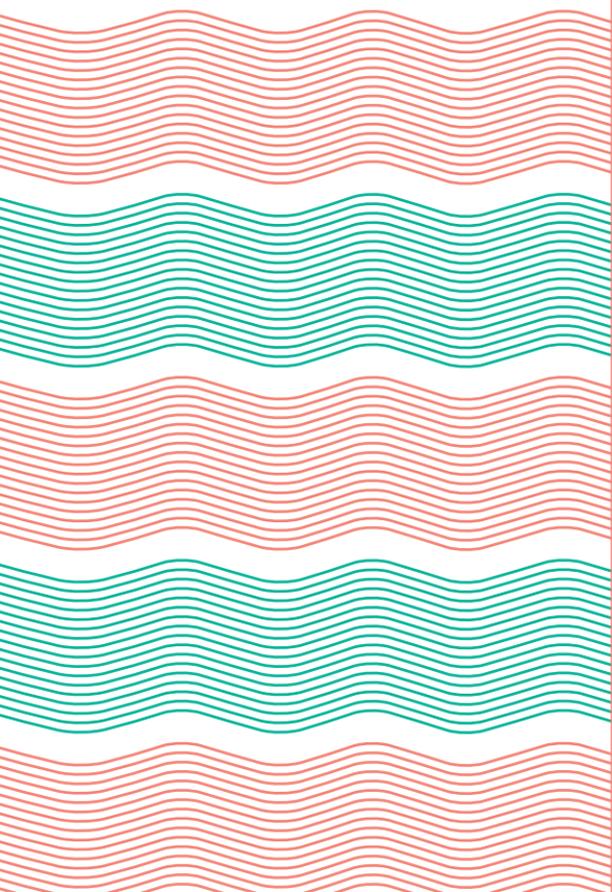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제리는 퇴사 날 마지막으로 내게 ‘나의 사고의 범위를 넓혀준 부하직원’이라는 평을 남겼다. 2년 동안 ‘제리의 은은하게 불쾌했던 언행은 성희롱인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다. 나는 제리의 언행으로부터 반드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이 은은한 불쾌함은 수치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나는 이 불쾌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모호한 성희롱 의심적 발언들은 수많은 여성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러한 언행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예민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직원 평가에 남을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충 씹어 삼켜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은은하게 불쾌하든 대놓고 불쾌하든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그 어떤 여성도 직장에서 이러한 언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 건 불쾌함을 느끼는 우리 자신이 아닌 2021년에도 시대착오적 언행을 일삼는 수많은 제리들이다. 고위직 남성들이 ‘선 희롱 후 눈치’가 아닌 희롱과 수치심을 동기화할 수 있는 수오지심을 지니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나는 '언니'가  
아니다

채은비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여성 캐디입니다.

캐디는 골프장에서 골퍼의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면서 골프장 전체의 흐름을 살피는 직업입니다. 한국 골프는 한 팀에 4인 플레이가 기본이고, 4인이 평균 7분 기준으로 티 오프(출발)를 하는데요, 앞 팀과 뒤 팀의 간격을 지키며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캐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플레이어가 최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골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프장 지형이나 특성, 장애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형까지 파악하여 최단 거리로 홀컵에 도달하도록 골프장을 안내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홀컵 위치, 풍속 등을 고려해서 미터와 야드를 암산해주고 미리부터 고객 비거리까지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골프채를 쥐여드립니다. 저는 스스로를 게임 공략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은 대부분 외모 평가입니다. 골프장의 주 고객인 중년 남성들은 캐디로서의 제 실력보다 제 키와 얼굴이 어떠한 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필드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일하는데, 나이가 몇인지, 어디 사는지 물어보며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고객이 너무 많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멀쩡이 떨어져 잠깐 마스크를 내리면 달려와서 얼굴을 구경합니다. 다른 팀 캐디와 외모 경쟁을 붙이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언어적 성희롱은 일상이죠. 실수인 척 만 지기도 해요. 손 휘두르다가 엉덩이 허리 가슴 툭. 골프채 뽑다가 실수인 척 툭. 그러나 골프장은 깊고 넓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녹취도 불가능하고... 실수인 척 애매하게 터치하는 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고 경기과 남직원들을 부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만, 저는 아직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면 저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자 캐디도 있습니다. 성별 구분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고객들은 남자 캐디가 없는 골프장을 참 좋은 골프장이라 말합니다. 왜 그러시냐, 남자 캐디는 체력도 좋고 편하지 않으시냐 물어보면 싫다고 하네요. 캐디는 여자가 해야 한다면 서, 자기는 골프 칠 때 남자 캐디 나오면 싫은 티 내면서 괴롭힌대요.

캐디를 소재로 한 포르노적 광고 문구나 콘텐츠도 있고, 캐디라는 명칭 자체의 어감이 너무 이상해져서, 필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바꿔 보기도 했습니다. 근무 시 필드 매니저라고 자기소

개를 하면 잠시 환기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캐디 아니고 필드 매니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더 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만 반짝 괜찮더니, 한 2년 지나니까 다시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고쳐 부르든, 제 쪽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고치든 상관없이 결국 99%의 고객은 ‘언니’라는 호칭을 쓰며 제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희롱을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님들이 희롱하거나 말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황당한 감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원증처럼 녹음기라도 하나씩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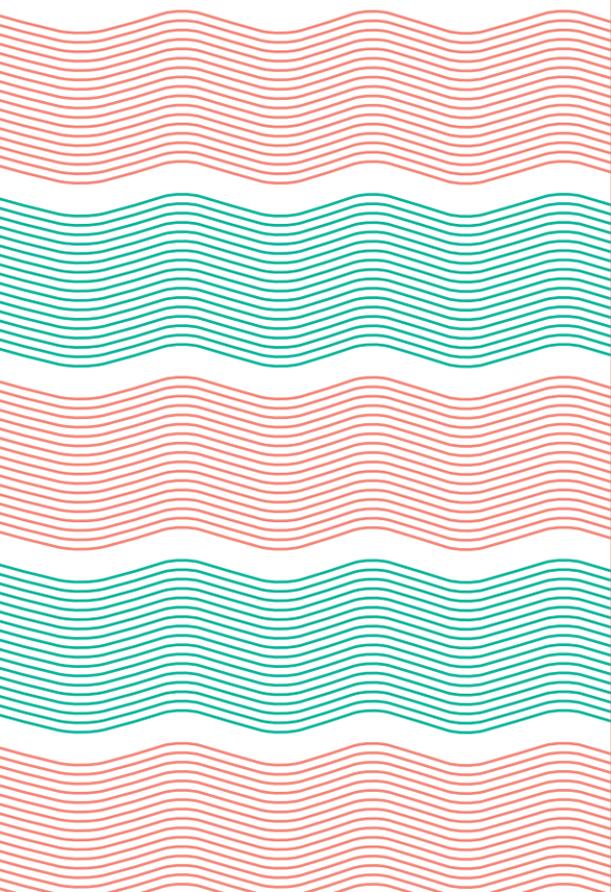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요즘에는 저를 보며 딸 얘기하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캐디나 여직원들에게 막 대했는데, 자기 딸이 성인이 되자 딸 생각이 나서 잘해주게 된다고요. 누가 자기 딸한테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요. 사실 자기 딸에게도 잘못 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압니다. 제 앞에서 말로는 딸 바보인 척해도 집에 가면 아닌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생각을 바꾸는 게 어딘가 싶어서 타협하게 됩니다. 딸 취급이라도 해주는 게 편해서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별 수 있는 만큼 별고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는 계속 캐디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이 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직업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만지지만 얹으면  
괜찮아?

익명



스물세 살에 작은 개인 카페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성희롱을 목격했다. 피해자는 내가 아니었지만. 사장은 그렇게 못생기고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느냐며 스치듯 본 다른 여성의 외모를 폄하했다. 외모 폄하에 이어 얼마나 게으르면 그렇게 뚱뚱하겠느냐며 인성에 대한 평가까지 곁들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사장을 비판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례한지,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게 내 삶에서 성희롱에 맞선 첫 번째 사례였다. 스물세 살부터 시작된 나의 돈을 버는 여정은 곧 '세상에 돈을 벌려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고?'의 연속이었다.

카페를 그만둔 뒤 옮겨간 곳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터졌다. 매니저는 잡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모두가 분노했지만, 동시에 신고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럼에도 나는 매니저에게 달려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직접 피해자를 설득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매니저는 휴게 인력까지 모두 불러모아 현장에 투입했고,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왔고 투입된 모든 인력이 목격자 진술을 했다. 가해

자의 핸드폰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성의 사진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유포된 근거가 없고 해당 촬영물을 성적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했다. 가해자는 당당하게 무고죄로 너희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피해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가해자는 잘살 텐데 피해자인 내가 왜 이토록 두려움에 떨어야 하냐고. 왜 괴로워하고 일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나냐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괴롭고 또 괴롭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사무치게 알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사업장에 배치되었다. 계약직이었지만 처음으로 직장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인 나, 가해자는 스무 살 가까이 많은 남성 사업주. 그는 만난 첫날부터 나의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했다. 블라인드 채용이었음에도 나이, 출신 대학, 전공, 학번, 출신 지역, 주소, 형제 관계, 부모님 직업과 소득을 아주 집요하게 캐물었다. 불편했지만 첫 만남이라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나와 처음 식사하는 식당에서 TV 속의 10대 여성 아이들을 보고 말했다.

“만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잖아? 너희들도 확실

히 알아줘야 해. 아무리 성희롱이라고 떠들어도 만지지 않으면 성희롱 아냐. 절대로 처벌 안 돼.”

그는 딱 자신의 말대로 행동했다. 여성의 나체 그림을 보여주며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고, 자신을 오빠라 칭했고, 간식을 입에 넣어달라고 했고, 나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말을 외모 폼평으로 받았고, ‘이런 것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이며 본능’이라고 정당화했다.

그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사업주를 신고해야 맞았지만, 슬프게도 그러지 못했다. 이곳을 떠나면 다음 기회가 없다, 다시 일을 구하기 어렵다, 소득이 없으면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가족의 생계까지 부담하고 있어 더욱 절박했다. 권력은 약자의 절박함을 먹고 커진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일자리를 잃을까 봐 크게 반발하지 못했고, 그가 나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신고하지도 못했다.

그곳에서 나 대신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업장에 있는 공공사업 참여자가 나의 말을 듣고 사업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사업주는 쓰레기 같은 교육, 개 같은 교육이라고 욕을 했고, 하루종일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며 “이건 성희롱 아니잖아, 그렇지?”라고 나를 괴롭혔다.

사업 매니저는 내가 있는 사업장에 와서 입 콧 다물고 시키는 일만 똑바로 하라고 했다. 그래도 연대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사업장 직원이 나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항의했다. 나의 능력을 높이 사던 클라이언트가 “사장님, 내년엔 경찰서에서 보겠네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연대해준 사람들에 의지해 나는 계약만료까지 버틸 수 있었다. 후련할 때도 많았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저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3개월 후 나는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 그곳에서야 알았다. 여성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여직원’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고 쉬운’, 일도 아닌 무언가를 하며 사근사근하게 웃고 모든 일에 “YES”라고 말하는 어떤 대상이었다. 상사는 남성 직원에게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여성 직원들에게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쏟아내며 성과를 깎아내렸다. 나는 분명하게 일을 하며 그곳에 있었지만, 그의 말속에는 나도 내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남녀 임금 차별이 있음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여성 직원들을 하위직군에 배치했으며, 승진점수에 차등을 주었고 인사고과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인사팀장은 본인 입으로 친히 “결혼한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일을 안 하니 뽑을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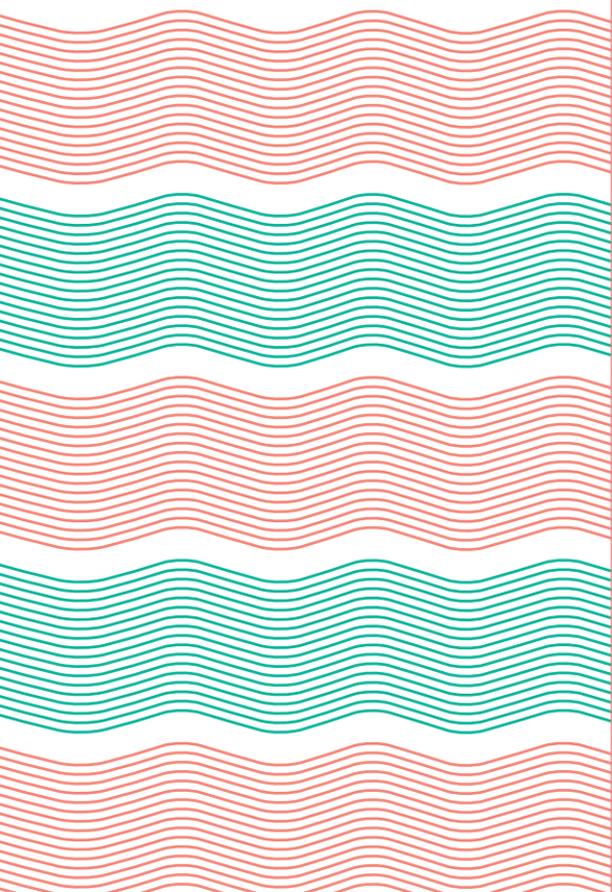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없어.”라고 했다.

이게 그나마 나아진 거라고 했다. 내가 입사하기 몇 년 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던 이사를 누군가 고발했고 그가 해임됐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싸웠다. 상사에게 업무 외 다른 내용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싸웠다. 여러 사람이 싸움에 함께 했다.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는 임금 성차별을 없애라고 싸웠다. 얻은 건 있었다. 직원들이 줄사표를 내며 한마디씩 하자 기업은 임금 성차별을 없앴고 모든 여성 직원들의 연봉을 올렸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는 떠나지만 남은 사람들은 최소한 임금에서의 차별은 겪지 않을 테니 말이다. 산적한 문제들을 한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었다. 불씨는 분명히 있었다. 활활 타오르기엔 너무나 작아서 태운 사람조차 소진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몇백 만 원 오른 연봉계약서를 받고도 나는 끝내 사직서를 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다.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요구받는 것이 달라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내가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는 일을 하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아직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불씨가 터지면 타오르는 어딘가를 꿈꾼다.

직장에서 만난 도른씨 :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하여

오민지



## 성희롱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나의 첫 직장에서는 술 미팅(이라 쓰지만 접대)이 잦았다. 마케팅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 거래처 미팅을 나갈 때면 흑독한 외모 평가를 들을까 늘 마음을 줄이곤 했다. 모 방송국과의 첫 미팅에서 들은 첫 마디는 “이전 담당자보다 못생겼는데?”였다. 이전 담당자는 보기만 해도 술이 술술 넘어가게 생겼었다는 등, 사비를 털어서라도 마케팅 비용을 더 주고 싶었다는 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와 함께 간 팀장의 언행이었다. 접대용으로 가지고 간 병이 예쁜 일본 술을 “예쁜 술은 예쁜 사람만 마시는 거야.”라며 나만 빼고 나눠마시면서 나더러는 소주만 먹으라는 것이었다.

어이없는 차별에 어안이 병병한 와중에, 술이 들어가니 본격적으로 얼굴 평가를 넘어 몸매 평가가 시작되었다. 정말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었다. 다음날 팀장에게 용기를 내어 어제의 일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였을 때, 팀장은 술에 취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역장이 무너졌다.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격한 농담을 던진 거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팀장의

말에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기가 막힌 성희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신고하기에는 몹시 애매한, 동성에게 당한 성희롱이었다. 그 사람은 내가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으면 내 허락 없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남자친구가 허리를 잡고 하면 좋아하겠다는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말을 스스럼없이 했다.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찌러보며 사이즈를 묻기도 했으며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튼 날이면 남자친구랑 좋았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남자친구도 없을뿐더러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불쾌하다고 거듭 말했지만 같은 여자끼리 농담하는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칭찬이랍시고 한 말도 듣는 이가 불쾌하면 엄연한 성희롱인데 어째서 이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았다. ‘목선이 가늘고 예뻐서 목걸이가 잘 어울리겠다’, ‘향수 바꿨나, 전보다 지금이 더 남자 홀리는 향기다’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신체 일부를 유심히 보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과 나에게서 나는 향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따름이었다.

성희롱은 정말 ‘답이 없다’. 선을 넘은 듯 안 넘은 듯 판단하기가 모호하거나, 따지면 농담 혹은 칭찬이랍시고 되려 나를 예민 종자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성희롱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도르끼들 덕분에, 나는 기꺼이 예민 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성적 농담 혹은 칭찬을 던지기엔 가깝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한다.

### 성차별에 관하여

SNS에서 무척이나 공감 가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직장 생활이란, 아침에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보러 갈 거라고 한마디 한 게 들고 돌아 점심 즈음엔 토익 보러 간다는 소문으로 바뀌더니 퇴근 즈음엔 이직 준비하냐는 질문이 들어오는 곳이다.” 내 표현으로 다시 쓰자면, 직장이란 아니 뎨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다. 미혼의 30대 여자 직장인인 나에 대한 유언비어는 대부분 남자에 관련된 것이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팀원을 만나, 같이 커피 한 잔을 사서 출근한 날이었다. 그날 오후, 파트장이 나에게 갑자기 면담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려갈 만큼 업무상 실수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고, 어처구니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 남자 팀원과 티 나게 연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결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만나 함께 오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진실 따위가 중요하겠는가.

파트장은 둘이 사귀다고 소문난 것 자체가 여자인 나한테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다그칠 따름이었다. 파트장 본인도 여자이면서 ‘왜 굳이 사내 연애를 하나, 여자가 더 나은 직장의 남자를 만나지 않고 같은 직장이나 더 별로인 직장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는 건 무능한 거다’라는 등 되려 여성을 낮추고 차별적 발언을 하는데, 속이 터지고 화가 날 지경이었다. 파트장은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라는 등, 업무에 소홀해지면 불러내서 징계하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잔뜩 놓고 나갔다. 기가 막힌 이 소문은 내 꼬리표가 되어 그 남자 팀원이 이직하고 난 후는 물론이고 내가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날 괴롭혔다. 잘못된 소문이라서 힘들었다기보다, 사내 연애가 여자에게 유독 최악시되는 차별적 분위기가 무척이나 속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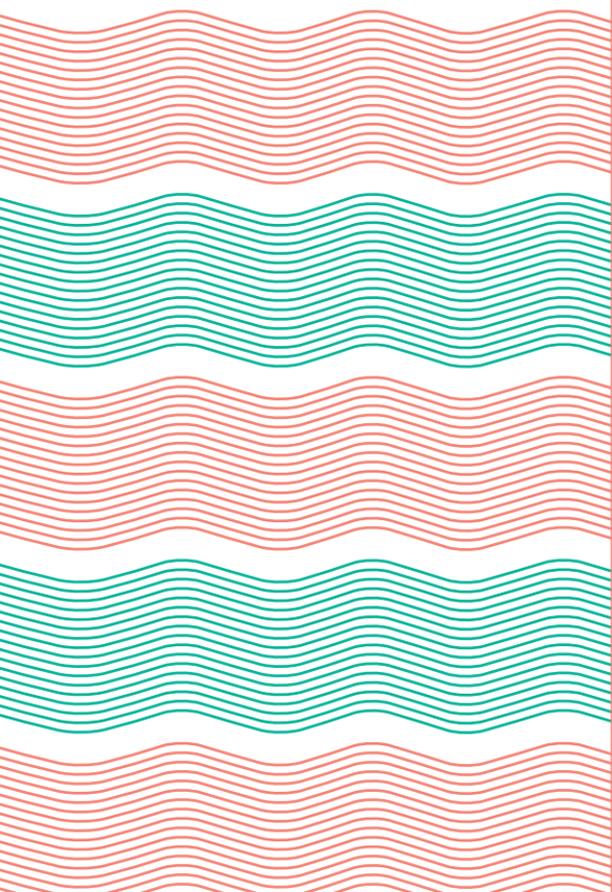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새로운 회사로 이동하고 난 후에는 더 강력한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해명할 가치도 없을 지경이었다. 팀의 ‘홍일점’이었던 나는 본래 성격이 털털한 덕에 남자 팀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그 모습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 내용인즉, 내가 남자 팀원 세 명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고 싶

다고 꼬셨고, 다 차였다는 것이었다. 남자 팀원들은 심지어 유부남이거나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기에, 나뿐만 아니라 소문에 연루된 팀원 모두가 몹시 불쾌해했다. 유포자를 색출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결국 유포자가 누구인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따지지도 못했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었기에 한동안 속앓이를 했다. 자극적인 유언비어가 돌고 돌아 나는 소위 말해 ‘남자 좋아하는 이미지’로 비치게 되었다.

직장 내 ‘유언비어’, 특히 남녀를 엮어 가십거리로 삼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게 참 답답하다. 회사에 왔으면 서로가 맡은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는 질투심에, 어떤 이는 지루한 직장 생활을 깨는 화젯거리로 삼고자 이런 일을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듯하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속이 끓아 터지는 동료의 있음을 무시하고, ‘유언비어’나 유포하고 가십거리로 삼아 수군대는 도른씨들 덕분에, 나는 씹담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동료에 대해서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리면 바르게 정정해주며 유포자를 끝까지 캐내 말조심하라고 용기 있게 따지는 행동이 바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스 박의  
라떼는 말이야~

익명



20년이나 지난 지금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라떼는 말이야~” 하고 나도 모르게 곧대가 돼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차별이 만연하던 과거 경험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현실이라면,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본다. 과거에 당연시되었던 문화들이 사회적 묵인 속에서 아직도 당연시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나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묵인한 개개인이 모여 썩어가는 종기들처럼, 암을 키우듯 우리 사회가 병들어 온 것이라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미투 운동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희롱 문제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IMF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회사가 건재했다면 아마도 나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공공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시집살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자 직원은 이래야 한다는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나는 알아서 눈치껏 자신을 챙겨야 했다.

부산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도시다. 마치

10~20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시민들 대부분이 과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답습하는 고지식한 경향성을 가졌다. 경상도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여자가 말이야~” 이 말투 속에는 남아 우선주의 사상으로 여자를 업신여기는, 여성을 자신의 종속물로 보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부부 사이의 불평등 문제와 부모로부터 답습되어 온 성차별이 자식에게로 연결되고, 가정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당연시되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난 돌처럼 정을 맞아야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경리 겸 무역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월급이 쥐꼬리만 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안 삼았다. 한 가지 일도 벽찬데 두 가지 일을 주는 건 인건비를 아끼려는 중소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 시절엔 경리 아가씨를 ‘미스 박’ 이렇게 성을 따서 불렀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취급을 당해도 당당하게 “제 이름은 ○○○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남자들은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처의 대기업에서 출장을 오면 여자 직원에게도 ‘○○○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사회적 갑질을 하는 대기업이 있었고, 알아서 기고 있는 을이 있었다. 갑이 뭔가를 부탁하기도 전에 생각을 읽어내어 척척 대령해야 하

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으로써 갑은 을에게 더 많은 계약 건과 이권을 넘겨줬고 그럼 을은 돈이든 여자든 비위 맞추기 든 더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쳤다.

첫 회식 날이었다. 회식이 뭔지도 모르던 나는 그냥 ‘이런 게 회식인가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건 분명 회식을 빙자한 접대였다. 오늘 회식이 있으니 맛있고 비싼 자연산 회 먹으러 가자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한 나는 처음 보는 거래처 부장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물론 전화 통화로 몇 번 얘기해서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런 자리가 회식인 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의 모토가 ‘가족처럼 정을 나누는 회사’였기에 술을 권하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술자리는 2차, 3차로 계속 이어졌다. 나는 술을 못 마셔서 정말 힘들었다. 한번 참석하게 되자 그 뒤로도 대기업 간부들과 거래처 인원이 부산에 출장을 오면 그날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무조건 회식 날이 되었고 참석을 강요당했다. 나는 여자라서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시중을 들어야 했고,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했고, 상대방이 술을 주는 척 인사를 건네며 손을 잡아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웃으며 슬쩍 손을 빼는 처세술을 익혀야 했다. 빈속에 열 잔도 넘는 술을 원샷 하자고 하면 하는 수 없이 밑에 물잔을 두고 그곳에 술을 따라 버렸다. 이것도 술집 아가씨한테서 배운 것이다.

2차는 항상 단란주점이었다. 거기선 많은 여자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 건지 퍼붓는 건지 하며 모두 문어처럼 흐느적거린다. 블루스를 추는 건지 더듬는 건지 난리도 아니다. 나는 정말 너무 싫었지만, 직장을 잃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봐도 못 본 척할 뿐이었다. 나의 싸늘한 무표정과 비쩍 마른 몸매에도 훑어보는 시선들이 너무 싫었다. 술을 먹기도 춤추기도 힘든 나는 무조건 무대로 올라가서 탬버린을 들고 미친 듯이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절대로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지만 내겐 도망갈 곳이 그곳뿐이었다. 모든 남자가 취해 있고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더 이상 나에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다행으로 여겼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3차는 남녀가 한 쌍으로 각자 헤어지는데 나는 택시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는 것에 안도했다.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것인가 생각했고, 두 번째부터는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며 위안했다. 내가 대기업을 들어가지 못해서 겪는 설움이라고 생각했다.

사장님의 친구인 사장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포커를 치면서 다방에 있는 아가씨 부르듯 ‘미스 박 이거 사 와 저거 사 와’ 하며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온갖 심부름을 시켜도 묵묵히 다 했다. 1~2만 원 쥐여 주는 심부름 값에 고마워해야 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들이 경리 아가씨와 잠

을 자고 돈을 얼마 쥐여 줬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늘어놓고 부러워하며 옆에서 희희낙락거리는 얘기를 참고 들어줘야 했다. 그 뒤로도 계속 예쁜 옷을 사주고 핸드백을 사주고 바람피우다 와이프에게 들켰지만 잘 넘겼다며 그걸 자랑삼아 떠벌리는 남자들이 한심해 보였다. 포커로 1~2백씩 되는 돈이 나뒹굴고 테이블이며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도 그건 그들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질식할 것 같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내일은 사직서를 내는 상상, 모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라며 뛰쳐나가는 상상을 했다. 퇴근해서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녔다. 그러다가도 ‘여자는 어딜 가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왜 조금 더 용감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에 늘 괴로워했다.

누군가 내게 ‘그러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내 처지가 어이없다. 수많은 성희롱을 당했지만, 당당히 말하지 못한 후회와 수치심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말 다행인 건 그런 지옥 같은 회사가 IMF로 환율이 두 배로 뛰면서 적자를 버티다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의지로 못 나오던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너무 시원했다. 이제부터는 여자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 거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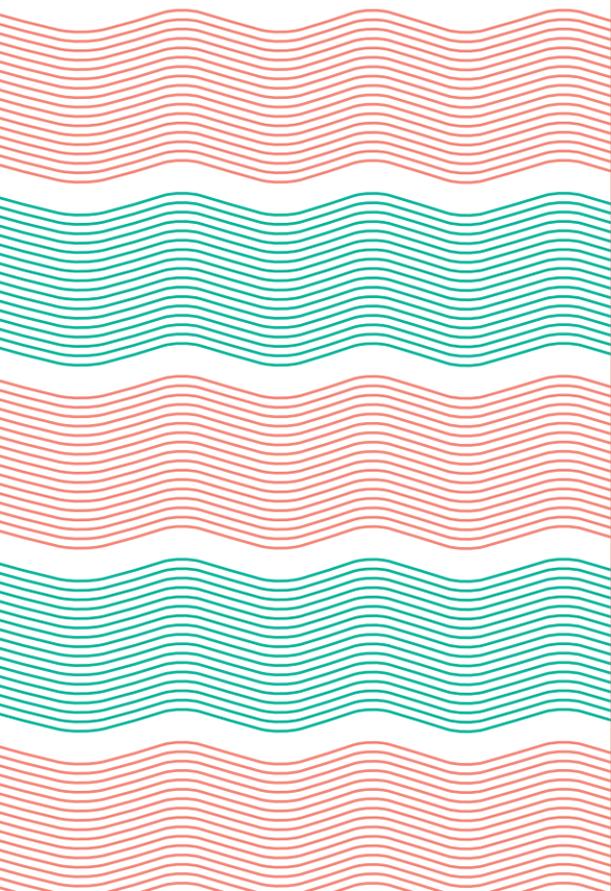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후회하고 자기 탓을 하며 바보처럼 살지 말고 할 말을 당당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요즘은 회식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술이 아닌 같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권장한다고 들었다. 정말 박수를 쳐줄 일이다. 그러나 성희롱, 성폭력은 권력 우위를 가진 이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에 상처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일어섰으면 한다.



후회는 금물,  
용기있게 연대하고 나아가세요

---

익명



인생을 지나다 보면 많은 후회가 떠오르곤 합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좀 더 경험이 있었다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그때.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막연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인 저는 전공과 다르게 비서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험이었지만,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까닭에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의 손님을 맞을 기회가 많았던 건 조금 곤욕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매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남자 직원들이 방문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저는 위협에 수시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성희롱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씩 그런 일을 겪고, 다시 떠올릴 때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한창 속앓이가 심했던 것도 그즈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처음 떠오른 감정은 자괴감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그때 그러지 말 걸….’ 뒤늦은

후회는 곧 자책으로 이어졌고, 깊은 우울감을 동반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가장 후회로 남습니다. 자신을 너무 검열하고 자책했으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옳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좀먹게 할 뿐이죠. 인간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고에 노출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재난재해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건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상황일 뿐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가해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그저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이러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업무 특성상 타 부서와 협업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여성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도 극히 한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초기에 여성 동료들과 교류가 적었던 환경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책하는 상황에 더 몰아넣었던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제게 용기를 주신 것은 타 부서의 한 여성 상사였습니다. 인맥이 넓고 여성 동료들과 교류가 많은 여성 상사가 저를 좋게 봐주신 일은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히 함께 점심을 먹은 이후로 그분은 제게 많은 여성 동료들을 소개해주었고, 저는 그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 동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소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회사 근처의 맛집을 공유하던 대화가 주를 이루었죠. 그러다 점차 상사에 대한 불만과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까지도 토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친밀한 대화는 직장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고, 깊은 신뢰를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성희롱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에게 받았던 위로와 따스한 격려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일이 없는데도, 단지 털어놓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진작 털어놓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책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회사에서 성희롱당했던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 이니까요. 또한, 그것이야말로 사내 여성 동료들의 연대가 중요 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다수의 여성 동료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상황이 닥쳤을 때의 대처와 노하우도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우선 제가 모시는 상사에게 조심스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오시는 손님과 남자 직원들에게 성희롱당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점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게는 무척이나 괴롭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어필했습니다. 당시 저의 상사는 슬하에 따님을 두 분이나 두신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딸인 저를 이해해주실 거라 믿는다는 마음, 깊게 의지하는 마음도 드러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사로부터 저의 괴로움을 통감한다는 답을 듣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말도 듣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의 상사는 성희롱을 일삼는 손님은 가급적 밖에서 만나셨

고, 남자 직원에게는 따끔한 주의를 주어서 더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괴로운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 차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업무 능력도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업무에 몰입한 결과, 모시는 상사에게서 두터운 신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자, 상사가 먼저 근래 불편한 상황은 없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고, 그러는 사이 제 마음속에서 자책과 괴로움, 우울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성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공유하였고, 서로를 챙기고 격려했습니다. 남자가 대다수인 조직 체계에서 여성 동료들은 연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황은 흘러가 버리고, 자책감과 우울감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 여성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대화하며 소소하게 사적인 모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내 남자 직원들은 긴장합니다. 우리의 결집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지 마치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요. 우리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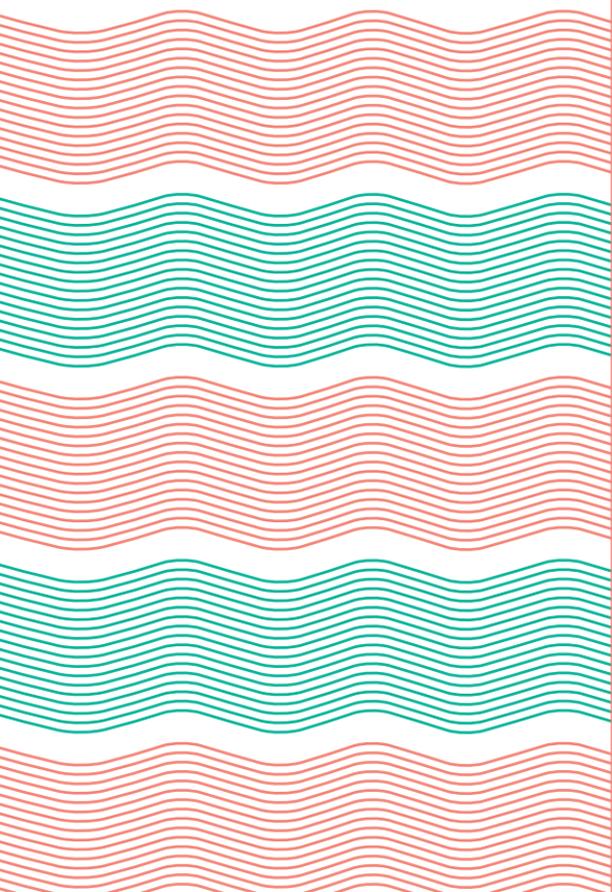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그 괴로움은 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통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만들어내  
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의 괴로움을 혼자서만 품고 있었  
다면, 저의 인생은 후회로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여성 동료들과 연대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더 나아가 굳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성  
의 연대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아가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익명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식었다. 나를 대신한 과장님의 발언이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5%도 안 됐던 직장에서 무려 20년을 근속해 과장 자리에 올랐던 그녀는, 사내에서 가장 독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성희롱인지도 모를 만큼 둔한 사람들은 ‘성희롱’이라는 단어에는 유독 민감했다. “아가가 왜 성희롱이야? 상대가 기분이 나빠야 성희롱이라며? 너 기분 나빴어?” 화살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나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나를 아가로 부르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상사들이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뻐하는구나 생각했다. 대학 시절 취업 상담에서 교수님은 나의 옛된 인상이 안타깝다 말했다. 애같이 생긴 사람에게 뭘 시키고 싶겠느냐던 교수님은 취업 상담 내내 성숙해 보이는 화장법을 연구하라는 조언만을 주셨다. 스물한 살, 나는 애같이 생겨 안타까운 내 얼굴을 원망하며 밤새 다른 화장을 시도해야 했다. 그해 말, 첫 직장에 취업한 나는 성숙한 화장법 연구가 무색하게도 직장에서도 이름 대신 아가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직장에서 내 위치는 어디쯤이었을까. 그제야 나에게 질문

을 던졌다. 나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었다. 직장에서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찻잔을 낼 때 달그락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 외에도 ‘체중 조절을 잘한다, 짜증이 확 나다가도 네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다, 이라서 회사에 꽃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2년을 보내니 나는 예뻐받는 직원이 되어있었다. 어떻게 하면 예뻐받는 직원이 되는지 아주 잘 아는 직원이기도 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고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 직원, 아무도 내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아가, 기분 안 나빴지? 기분 안 나빴으면 이거 원샷 해.” 딱 채운 소주잔이 내게로 왔다. 그 자리 모든 직원의 시선이 나와 그 하찮은 소주잔에 쏠렸다. 지금 이 잔을 비우면 아까 과장님이 나를 위해 용기 냈던 발언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당사자가 기분이 안 나쁘다는데 왜 그래?” 나를 대변했던 과장님의 어깨가 굽었다. 나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스스로 변명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따라오는 자괴감과 후회는 오롯이 내 몫이 되었다. 만약 그날 그 자리 최고 상급자가 과장님이었다면, 그때도 술잔을 비웠을까 하는 자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듬해 미투 운동이 불었다. 성희롱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나는 내 불행을 인정하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에 마주해야 했다. 그렇게 퇴사를 결심했다. 퇴사 의사를 전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투 하려는 건 아니지?”라는 물음에도 “그럴 리가요.”라고 대답하며 과하하 웃고 마는 나에게서는 그간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을까.

송별 회식에서 인사담당자는 내 자리에 나만큼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술도 잘 받아먹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걸 ‘따끈따끈한’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한순간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송별회 날 다시금 깨닫게 됐다.

직장을 도망치듯 그만두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좋게 나가지 못하면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반항은 마지막 출근 날 사내 도서 라운지 베스트셀러란에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의 책을 비치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노란색 형광펜을 죽죽 그은 책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내에선 꽤나 큰 이슈가 됐다. 훗날 전 직장 동료에게 그 책의 행방을 물으니 남게 된 여성 직원들끼리만 돌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작 읽어야 할 사람들이 책을 손에 쥐게 되는 날은 모든 책장이 노랗게 물들여지고 난 뒤일 거라 생각하니 실소가 터졌다.

직장을 떠나 먼발치에서 나를 거쳐 간 억압과 불합리했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나니, 마음만큼 또렷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 목소리를 낼 줄 알고 건강한 조직을 구별하는 사람이 됐다. 나를 인격체로 대하는 조직에 들어간 후 감히 내가 이 업무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를 되물으며 이미 ‘아가’가 되어버렸던 자아를 벗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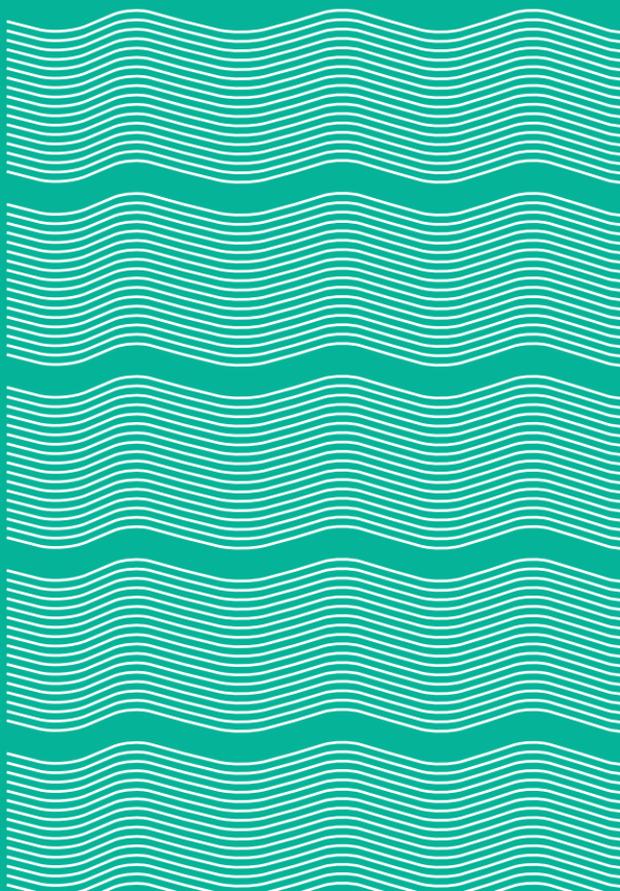
그날 술잔을 비우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아가’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나는 몇 년 동안 안줏거리가 되었을까. 과장님은 그런 내가 불쌍했을까, 한심했을까, 미웠을까, 세상이 미웠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따금 나를 괴롭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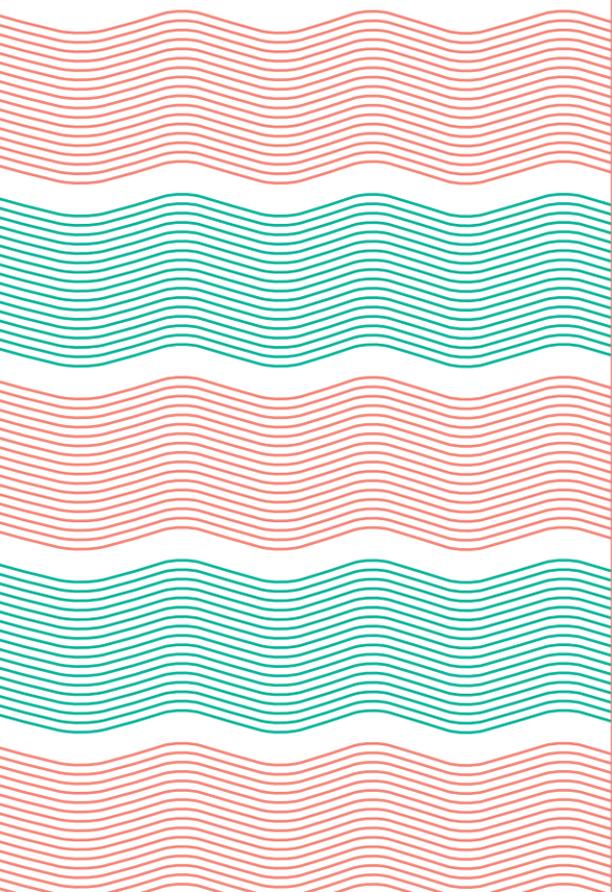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 3

개개인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

보라



작년 11월에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끝났으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다. 언젠가 내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지 생각은 해 봤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시작은 너무나도 작았다. 나이 서른셋에 콜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유일한 남성인 그 선배, 알고 보니 대표의 아들이었다. 신입이라 뭘 모르는 나는 옆자리 선배에게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 그날 하필 짧은 치마를 입었다. 사실 치마처럼 보이는 바지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허벅지와 치마 사이에는 삼각형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 선배는 내 질문에 답하며 삼각형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1초, 2초, 3초... 얼마나 지났을까? 긴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커다란 스프링 노트를 짝 펼쳐서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올렸다. 더 이상 내 삼각형을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대답을 이어 나갔다. 모른 척하는 모습이 놀랍게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다음날 팀장에게 말했다. 본인도 오랜 시간 당해 온 일이며 그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습범이었다. 대표님에게 말해야겠지? 자기 아들이 이려고 다니는 것을 이 아버지

는 알고 있을까?

대표에게 단독 면담을 신청해 해결을 요청했다.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인 당신의 아들을 분리해줄 것, 다른 직원들에게 있었던 사건까지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해줄 것,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공식적으로 징계할 것. 나는 당신의 아들이 상습범이라 말했고 당신은 본인이 아들 잘못 키웠을 리 없다고 답했다. 당신은 내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말아 달라는 명령 같은 부탁을 했다. 나는 열심히 콜을 받을 테니 사건을 해결하라고 답했다. 내게 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대표는 아들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거짓말이었다. 콜 시스템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 현황이 다 떠 있다. 나를 기만했다. 다음 날, 아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알았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도 고소를 받아주는구나.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걸 수 있는 뻔한 혐의, 명예훼손. 덕분에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대표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콜센터 동료들은 점점 말라비틀어져 갔다. 대표는 원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사건 이후로는 매일 아침 이쪽 콜센터로 출근해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계속 늘리고 작은 일에도 큰 목소

리로 트집을 잡았다. 다들 한숨이 늘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근무시간에 너무 긴장하고 있느라 퇴근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두려워서 법률과 계약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 콜센터는 공공기관의 용역회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용역 회사라면 이 콜센터를 발주한 원청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 신고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계약 자체가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 재하도급 금지 용역이었음에도 재하도급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이다. 원청 감사과에 메일을 썼다. 이런 메일을 투서라고 부르더라. 불법 계약이 맺어져 있고 이 계약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청의 직원들은 은밀하게 나를 불러 이것저것 물었다. 밥을 사주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지만 몇 달이 흘러도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 내가 정신과에 가는 것,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등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마침 코로나 19 국면에 접어들어 대표는 나를 다른 콜센터로 발령 냈다. 15분이던 출근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늘어났다. 부당전보였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으나,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인생에서 여러 번 뒤로 물러난 내가 여기서 더 뒤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서였다. 내가 넣은 투서가 오히려 나를 해고한 것이다. 저쪽 콜센터에서 버티던 동료들은 모두 다른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었다. 나만 제외된 고용 승계, 부당 해고라는 또 다른 불법이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대표를 고발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 긴 고소장을 써서 무고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 무렵 지인을 통해 국회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사건이야말로 국회에서 다뤄질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직장 내 성폭력은 보통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꽤 흔한 일이지만, 사건 처리는 깔끔하게 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 말이다. 나는 이런 조치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불법 재하도급 계약 때문이었다. 이 구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싫고 소름 끼쳤다. 한 정당에서 내 사건에 관심을 가져서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월급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선 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 노무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혼자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 노무사님은 내게 ‘이렇게까지 하는 피해자는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봐도 지독했다. 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되찾아 오고 싶었다. 아니, 빼앗아 오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피해에 대해 보상까지 받으리라. 내 일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부당 해고 구제 심판은 재판과 비슷한 형태로 열렸다. 위원 대여섯 명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나와 대표가 좌우로 앉아 각자를 변호하는 모습이다. 대표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니, 답은 뻔했다. 부당 해고로 인해 내가 받지 못한 월급 5개월 치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대표는 합의를 제안해왔다. 아들에 대한 고소와 회사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다. 기꺼이 받았다. 피해자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이 합의금이 그 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경찰서, 노동부, 지방노동위를 오가며 쓴 나의 교통비와 밥값, 인터넷을 검색하고 노

무사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기운이 날 때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정리하고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를 써온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실 부족한 돈이다.

그래서인지 합의금을 받았어도 딱히 시원하지 않았다. 다행히 내겐 국정감사가 남았다. 여성이며 청년인 한 국회의원이 내 사건을 다뤄주겠다고 알려왔다. 공공기관의 원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질책했다. 재하도급 계약을 맺을 잘못에 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무능함에 대하여 질책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기관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소로웠다. 나에게 대한 사과는 역시나 없었다.

이후 의원님 덕분에 원청의 고위직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의원님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고 나와 보좌관이 먼저 회의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들은 양복과 구두를 갖추고 회의실에 들어와 깡뚫하게 인사했다. 평소라면 그들이 회의실에 앉아있고 내가 깡뚫하게 인사했을 것이다. 오늘은 달랐다. 그들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몇 개나 제출했지만 나는 그것을 열어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아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하여. 투서로 고발했던 불법 재하도급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착취하는 불법에 대해

여. 그 불법행위가 노동자와 시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하여. 불법 재하도급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에 대하여. 고발된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처리하는 데 4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하여. 그 긴 시간의 끝에 나온 대책이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을까? 어린 여성에게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험 말이다. 그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실을 떠났다. 사과는 없었다. 그래도 이제 끝이었다. 이 사건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긴 걸까 진 걸까 꽤 여러 번 생각해 봤다.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꽤 오래 생각했다. 남들은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계속 키웠다. 사건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힘이 났다. 수많은 기자님들이 용역회사의 이름과 대표의 이름, 원청의 이름까지 모두 기사화해주었다. 하지만 처벌된 사람은 없다. 사과도 받지 못했다. 돈은 받았다. 딱 이만큼의 승리일까. 이런 것도 승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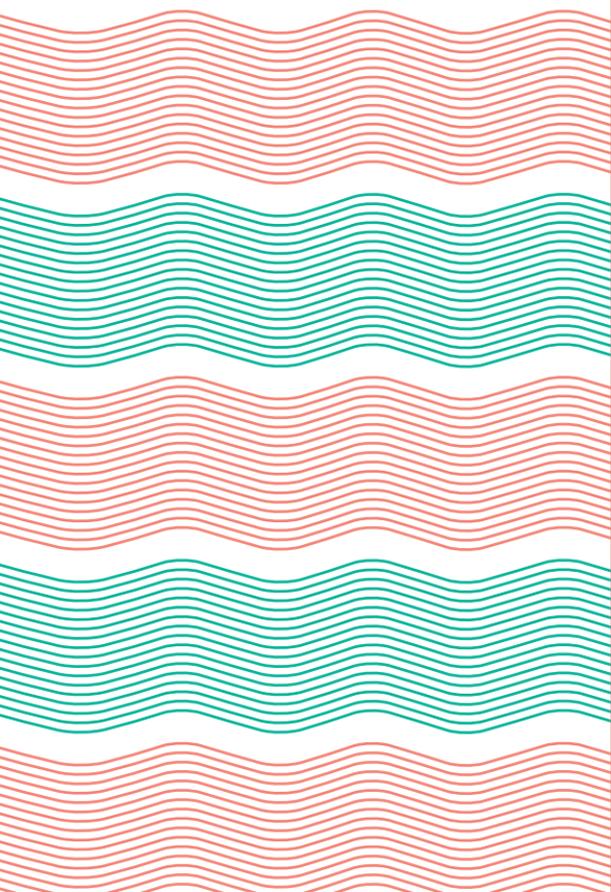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이 일을 겪은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했다. 성폭력 상담원이 되기 위한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있다. 공대 나온 여자. 자랑스러운 내 타이틀이었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다. 에너지

와 지식을 모아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설 것이다. 내가 겪은 감정으로 공감할 것이고 내가 찾아낸 방법들을 공유할 것이다.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모두 갚아드릴 것이다. 그들이 내게 해준 말,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그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결국 그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 with you.



재난  
행동요령

고망



누군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가요?”라고 내게 물어 온다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정의 및 각 법률의 행위자·피해자 요건, 위반 시 벌칙 규정과 한계를 줄줄 읊을 수 있다.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맡은 일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케이스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절차와 상황별 대응 방법이 머릿속에 자동완성 문자처럼 각인되었다.

연말마다 계약 기간 종료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치러 같은 곳에 입사하기를 반복했다. 두 번째로 퇴사한 겨울, 채용 공고가 나기 전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치킨과 맥주, 국수 따위를 팔고 주로 동네의 나이 든 남자들이 단골로 드나드는 작은 호프집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아가씨, 학생, 언니, 알바, 딸내미, 며느리’ 그리고 드물게 ‘사장님’도 있었다. 나를 ‘며느리’로 부르는 손님은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거나 과일을 깎아 달라고 했고, ‘딸내미’로 부르는 손님은 술을 따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다. 손님은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회사 붙으라며 응원

을 하고선, 동행에게 “이제 이~쁜 언니들 나오는 노래방 가서 놀자”라는 얘기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손님들이 하는 말은 ‘두세달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흘렸다. 다행히 중년 여성인 사장은 무척이나 친절해서, 그 친절에 기대어 근무 시간을 버텼다.

K는 나를 ‘알바’라고 부르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소주 병을 깨거나, ‘형님’이라고 부르는 동행을 데리고 와서는 “내가 여기 단골이니 땅콩을 서비스로 달라”며 맡겨둔 것처럼 소리치곤 했다. K가 오면 최대한 멀리 앉아 핸드폰을 했다. 말을 걸어와도 가능한 한 짧게 답했다.

국내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게에 손님이 뜸하던 날이었다. 10시가 넘자 손님은 K와 ‘형님’만이 남아 있었다. 한사코 거절하는 사장님에게 K는 본인이 살 테니 ‘알바’랑 같이 맥주 한 잔만 하라며 졸라 댔다. 주방에 들어가 오징어를 최대한 천천히 굽고 분주하게 설거지며 청소며 할 일이 많은 척했지만, 테이블이 10개도 되지 않는 작은 가게에서 더는 피할 길이 없었다.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가 맥주를 가지러 일어나는 순간, K가 엉덩이를 쓱 만졌다.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그다음엔 수치심도 분노도 아닌 ‘지긋지긋함’을 느꼈다. ‘지긋지긋’하다는 말 이외에 달리 어떻게 표

현할 수 있을까.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던 본능적인 직감에서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 모르는 척하는 그 표정. 너무 뻘하고 경멸스러워 대응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 ‘내가 착각했나?’ 하는 아주 약간의 의심으로,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

며칠 되지 않아 K는 다시 한번 카운터에 서 있는 내 엉덩이를 툭툭 쳤다. “선생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제 엉덩이 만지고 그러시면 다음엔 안 참아요. 신고합니다.” 사장님이 얼마 전 설치한 CCTV와 곳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 덕분이었을까, 이번엔 확실하게 고의로 만졌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는지, 말을 얼버무리던 K는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툭 친 거지.”라며 버텼다. K의 맞은편에 앉은 ‘형님’이 “아무리 ‘알바’가 어리고 그래도, 제대로 사과해.”라고 꾸짖자 그제야 “아휴~ 미안합니다.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라고 마지못해 사과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 보았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니 고용노동부 신고는 안 되고, 사장님과 단둘이 일하는 사업장이니 부서 이동이나 특별 휴가 같은 보호 조치도 요청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민·형사 소송인데, 어쨌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행위자 본인 진술, CCTV, 당시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 피해 직후 SNS에 남긴 피해 정황에 대

한 글들을 고려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지원을 받는 절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소한다면 중간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 기소, 재판까지 최소 6개월. 회사에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 보았고, 신고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K는 내가 신고한다는 말에 무서웠는지, 그 후로도 자주 가게로 찾아와서는 내게 괜찮다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자고 했다. 절대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는 내게 몇만 원을 쥐여주기도 했다. 그 돈은 “저는 안 받겠습니다. 사장님 쓰시려면 쓰세요.” 하고 카운터 현금함에 넣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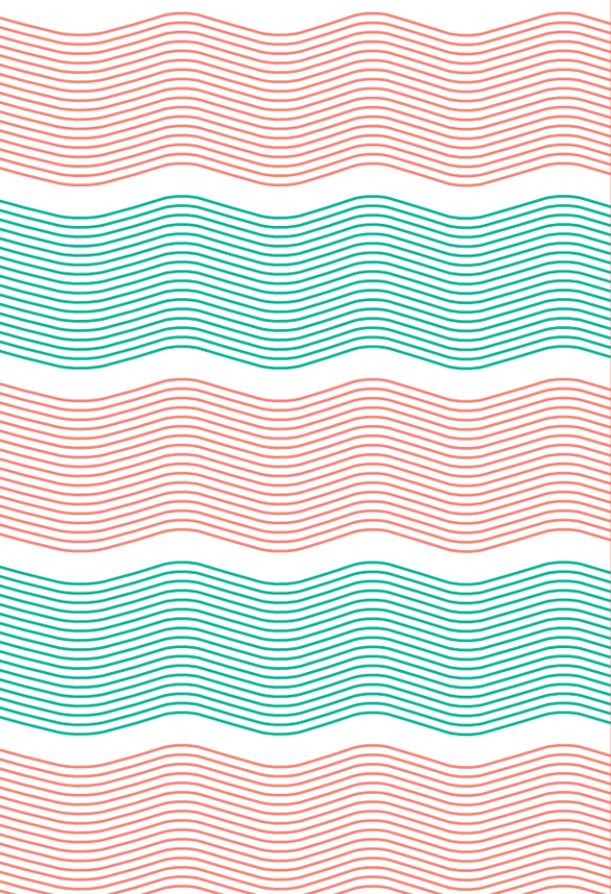
이것은 ‘인생은 실전이야’를 맛 보여준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도 아니고, 수치심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이야기도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 일터에서 일상을 침해당한 일이고, 단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선택한 이야기이다.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이나 변호사, 상담사 등의 조력자들이 충분히 도움을 주겠지만, 결국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이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게 꼭

나일 필요는 없고, 그 방법이 반드시 법적 처벌이어야만 할 필요도 없다. 만약 성희롱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후회된다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괜찮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다. 윤이 좋게도(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한 솔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윤 때문은 아니겠지만), 나는 이전 직장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 초반, 똑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의 나는 얼음이 되어 말도 하지 못했고, 두려움과 자책감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긋지긋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자원 덕분이다. 재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미리 익힐 수 있다. 성희롱은 재난처럼 갑자기 들이닥쳐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기 때문에, 예방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할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엔 재난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스티커의 주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혜빈



그날 아침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출근했을 때 내 자리에 는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붙여 놓은 건 확실하지만, 그 스티커는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창고를 뒤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패념치 않고 스티커를 구겨 버린 후 동기에게 인사치레 겸 이 소식을 전했다.

‘그거 우리가 회사 화장실 불법 카메라 구멍에 붙여 놨던 거잖아!’

‘뭐? 근데 몇 개월 전 일이고…. 너무 억측 아냐?’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원래 동기의 성격이 호들갑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그 답장은 꽤 무겁게 다가왔다.

동기가 전한 말은, 내 포트폴리오에 페미니즘 성향이 강해 대표가 나에게 평소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기와 내가 화장실 나사 구멍에 스티커를 붙인 행위는 사내에 소문이 퍼지기 충분한 유별난 행동이었고, 내 자리로 스티커가 되돌아온 그날은 내가 대표에게 퇴사 선언을 한 다음 날이었다.

스티커의 범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법 충격이었다. 일전에 대표, 다른 상사, 나

이렇게 셋이 술자리를 가졌다. 그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서로의 소회를 나눴다. 가까워진 분위기에 나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남자를 대하는 게 아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밝히다니. 상대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나는 남들보다 이른 사회생활을 했다.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 하나 없던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순진하진 않았다. 그냥 나는 관계의 손익을 따지는 데 지쳐 있었다. 그때 대표가 보여준 걱정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는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됐다.

“얼굴이 붉네.”

“아... 제가 평소에 술을 잘 못해서요. 콤플렉스예요.”

“귀여운데 왜?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

입사 2주 차부터 같은 부서 남자 과장이 나에게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선을 긋기에는 자의식 과잉으로 몰릴 법한 은근한 행동이 계속됐다. 누구의 결정인지 알 수 없는 출장 팀 배치에 항상 그 남 과장과 함께하게 됐고, 과장의 손은 내 어깨로, 다음에는 허리로 점차 내려왔다. 숙소에서 본인 객실로 나를 따로 호출하기도 했다. 함께 넷플릭스를 보자는 명목이었다. 거절하긴 했지만, 더 어찌지는 못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처음 온 사적인 연락을 계기로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었다.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차 그 주말을 보냈다. 과장의 싸늘한 시선으로 시작되는 괴롭힘 끝엔 퇴사라는 미래가 그려졌다. 하지만, 회사에서 마주한 과장의 태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다.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기도 했고, 그를 피해 쫓기듯 퇴근을 하면 그가 혈레벌떡 따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과장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순간 내 뒤 가까이 এস었다. 매일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나의 행동, 웃음, 말투 모든 게 신경 쓰였다. 훗날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내가 해뒀기 때문이라고 할까 봐 두려웠다. 나는 퇴사를 결정했다.

사실을 숨기고 대표에게 역량 부족과 적응 문제로 퇴사를 하겠다고 전하자, 대표는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 결국 대표에게 과장과의 카톡 채팅을 보여줬다. 화면을 말없이 보던 그는 휴대폰을 돌려주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다.

대표는 나에게 내가 왜 위축되면 안 되는지, 과장이 얼마나 심각한 짓을 했는지 열거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생계 수단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과장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명분에 내가 엮일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제안에 감사를 느끼면서도 한편 불안을 느꼈다. 사실 나는 과장이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에 신물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은 피폐한데 회사 사람 누구 하나 의

지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대표는 알겠다면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 자꾸 날 불안하게 했다.

그날 대표는 갑자기 같은 부서 대리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제안했다. 과장이 숙소에서 나를 방으로 부른 그 출장 팀 멤버 중 한 명이니 이 일과 무관하지 않아서였다.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 말이 무시된 것에 기묘함을 느꼈지만, 수락했다. 대리도 과장의 평소 행실에 문제점을 느꼈고 해고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짧게 끝났고 다른 얘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대리는 나에게 다시 얘기를 꺼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네? 과장님이 카톡 보낸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뭘 아무튼, 사실 난 이 얘기 듣고 안 놀랐다. 다들 알고 있을 걸? 막말로 돌이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당장 내일 회사에 오늘 일을 전하겠구나. 그리고 다음 날, 내 자리의 의문의 스티커로 시점이 돌아온다.

그 주 사무실 자리를 정리하고 두 달간 재택근무를 하다가 끝까지 재계약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자, 대표는 전화로 막말을 쏟아부었다. 나 때문에 괜히 과장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잘랐다고

했다. 그날의 대표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상처받았다. 그날 하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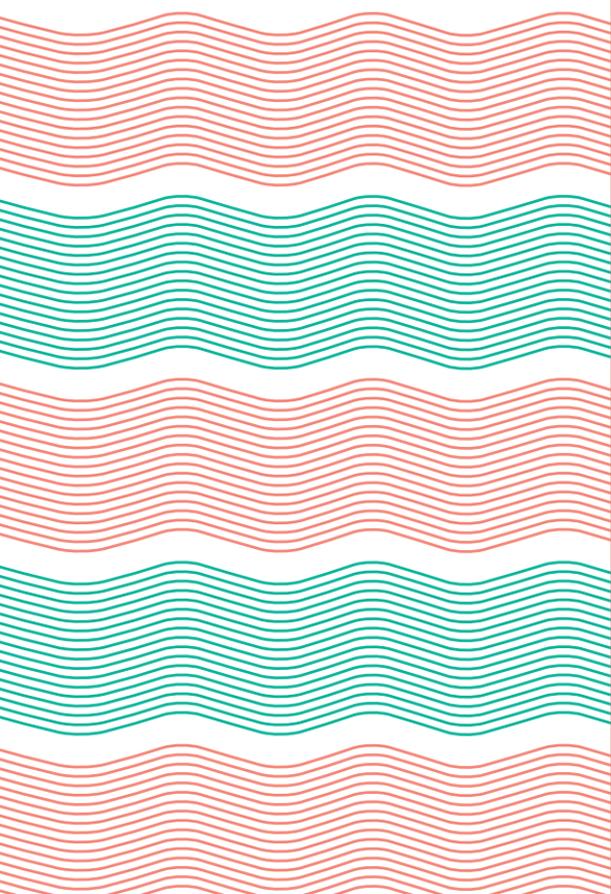
회사는 내게 하루치 상처만 주었다. 나에게서는 나를 응원하는 친구, 가족이 있었다. 배우고 싶은 게 남지 않은 회사가 준 상처는 낫선 이의 무례였다.

내가 지금까지 위축됐던 이유는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성격에 결함이 없으면서도 이성과의 관계는 확실히 선을 긋는 사람. ‘당해도 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다. 지금 확실히 알게 된 건, 욕하기 위해 상대를 극한으로 몰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애초에 ‘완전무결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꼭 쥐고 있었던 나를 향한 칼날을 그제야 놓을 수 있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 칼을 뺏는다면 다음에는 망치를 들고 쫓아올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칼을 든 사람을 격리하고 출입을 막는 것이다.

칼 든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 갈 수 있는 많은 곳을 위해, 난 오늘도 행복하다. 도망치고 다친 사람도 건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유대를 위해 멀쩡히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며 감히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름 없는  
시간

김민영



이름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끝내 추억은 되지 못한 시간이다. 좋은 기억이라면 추억이라 하겠지만, 나쁜 기억인데 지워지지도 않고 추억보다 더 선명해져 나를 찾아오는 그 이름 없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사건은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직장에서 발생했다. 추위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몰려왔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나는 백화점 VIP 주차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VIP 손님들에게 주차 안내하는 일을 했는데, 악명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의외로 진상 고객들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평안 속에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나는 다섯 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해 매우 지루한 상태였다. 그때 내 자리 뒤로 부지점장이 다가왔다. 내가 근무하던 자리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들어갈 아주 좁은 크기의 데스크였다. 그런데 부지점장은 기어코 의자를 가져와 그 자리에 앉았다. 좁은 공간에 몸집 큰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상태로 계속 서 있어야 했다.

근무시간에 그분을 만난 것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지점장이 이상

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친구에 대해 묻고, 어떤 스타킹을 신냐고 묻고, 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체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등 이상한 질문과 요구를 했다.

처음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상식적인 상황에서 하지 않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애써 그 순간을 부정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상황인지 인지할 즈음, 그는 내 뒤에 앉아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요즘 애들이 이런 사진 많이 보던데 너도 보냐며 아주 당당히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당당함에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내가 예민한 것인지 고민했다. 그 사진은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한 외설적인 속옷 차림의 여자 캐릭터 사진이었다.

부지점장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자기가 몇 살 같아 보이냐며 20대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내가 거절하니 역시 20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남에 건물 몇 채가 필요하다며 여성들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매우 나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근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심한 저항뿐이었다. 여고를 나온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내가 40대 남성인 부지점장의 위압감을 견뎌내긴

어려웠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검열했다. 누가 봐도 그의 잘못된 상황에서, 내가 불쾌해해도 되는지, 당당히 나의 불쾌함을 밝혀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부지점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고, 겉보기에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감정을 타인의 시선에 맡기는 행위가 바보 같았다는 후회가 되지만, 그 당시의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퇴근 후 여자 서무님께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다. 일이 끝난 후에도 불쾌함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그에게 당한 성희롱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지금은 그렇게 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나는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모든 직원이 내가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몇몇은 자신도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며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비난했다.

이 상황을 통해 성희롱을 당하고도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성희롱을 그저 사회생활 중 내뱉는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를 비난한 사람 중에는 여성 직원도 있었다. 충격

적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동성의 직원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검열해야 했다.

결국 그는 성희롱으로 인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 물론 아쉬운 조치였다. 회사는 고작 문서 하나를 만들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는 인증서에 서명하게 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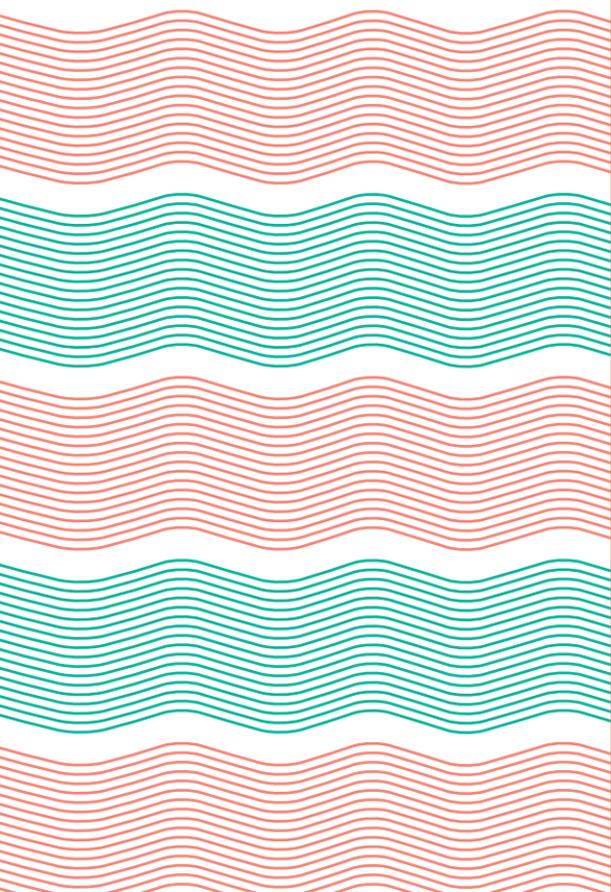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나는 그 회사에서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내 앞에서 대놓고 나를 조롱하며 신고를 나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회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그 회사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나의 행동을 보고 각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용기 내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투쟁할 용기를 주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나는 여러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나는 불의의 순간을 애써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

다.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때를 잊지는 못할 것이다. 추억이 되지 못할 나쁜 기억이지만, 그 기억 속에는 투쟁하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순간도 함께 있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이 응어리진 채 오직 고통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아직도 고통 속에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용기 내 투쟁하기 바란다. 영원히 그 순간은 잊을 수 없겠지만 그때 내가 투쟁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을 준다.

남자가 쏘잔하게  
뭘 따져

최양수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들 못지않게 남성들 또한 ‘그래도 남자잖아’,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일을 당해’라는 식의 주위 반응이 두려워 성희롱을 당하고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인 내가 여성 상사에게서 피해를 입었던 것은 15여 년 전의 일이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나는 간신히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 듯한 열패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한 방에 날려버린 통쾌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는 활기가 넘쳤다. 내가 속한 영업 2팀도 여성인 서 팀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 분위기가 좋았다. 밝은 성격의 서 팀장은 나에게도 친근하게 잘 대해주었다. 나는 팀장을 따라서 일을 배우며 3개월여를 보냈다. 수습 딱지를 떼고 막 정사원이 됐을 무렵이었다.

“○○ 씨, 요즘 운동해? 엉덩이가 봉긋한 게 제법 탄력 있네~”

내 뒤에 서 있던 서 팀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순간 듣기에 조금 거북했지만,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서 팀장의 덕담이라고

생각해 “영업은 체력이 생명이잖습니까. 헬스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것에는 시작에 불과했다.

“잠깐 나 손 좀 주물러줘. 역시 젊어서 그런가, ○○씨 손이 제일 시원하더라.”

입사 5개월 차가 지나자 서 팀장이 나를 불러 어깨나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불쾌했지만, 직속 상관을 상대로 싫은 내색을 하기는 어려웠다. 성희롱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팔이나 허벅지 등을 스스럼없이 터치하기 시작했다. 놀라서 몸을 피하려고 하면 “우와~ 팔뚝에 힘줄 좀 봐. 밤에 힘깨나 쓰겠는데.” “난 ○○씨처럼 엉덩이가 뽕뽕한 사람이 좋더라.”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다.

더 큰 문제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일어났다. 2차까지 단체 회식을 마친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를 할 때였다. 술에 취한 서 팀장이 나를 지목하며 “자, 우리 팀의 섹시가가이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서 팀장이 등 뒤에서 나를 와락 끌어안더니 얼굴을 돌려세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깜짝 놀란 나는 다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팀원들은 서 팀장을 말리기는커녕 박장대소하고 있었다. 10여 초 만에

입술을 떴서 팀장은 내 엉덩이를 툭툭 치며 “○○씨, 요즘 잘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수치스러웠지만, 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웃는 바람에 최대한 표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 서 팀장을 완강하게 밀쳐내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직접 불쾌함을 드러내면 앞으로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다음부터 나는 서 팀장이 앉은 쪽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한다. 게다가 나처럼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문득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왜 피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과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 팀장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망년회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장난친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날 다들 재미있어했잖아. 그렇게 싫었으면 나를 밀쳤어야지. 그땐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왜 피해자처럼 굴어.”

술기운에 한 장난이였다고, 없던 일로 덮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다. 특히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내 잘못이

라고 나무라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영업팀 총괄부장을 찾아가 그간 서 팀장의 성희롱과 신체접촉, 노래방에서의 일 등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내 얘기를 다 들은 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자가 쪼잔하게 뭐 그런 일 갖고 따져. 딱 들어봐도 예뻐해서 챙겨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영업사원이 자세가 안 되어 있네. 그리고 노래방 일은 술김에 실수한 것 같으니까 ○○씨가 대충 참고 넘어가. 내가 앞으로 서 팀장한테 후배 너무 예뻐하지 말라고 주의 줄 테니까.”

큰마음을 먹고 찾아갔지만, 부장과의 상담은 별 의미가 없었다. 신입사원보다는 실적이 좋은 서 팀장을 감싸고도는 게 뻔히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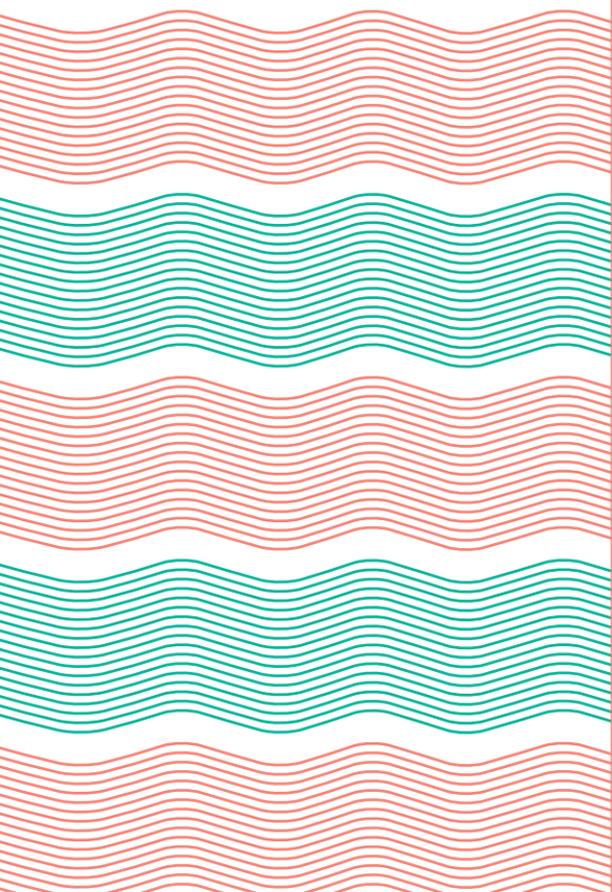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서 팀장은 총괄부장으로부터 귀뜸을 받아서인지 나에게 대한 성희롱을 완전히 멈췄다. 대신 이유 없는 트집과 괴롭힘이 시작됐다. 팀원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해도 나만 공개적으로 혼나거나 질타를 받았다. 불필요한 사무업무를 강요당해 정작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희롱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집요한 보복에 시달리다가, 나는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로부터 15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면 온몸에 진저리가 쳐진다. 가해자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이한 인식과 방관하는 태도도 내게는 큰 상처였다. 누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했다.

성희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절대로 이를 근절시킬 수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희롱은 일종의 사회문제인 것이다. 직업, 성별, 나이를 떠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과거의 성희롱 피해자로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네 편에 설게

고성운



“참 이상하더라고. 림살롱 언니가 들어오면 내가 데리고 간 대학원생이 되게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야. 표정도 짝 바뀌고 자리도 피하고. 같은 여자끼리 왜 그러지?”

술자리에서 내게 술을 따라준 교과서 대표 저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다는 듯, 회상에 젖은 얼굴로 운을 띄웠다. 회의 시간에 내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활동과 삽화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할 사례로 끌고 온 것이었다. 대표 저자의 한마디에 다른 교수와 교사들도 공감한다는 듯 허허거리며 분위기를 맞췄다.

“같은 여자라서 그렇겠지요. 사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교과서는 뭐 엄마가 아이 안는 삽화만 그려 넣어도 성차별적이라고 탄지를 거니까 안전하게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빼는 거지만서도.”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없는 기준이 많아요. 저도 대만 학회 참석했을 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있던 조교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뭐라 말은 못 하는데 투덜투덜하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뭐라 한 적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여자들 도와주고 저쪽에선 돈 벌고 서로서로 좋은 일인데 그런 식으

로 걸들면 교수 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교수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사회에서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귀를 씻고 싶었다. 예측한 대로 흘러간 대화였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동안 교과서 회의랍시고 매주 2~3회씩 모일 때마다 매번 엇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대부분 내가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시작한 스물다섯의 어린 여성이라는 점을 인식한 말들이었다. 내 반응을 보고 싶어 던지는 각종 희롱은 교묘한 방식으로 나를 건드렸다. 표정이 드러나는 게 싫어 화장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울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에 한 교수는 원피스를 입은 내 프로필 사진을 확대하며 이렇게 허연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걸 걸어놓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우리야 고맙지만.”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원고를 검토하다 발견한 오류에 대해 문의했다. 어디서부터 짚어야 할지도 막막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냥 농담인 듯 가볍게 던진 말에 흥분한 모습으로 응수하기 싫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내 눈치를 살피며 흘린 음흉한 웃음과 밀바탕에 깔린 생각들이 떠오르니 구역질이 났다.

자리가 파한 뒤 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다른 술집에 데려갔다. 팀원은 나뿐이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형국이였다.

“취기가 오르니 얼굴이 빨개져서 더 예쁘네. 오늘 입은 옷도 잘 어울린다. 어두운색이 잘 받네.”

“저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예쁘다고.”

우스웠다. 나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많은 상사가 내게 내뱉은 말에서 풍기는 악취가 역겨웠다. 나는 분명 열심히 공부해 일정 기준을 넘기고 까다로운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왜 계속 어린 여자 취급인 걸까? 왜 여자는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며 견뎌야 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또 누가 헛소리한 거 아니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너 무 늦은 시간까지 뒤풀이하면 몸 안 좋다 하고 적당히 빠져나와.’

‘안 그래도 보고서 써야 한다고 말하고 나오려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열이 뻗쳐 참을 수가 없는 순간엔 내 상황을 잘 아는 다른 팀 선배들의 걱정스러운 문자가 날아들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혼자 앓을 때보다 든든한 기분이 들고 머리끝까지 타고 올라왔던 분노도 점차 가라앉았다. 방금 있었던 일을 전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내 편에 서 주었다. 그렇게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말로만 떠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었지만 내게 달라붙은 모욕감을 떨쳐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 더구나 내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다.

“주말엔 뭐해? 저기 영등포에 족발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는데, 같이 갈래?”

팀장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대충 바쁘다고 하면서 넘겼다. 대꾸할 기운마저 사라진 기분이었다. 다른 팀 선배에게 보낸 메시지로 나는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내일 어떤 식으로 보복해 올지 눈에 훤히 그려지는 듯했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 나는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팀장은 나를 자신의 자리 바로 옆 간이의자에 앉힌 후 두 시간 넘게 혼자 떠들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웅변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내가 작성한 보고서의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죄 짊으며 이건 기계적인 표현이고 저건 논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관객이 있고 제멋대로 훈계할 직

원도 있으니 아주 신이 난 듯했다.

이번엔 나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간밤에 술 상대를 해주지 않아 꼬일 대로 꼬인 그의 기분을 풀어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내 업무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팀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모두 반박했다. 나는 검토한 원고와 오류, 피드백과 답변, 회의 때 주고받은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짚어나갈수록 팀장의 의견이 얼토당토않은 트집 잡기였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근데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 뭐 이렇게까지 무섭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면 될 것을 바득바득 대드네. 얼굴 좀 풀어. 웃으면 예쁜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러시면 신고할 거예요.”

내 답변에 팀장은 펄쩍 뛰었다. 붉으락푸르락 변하는 팀장의 얼굴을 마주 보며 내 외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엮는 것도 성희롱이고 업무 외적인 시간에 불러내 데이트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가해 사례를 전부 까발리려다 짧게 질문했다.

“혹시 성희롱이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혼자 서울 올라와 자취하는 팀원 챙겨주려고 그런 건데…. 이거 억울해서 뭐 말을 못 하

겠네.”

가해자들은 모두 가해자 되는 법이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 받는 교육이 따로 있는 걸까. 어쩔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올까. 씩씩한 기분에 휩싸이기 전에, 내 의사를 밝혔으니 앞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팀장은 알겠다고 답하고는 냉랭하게 굴었다.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덕에 성희롱이 일어나는 구조와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욕과는 관계없는 권력의 문제라는 것, 가해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지르는 폭력이라는 것,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은 아무리 반복해도 모자랐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매뉴얼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과민한 것 아닐까, 내가 여지를 준 건 아닐까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알게 모르게 나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을 현실에서도 적용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상대는 성별, 나이, 경력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회사에서 무난하게 지내는 것이 좋았다. 나쁜 평판이

붙으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연봉 및 승진과도 직결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이라는 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일지도 모른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성희롱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보다 월급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처럼 행동할 수 없다. 가해자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이용한다. 상대의 반응을 세세하게 살피며 어디까지 침범해도 괜찮은지 가늠하는 데 능통하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는 것뿐이다.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가해의 씨를 말리는 것, 결정권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구조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 언제 어디서고 다 통하는 성희롱 대처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대처법을 가르치기보다 가해자가 가해하기를 그만두도록 교육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날 팀장은 미약하게나마 자신에게 맞서는 내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 후론 불필요한 언행을 줄였다. 최대한 내게서 떨어져 골치 아픈 일과 엮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참고 견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허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기분 나쁜 소릴 들어도 방어적으로 웃어야 했던 지난 나날들을 다시 겪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업무 외적으로는 철저히 선을 그으며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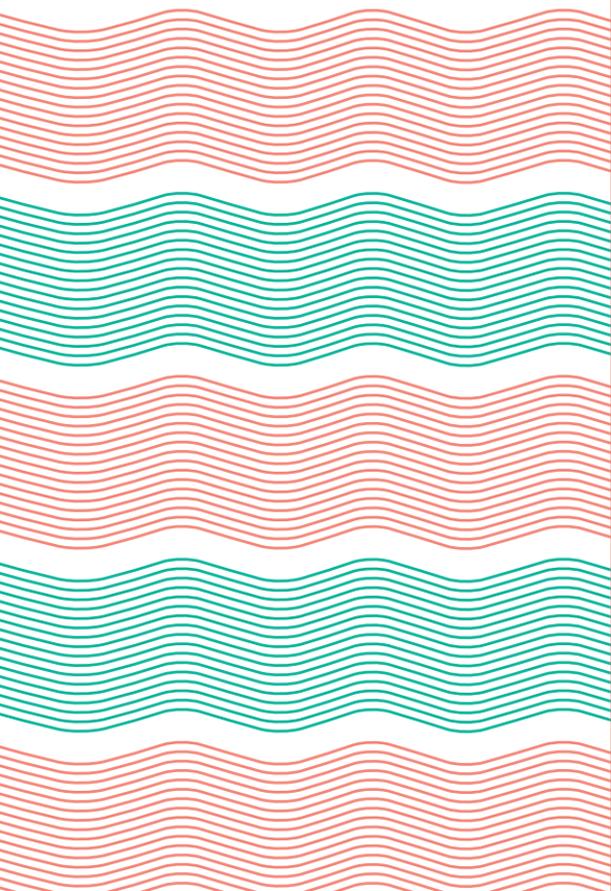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씻어야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나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피해를 겪었을 때 내게 잘못된 화살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저 나빠지는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길을 열어 나아갈 수 있는 건, 쉽게 절망하고 손 놓기보다 다른 여성의 앞길을 닦아주는 쪽으로 움직인 수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는 그 마음만을 믿는다.



직장 내 성희롱  
솔직한 대화로 타파하다

서여름



평범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예비 작가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갖고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네모난 딱딱한 책상들과 파티션으로 살짝 가려진 삭막한 공간. 타자 소리만 타닥타닥 들리는, 정적이 이어지는 순간이 더 많은 곳이었다.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근무처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기존 직장에는 여성 종사자가 많았으나, 이곳은 나와 한 분의 여성분 빼고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남초 집단이었다. 그래서 주로 의견도 남성들이 냈다.

이곳에서 마음을 잡고 잘 적응하려던 참에 고민이 생겼다. 매일같이 한 남성 직장 상사분께서 나의 옷차림을 갖고 평가를 하셨고, 나와 남자친구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깊은 질문을 자주 하셨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면 남자친구와 오늘은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물었다. 하나하나 답변해야 하는 것이 참 스트레스였다. 어떤 때에는 여성으로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오늘 옷차림 너무 섹시하다. 여름이 다리 정말 길다! 예쁘게 잘 빠진 것 좀 봐. 여름이 남자친구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여자 친구 있으면 매일 업고 다닐 텐데.”

“남자친구가 요즘은 잘 해줘? 선물 같은 거 자주 사줘? 최근

에 뭐 사줬어?”

“만나면 어떤 데이트를 해? 데이트 코스 좀 알려줘 봐. 이런 평일에는 좀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눈도 붙이고 그러지?”

“한창 좋을 때다. 불금인데 남자친구랑 뜨거운 밤 보내. 파이팅!”

이런 언어 구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내게 던지시 사생활을 물을 때마다 불안하고 불쾌했다. 나는 매번 뭐라 답할 길이 없기에 그냥 웃음으로 넘기거나 최소한의 대답만 이어 갔다. 주변 사람들도 이미 익숙하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그들이 밉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무반응을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곳에서 나가야 할까?’라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쌓일 때 즈음, 한 사건이 터졌다. 여성 직원 한 분과 나, 그리고 문제의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 상사와 젊은 남성 사원이 차를 타고 회식에 가는 길이었다. 남성 직장 상사와 젊은 남성 사원의 대화가 화근이었다.

“너 요즘 영계 여자친구랑 같이 산다며. 좋냐? 스물두 살이라고 했냐? 어리니까 더 맛있냐? 요즘 얼굴 더 좋아졌다, 너.”

뒤 내용은 생략하겠다.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뒷좌석에 있는 나와 다른 여직원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

급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 높은 대화가 이어졌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간의 불쾌함과 스트레스가 한번에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잠시 차를 세우자고 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크게 한번 한숨을 쉬고, 호흡을 가다듬고, 회식하기 전 드릴 말씀이 있으니 카페로 이동하자고 권유했다. 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였는지 모두가 정적인 채로 내 의견에 따랐다. 항상 웃기만 하고, 밝고 애교 있던 내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내 의견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고 나는 대화를 시작했다.

“작가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말이고, 언젠가는 드러야겠다고 생각한 주제입니다. 작가님과 방금(남성) 사원분과 차 안에서 나는 대화 내용 제가 녹음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 같이 일하는 동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간 저와 여성 동료에게 간간히 성희롱적인 발언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관계와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는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중해주시요. 그리고 저와 여성 동기에겐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성 사원분께서도 지금까지 표현은 하지 않

았으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서 젊은 남성 사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아까 차 안에서 한 발언은 많이 경솔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여성으로서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저도 제 동거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부끄러움이 드네요.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조심할게요.”

또 정적이 흘렀다.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녹고 있었으나 그 누구 한 명 맛있게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여성 사원이 입을 열었다.

“작가님,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말아야 하나 말입니다. 여름 씨가 들어온 이후로 관심이나 성희롱적인 언행이 여름 씨에게 쏠려 있어서 한동안은 참고 지내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여름 씨에게 미안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작가님의 그간의 언행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여자가 타주는 커피가 진짜 커피 맛이’,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야 탈 맛이 나지’, ‘여자가 따라주는 술 맛이 최고지’, ‘여자는 역시 어리고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언행들, 지금부터는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안

에서의 대화 내용도 저 또한 불쾌했습니다. 여름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정적이 흘렀다. 굳게 입을 다물고 계셨던 남성 상사, 자존심 있던 작가님께서 잠시 뒤 얘기를 꺼냈다.

“내가 경솔했고 잘못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미안하다. 남자들만의 허세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남성 사원들보다 여성 사원들을 더 살갑게 대한다는 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앞으로 조심할게. 아까 일은 미안해. 기분 풀고 아이스크림 먹자.”

내가 어렵사리 먼저 꺼낸 대화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두가 본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원하는 바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제야 속으로 안도했다.

사실 이 전에도 직장 내에서 간접적인 언어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 예전 직장의 원장님은 70세가 넘는 고령이셨다. 그분은 직원들을 호명할 때 앞에 ‘미스’라는 단어를 붙였다. 나는 어렸던 터인지 별다른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이야 이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볍게 생각했으나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분들은 자신들을 부를 때 앞에 ‘미스’를 붙이는 것을 성희롱이라며 매우 불쾌해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께 예의를 갖춰 미스라는 표현이 불쾌

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다 함께 단합해서 원장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미스라는 표현을 붙이면 응하지 말자고 합심해서 행동했다.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서서히 원장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셨다. 미스라는 표현 대신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서 우리를 호명하셨다.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성희롱적인 언어에서 벗어나 주체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이때 나는 언행 하나하나와 눈빛과 몸짓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 초년생 시절의 선배분들께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경험과 변화 과정을 떠올리며 나 또한 다른 환경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불쾌한 순간을 변화시킬 용기와 방법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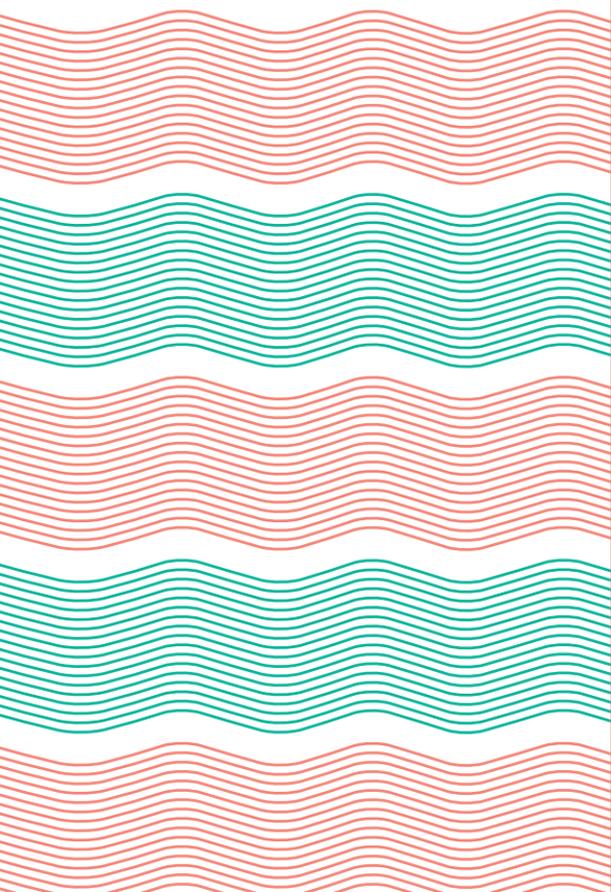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녹는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서 속 얘기를 모두 꺼내 놓았던 그 날 이후 직장 내에서 불쾌했던 성희롱은 사라졌다. 그 이후로 더욱 일의 능률도 올라갔고, 인간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서서히 제대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변화했다.



성희롱에 변명하는  
상사들의 자세

익명



“그 친구는 예민해서 조심해야 해. 신고당할지도 몰라. 하하.” 이런 말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예민하다’라는 단어에는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예민함의 표현은 주로 후자가 가깝다. 특히 무례함을 일삼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불쾌한 언사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예민함’이라는 말은 폭력적이다. 그들에게는 예민하다는 말이 비겁한 무기로 쓰이지만 나에게 예민의 감정은 방어기제로 쓰인다. 상대방이 뺨을 쓰레기를 귀로 먹고 삼키지 말라는 신호. 난 나의 예민함이 좋다. 회사 생활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던 말 중 쓰레기가 아닌 말이 없었다. 내 예민함은 거리를 두어야 할 인간을 선별해주기도 한다.

한번은 상사와 경쟁사들의 홍보 인쇄물을 보며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종이를 마구 넘기는 상사의 손이 경쟁사 여자 모델이 인쇄된 종이에서 멈췄다. 그는 “오우, 이 여자 몸매 봐. 와... 가슴 크고 섹시하다. 오...우.”라고 연신 외치며 여자 모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마

구 문질러댔다. 곧이어 그 손가락은 모델의 라인을 따라 내려갔다. 이상한 눈빛에 침까지 삼키는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혐오감과 수치심이 느껴졌다. “이런 모델을 써야 남자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야. 남자들이 많이 가는 박람회 같은 데 가봐. 여자 모델들 가슴에 일부러 뭐 붙이고 나오잖아.”라고 말하며 본인의 가슴을 탁탁 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여간 불쾌한 게 아니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향해 “정말 최악이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최악? 하하. 최고지!”라고 대꾸했다. 그가 나의 상사라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 일과 더불어 전에 들었던 불쾌한 말들을 모두 포함하여 워선에 보고했다. 그는 나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원래 모델 선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도 네가 내 말에 의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할게.”라며 지질한 사과를 건넸다. 그에게 “이거 엄연히 성희롱이에요.”라고 말하니 “아니. 다른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해왔고 한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라며 내가 유독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다. 성희롱을 일삼는 자들이 늘 그렇듯, 본인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희롱범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조직에는 권력이 있다. 권력은 직급과 비례하게 커진다. 안타

깝게도 권력은 자리에 맞게 적절히 쓰이기보다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남용된다.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권이 필요하듯 타인의 불쾌함이 그들의 즐거움으로 변모되는 길로 들어서는 일종의 입장권 같기도 하다. 내가 그의 부하직원이 아니라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클라이언트라면? 아마 같은 말을 건넬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서 이슈되는 회사 내 성희롱 사례를 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성희롱의 주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부하직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지위가 곧 권력이기에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 힘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힘의 남용은 내가 그들을 넘어서는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위치란 또 어디일까. 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내 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불쾌한 언행이 자행되는 더러운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특정 위치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쓴웃음을 짓게 만든다.

여성 모델을 성적 대상화하고 주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그에 대해서, 나는 그 스스로 문제가 되는 언행인지 진정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건 그의 양심만이 대답할 문제다. 하지만 자신의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조직에서 받게 될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알량한 사과를 하는 그가 참

지질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령 정말 몰랐을지라도 성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는 뜻이니 그 또한 본인의 무지에 창피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는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오빠라는 등, 주말에 연락하라는 소리도 일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또래 직원에게 또 다시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에서도 함께 관심을 두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상사들이 내뱉는 쓰레기들을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거라고 믿고 싶다. 선을 넘는 무례함에 결코 웃으면서 넘어가고 싶지 않다. 그들이 나로 인해서 추잡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명이라도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 한 명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 주위 몇몇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변화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젠더 감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변화해 온 사회 윤리를 따라가지 않은 게으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저 ‘요즘 조심해야 해. 뭐만 하면 다 성희롱이래. 여직원들이랑 말도 섞지 말아야겠어.’ 따위의 말만 할 줄 알지 본인의 젠더 감수성을 키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내뱉는 저런 말도 여성 배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나.

회사에서 일 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 시간을 채우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지금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라이는 도처에 널려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조직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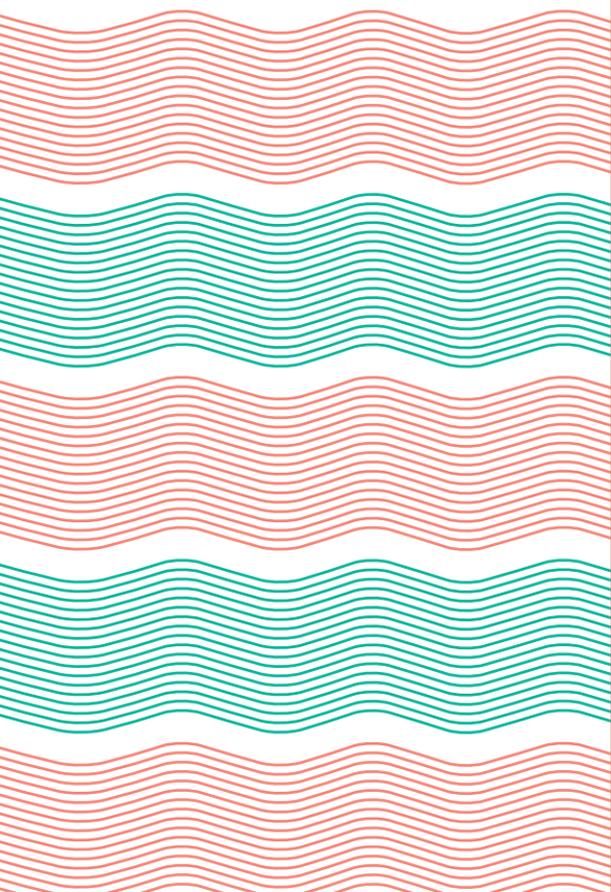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 4

## 이제 일터가 변할 차례



모두 자연스러웠지만,  
난 아니었다

익명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공감할 만한,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내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난... 그래,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움’이라고 여겼던 그 분위기 때문에 나는 돌연 커다란 파도에, 물속에 잠식되었다. 자연스러움으로 위장한 그 어두운 속내를 알아채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그 어두운 본질을 외면하고 싶었다.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려워하지 말자.’

그와 나는 직장 내 상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은 곳으로 끄집어낼 힘과 용기가 내게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지금 내 정신적 상태에 직면하는 것.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정신적 고통이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진 내 정신으로는 도저히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난 그 시간에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정신과 상담 등을 검색해 한 사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했다. 나를 어둠에 잠식시켜버린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상담 전화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법적 처벌은 어려울 듯싶어요. 우선 회사에 말씀드려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었기에 나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상황을 전달해야 할 인사담당자는 그 사람과 두터운 유대관계를 유지했었다. 해결 방법은 없어 보였다. 단지 나는 그 사건을 나의 동료에게 토로했다. 동료는 감사하게도 나의 상황과 내가 직면한 감정에 공감해주었다. 동료의 공감이 물속에 잠겨버린 나에게 산소를 주입해 물 밖의 산소를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정신을 차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 나를 정신없게 만들었던, 차마 답장하지 못했던 그 카톡에 답장을 써 내려갔다. 답장? 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겠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너무 불편한 감정을 일으켰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카톡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몽롱한 정신으로 밝은 내일을 꿈꿨다. 다시 자연스럽게 이전으로 돌아갈 나를 상상하며, 나의 발악에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까지도 미리 정리했었다. 아주 웃긴 상상이 되어버렸지만. 나의 발악에도 그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려고’ 등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말을 늘어놓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같은 공간에 그 사람과 나만 있어야 하는 순간에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쿵쿵 내리쳤다.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회피할 때는 적어도 멀쩡했던 내 몸이 그 사람에게 불쾌함을 토로하고 사과를 받지 못하자 고장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며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발현되었다. 내 육체가 통제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수없이 해 보았다. 나의 답은 ‘아니다’였다.

동료들은 내게 이제는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대부분 회사에 말하지 못한다. 언어적 성희롱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거기에 나와 같은 중소기업이라면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언어적 성희롱을 당사자의 느낌을 기준으로 문제 삼아 회사에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육체적 성희롱은 쉬울까? 역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이를 회사에 말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얼렁뚱땅 대응 방식을 적용한다. 제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거나 ‘예민함’을 말하며 결국은

피해자의 감정을 쓰레기 취급해버린다. 가장 최악은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라는 말이다.

내가 회사에 원한 것은 어찌면 단 하나였을지 모른다. 내 감정, 내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 피해를 토로하는 나에게 공감한다면 나와 그 사람을 분리했을 것이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을 회사 차원에서 사과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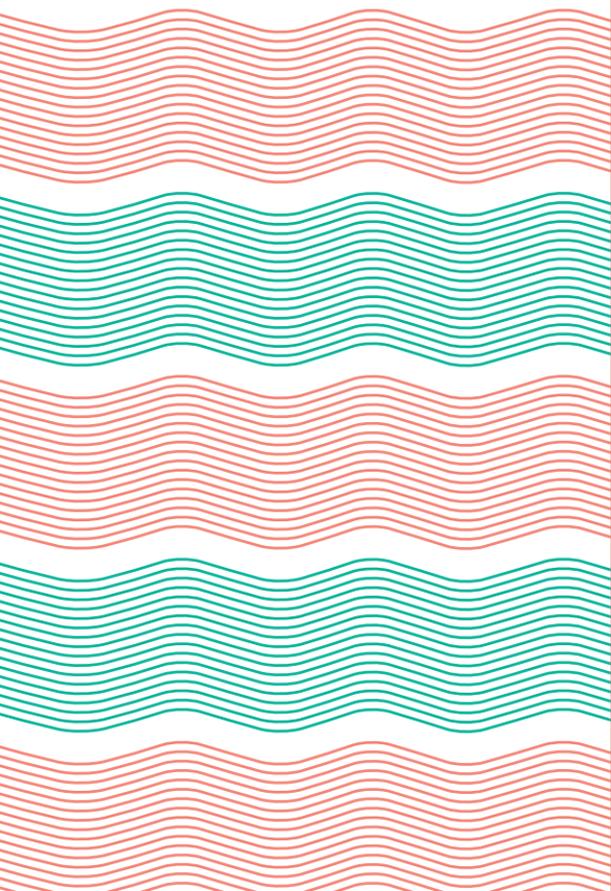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큰소리치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어느 것도 달라진 것 없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육체적 반응은 결국 나를 예민한, 혹은 소심한 직원으로 만들어버렸다.

가해자의 행동에 ‘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직장에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와는 최소한 분리해야 한다. 법적 처벌 기준이 아닌 직장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법적 잣대를 직장 내에서 같이 적용하기엔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마음의 소리’를  
읽다

박성근



“...그리고 앞으로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국 직원들의 근무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히 ‘성희롱’과 연관된 직원은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7년 전 내가 공직에서 기획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첫날이었다. 나는 전체 팀장 회의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에 이어 다소 생소한 이야기를 꺼냈다. 앞으로 ‘근무평정’을 ‘성인지 감수성’과 연계시키겠다는 독특한 사인이었다. 팀장들의 얼굴에 몹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집무실 입구 벽에는 ‘마음의 소리 함’이라는 작은 함이 걸렸다. 누구든 ‘성희롱’이라고 느낄만한 사안이 있으면 그 함에 간략한 내용을 적어 넣도록 했다. 나는 성희롱 피해 직원들의 말 못 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들만 분리하여 만나기로 했다. 물론 피해자가 거짓을 조금이라도 보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천명했다. 당연히 나 스스로도 몸과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실은 나도 처음에 그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많이 망설였다. 나는 누구든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했다. 다만 사후에 성희롱을 추궁하는 대신 사전 예방 시스템을 통해 성희롱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었고, 성인지 감수성의 시소 위에 ‘속박’과 ‘자유’의 가치를 올려놓으면 속박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과거에는 나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나는 남녀 간의 성차별과 성희롱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알지 못했다. 더 붙어 ‘생물학적 성’과 ‘젠더(사회적 의미의 성)’의 개념도 구분하지 못했다. 심지어 성희롱을 오직 심한 성적 표현이나 신체의 강제 접촉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성인지 감수성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물론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성희롱을 규율하는 법령은 많다. 우리 직원들도 꾸준히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받는다. 또한 거리의 플래카드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안내하는 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규정과 백 번의 구호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공조직은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뚜렷하다. 또, 대부분 같은 기관에서 수십 년간 함께 부대끼며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 더불어 직속 상사의 1차 근무평정은 기관장도 뒤집을 수 없는 매우 큰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부하가 만에 하나 상

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인지한다 해도 심하지 않으면 그냥 관행처럼 인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억압된 감정이 일시에 폭발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도 어쩌면 그동안 억눌린 감정의 폭발일 것이다.

성희롱의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취약하다. 그러나 우리 같이 큰 규모의 공기관에서도 가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일부 직원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같은 기관에서 수십 년간 우리 국 직원들과 함께 생활했다. 따라서 여러 직원의 언행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성희롱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 ‘별생각 없이 농담 삼아’의 문화 속에 있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네는 가해자의 기준에서만 우스개인 크게 잘못된 언행이었다.

그 후 한 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나는 매일 출근하면 맨 먼저 그 함의 열쇠부터 열었지만 단 한 건의 소리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첫 번째 근무평정 기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음의 소리 함’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내심 너무 기뻐다. 내가 마음의 소리를 읽지 않게 되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문득 오래전 깊이 매료되었던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머

(Martin Buber)의 저서 『나와 너』가 떠올랐다. ‘나와 너’는 상대를 아름답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동행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와 그것’은 상대를 일종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비인격적 관계를 일컫는다. 당연히 우리가 좇아야 할 거리는 ‘나와 너’의 길이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끔 여직원들에게 그냥 웃자고 가벼운 성적 농담을 건네던 일부 직원들도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통쾌해하는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국 소속 과장 회의에서 주무과장이 내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과장들도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동안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찾은 것 같았다. 그 후로도 2년 가까이 그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국장님, 지난 2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이 있습니다. 후임 국장님도 이 예방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 3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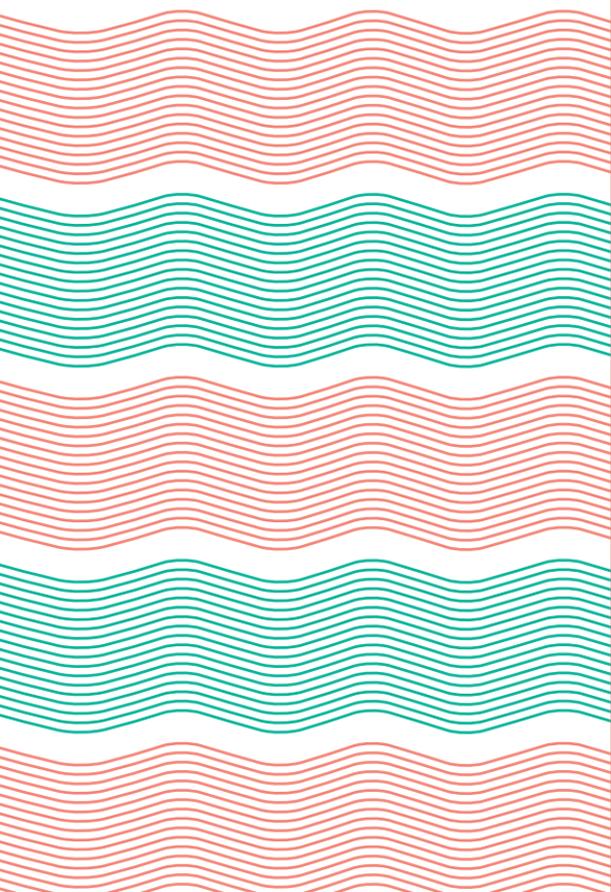
공직에서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내 마음처럼 창밖으로 미치게 눈발이 흩날렸다. 한 여성 직원이 ‘마음의 소리 함’ 앞에서 주뻗거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심 직접 듣는 ‘마음의

소리'를 예감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픔'이 아니었다. 그 소리에는 오히려 '희망'이 있었다. 시작은 작은 함이었지만, 우리가 꿈꾸었던 큰 울림과 변화가 가득했다.

'마음의 소리'가 만든 역설에 왠지 마음이 울컥했다. 직원이 떠난 후 나는 조용히 내 사물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다. 지난 33년을 따라 웃음과 눈물이 흑백필름처럼 스쳐 갔다. 이윽고 후임 국장을 향해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눈발은 여전히 날리고 있었다.

성평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태기





성차별이나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으면, 아직도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라는 구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만 같다.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도를 가진 조직이나 문화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범한 남성이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환경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 첫 번째 환경은 바로 군대로, 장교로서 군 본부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내가 속한 곳은 장교만 50여 명이었는데, 여군 장교는 단 두 명밖에 없었다. 그중 한 명의 여군 선배와 같은 과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처음에는, 그 선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 군인이라는 성별 정체성이 먼저 눈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같이 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은 같이 근무한지 며칠만에 곧 깨지게 되었다.

그분은 나와 같은 ‘군인’이었다. 똑같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고, 후배들이 업무를 잘 따라오지 못할 때는 친절하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따로 시간도 내어주면서 후배들을 잘 이끌며 리더의 면모도 보여줬다.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

서 조금씩 ‘여군’에게 향하는 곱지 않은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동기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도 그 선배와의 일화를 나누게 됐다. 그렇게 선입견에 갇혀 있던 나와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다.

군대뿐 아니라 여러 집단이나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성별 등의 정체성을 이유로 능력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일은 흔하다. 다른 동료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할 정도로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있기에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특정 성별이기 때문에, 또는 누구랑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상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편차가 마치 사실처럼 번져나가게 되면, 이것이 성차별이 만연해지는 조직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 선배는, 자신이 여성 군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싫은 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감정적으로 대처해봤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내게 조언해줬다.

어떻게 보면, 그 선배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좋은 조직이라면,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좋은 조직은 자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입신양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게 되면, 그가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그의 편에서 있게 된다.

그래서 누가 그 선배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거나 뒷담화할 때 나를 포함한 우리 팀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허위 소문 유포를 막기 위한 자발적인 변론을 하게 됐다. 이 경험을 통해 성별을 둘러싼 직업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되었다.

그다음에 근무했던 곳은 반대로 여성이 많고 남성은 소수인 집단이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들렸다. 약간 무거운 것 같은 물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디선가 “그렇게 힘쓰는 건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해.”라는 말이 들려왔고, 나를 포함한 남성 직원들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여성 고위 관리자분이 잠시 사무실을 방문해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다. 그분은 그런 발언을 한 해당 관리자를 부른 다음, 몇 분 후 나와 남자 직원들을 불러서 ‘당연하게 남자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거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

는 약간 난처하긴 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관리자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표현은 성차별적 용어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다면, 충분히 개선해야 한다.” 나를 비롯한 남자 직원들은 굳이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정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해야 할 때는 같은 팀원으로서 돕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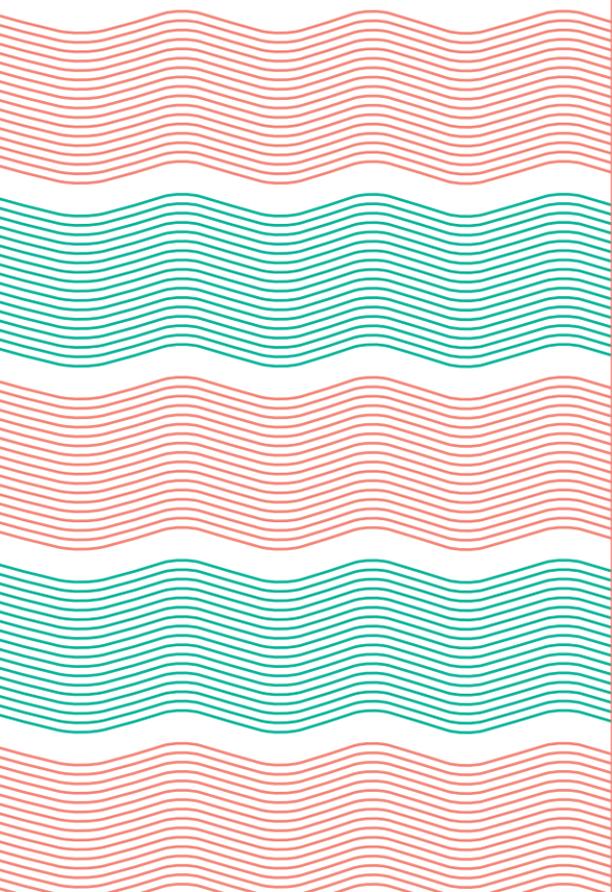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남자라는 이유로 강요받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남자라면 껄껄해지지 말고, 험프게 울어선 안 되고, 힘쓰는 일도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남녀 불문하고, 차별이라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차별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여 조금씩 변화해나갈 수 있는 일터야말로 진정한 ‘성역 없는 일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익명



8년 전 나는 중견기업에 입사해 ○○영업소에 영업직으로 배정되었다. 영업부보다도 작은 규모의 영업소에는 직원이 남자 네 명, 여자 두 명으로 여섯 명이 전부였다. 처음 입사한 그 당시의 나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경험조차 없어서 상사가 묻는 말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하나하나 답하곤 했다.

여자 선배는 “모든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라고 조언해주었지만, 신입 사원으로서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두세 달이 흘러, 어느 정도 업무와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었을 즈음이었다. 업무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 뒤부터는 잘못된 질문들이 많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립스틱 색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려 했고,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치마 길이, 내 다리의 굵기 정도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얌전하고 상냥한 여성상을 나와 비교하며 나의 행동들에 트집 잡기 일쑤였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출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언어폭력은 나에게 되

사를 고민하게 했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나는 용기를 내 여자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냥 무시해.”라는 답변이 나올까 조마조마했으나, 우려와는 달리 나의 상황을 듣던 선배는 얼굴이 벌게지며 공감해주었다. 내가 그동안 받아온 성희롱 발언들은 사내 메신저, 회의 시간, 또는 개인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배는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실 나는 선배가 내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내 오해는 그날의 대화를 통해 해소되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업소에 나보다 입사가 1년 빠른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남자라고 성희롱 발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너 어제랑 양말이 똑같네.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했어?”

나보다 다섯 살은 더 많았던 그 선배도 이런 질문들이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은 작은 연대의 일환이었다. 당당하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두세 명이 뭉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피할 수는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무례한 질문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선배들이 앞장서서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질문들을 조금씩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 선배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서 내 우산은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사무실 내 유일한 여성이 되었다. 정제되지 않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나는 조금씩 말을 받아치는 방법을 익혀 갔다.

“그 다리로 무슨 원피스를 입고 다녀?”

이런 질문들은 항상 내 다리를 투과할 듯한 시선과 함께했다. 아침부터 성희롱을 받은 나는 정공법으로 맞섰다.

“저 정도면 괜찮죠. 소장님도 이제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웃으며’, ‘장난처럼’ 정색하지 않으며 말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언어폭력들 앞에서, 이전에 보였던 나의 정색은 나를 농담도 구별 못 하는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으로만 들어 왔기 때문이다.

“화장 좀 하고 다녀, 남자는 어떻게 만나려고 해?”

“과장님도 결혼하셨는데, 제가 못할까 봐요? 걱정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대꾸에 남자 선배들은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나를 ‘관심병사’로 부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4년 뒤, 영업부에서 본사로 발령이 되었다. 본사는 영업소처럼 매사에 간섭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팔뚝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여자인 직원들의 대부분이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본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남자 직원들도 불필요한 접촉을 당하곤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가 속한 부서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였다. 성희롱적인 말, 불필요한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적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주요 표적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중간중간 업무 호출을 한다든지 그 상습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줄어나갔다. 이런 도움의 손길들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투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시작된 교육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을 일깨워 주었다. 교육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처음 당장은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교육은 조금씩 회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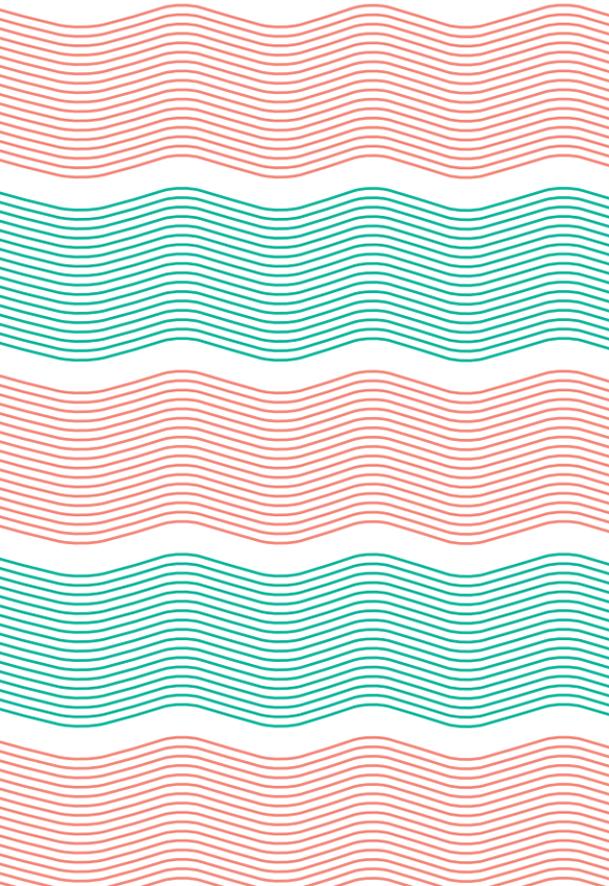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여태껏 취한 행동들이 성희롱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과거부터 으레 해왔던 행동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지속된 교육은 기업문화에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나의 회사생활을 과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내가 회사에서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다.

특히 용기를 내서 나의 피해 사실을 믿을 만한 주변 사람에게 알렸던 일은 내 직장생활의 전환점이었다. 무차별적인 성희롱 발언 속에서, 입사 초 3개월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은 정말 처량했고 지옥 같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에게 나의 상황을 알렸을 때 받은 공감과 관심은 내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받은 이런 공감과 관심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지지가 되어준 ‘연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선한 연대를 또 다른 피해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러한 연대는 누구나 조금 더 안전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 변화를 만드는 용기에 대하여

익명



여자들은 말이야. 크든 작든 인생에 한번은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당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다들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나도 여러 번 당했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 첫째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게 성추행이란 걸 알았을 땐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기억은 평생 남아. 잊을만하면 떠올라 나를 괴롭히곤 하지.

그 당시엔 내가 겪은 경험을 이상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기억도 같이 점점 커져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더라. 나는 가끔 한국의 모든 성인 여성들이 피해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 『82년생 김지영』이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여성들까지 열광시키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난 남자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남자와 여자 어느 성의 편도 아니야.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상황을 똑바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난 이 모든 게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든. 성희롱 문제는 사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폭력의 한 형태야. 그중에서도 성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복잡한 사회문제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성교육 시간에 교련 선생님이 콘돔을 챙겨와 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교탁 위에 놓고 간 거야. 여자아이들은 그걸 풍선처럼 불어서 하늘로 띄워 올렸지. 난 정말 그게 풍선인 줄 알았어.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게 콘돔인 걸 알았지. 그때 내가 느낀 게 뭐였는지 알아? 선생님은 같은 여자였는데도 우리에게조차 보여주기를 꺼려했구나. 씩씩했어. 그때 거의 그랬지. 마치 성이란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처럼 쉬쉬하는 사회적 통념과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적 시각,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여성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려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시도가 있었어.

다행히 나는 어릴 때 이후 심각한 성희롱을 직접 겪지는 않았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 나간 뒤 다른 이들의 경험담을 더 자주 들곤 했지.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하늘 같은 직장 상사들이었고 그중에서도 임원급이 많았어. 높은 사회적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어.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부당하게 이어져 온 거야.

나는 그런 사례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 과연 그들이 어릴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왜곡된 여성관을 가져서, 그런 행동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걸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신이 가진 알량한 회사 내 직급으로 누군가의 성적 자

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수치심을 안겨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 아마 아닐 거야. 그들은 분명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 있었어. 그것은 절대 통제 불가능한 욕구가 아니야.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사후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피해자를 빠져나오기 힘든 덫에 빠뜨리는 행동이란 걸 알고 있는 거야.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목을 더 죄어오는 족쇄 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비난당하고 부정당한다는 걸 교육받아왔어. 가해자들은 그걸 악용하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는 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다행히 요새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을 떠받치는 시스템도 견고해졌지. 여성들의 지위도 올라가면서 종종 남직원에 대한 여상사의 성희롱 이야기도 들려올 정도니까. 그렇지만 내가 회사에 입사했던 9년 전까지만 해도 성교육도 없었고 성희롱을 당한 직원들을 구제할 만한 제도도 없었어. 4년 전부터 신고 제도도 생겼고 의무적으로 성교육도 받게 됐고 익명으로 설문조사도 하게 됐지.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

으로 구제하는 충분 요소가 된 것 같진 않아.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소문들…. 직원들조차 누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더라 수군대며 안죽거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내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직급이 워낙 높으니까 누구 하나 나서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야. 하지만 성희롱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대응한 우리 역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호할 수 없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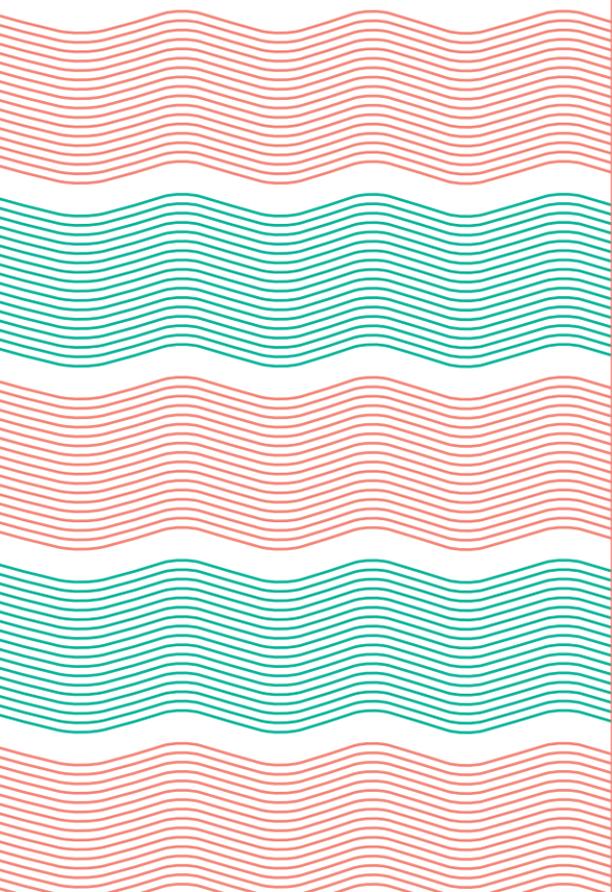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허울뿐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분기별 설문조사가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오래전 거래처에 방문했다가 말단 직원들까지도 회사 대표를 닮은 네임으로 부르는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 지금 당장 모두가 그렇게 급진적인 문화를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깨 힘을 빼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인간은 평등할 수가 없어. 힘과 권력의 불균형적인 분배만으로 인간은 시작부터 갈

등의 씨앗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어. 물론 인생도. 그러려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해. 사회 안에 살아가는 이유, 그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해. 난 낙관적으로 믿고 싶어.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가까우면  
안 되는 사이

홍보라



## 우리 딸 왔어?

나는 이 말이 좋았다. 27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쉬엄쉬엄 아르바이트하려고 들어간 카페 사장님이 나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나를 딸이라고 부른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다. 본인과 성이 같아서. 실제 내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오피스 상권에 있는 카페였다. 면접 보는 날, 본인과 같은 성에 자식이랑 나이까지 같으니 딸이라며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셨다.

사장과 처음부터 함께 일한 것은 아니었다. 내 첫 업무는 한 회사 안에 입점한 지점의 매니저였다. 사장님 부부는 내가 따로 지점을 맡아 고생한다며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내 취미에 필요한 용품도 사주시는 등 나를 많이 챙겨 주셨다. 손님들에게도 서슴없이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시는 사장님 부부의 모습에 오래 일하면서 배울 점이 많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카페는 회사 직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개인 카페보다 일찍 마감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 마감은 밤 10시가 넘었다. 다른 직원들보다 눈에 띄게 잘해주는 사장님이기에 나는 감사한 마음에 사내카페 마감 후 본점으로 넘어가 마감을 도와

드리곤 했다.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자리였다. 본점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단지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장님 지인분들은 나를 보고 이번 아르바이트생은 오래 있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나는 힘든 게 없었다. 가끔 마감을 도와드리러 갈 때, 약간의 부담스러운 터치와 언행은 가볍게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불쾌감보다는 감사함이 커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넘겼고, 되려 감정표현에 거침없으시니 ‘성격이 정말 좋다’ ‘사장님의 가족분들은 화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일하면서 카페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쯤,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고 큰 커피 공장과 브런치 카페를 세울 거라고 하셨다. 오픈 시기에 맞춰 나도 그 카페에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사장님 부부와 함께 새로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스트레스가 시작되었다.

## 진짜 가족

사장님의 털털하고 거침없는 입담에 주변 단골들이 많아졌다.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나를 딸이라고 소개했다. 사장 부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도 종종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진짜 친딸은 둘째 딸이고 내가 첫째라고 소개할 때마다 나는 뒤에서 아니라고 수습하기 바빴다. 3년 차, 함께 일하다 보니 사장님 가족사도 알게 되었다. 큰 카페에 가족이 아닌 직원은 나밖에 없었고, 조카, 아들, 딸, 혹은 고향 친구분들이 직원이라 정말 가족 분위기에서 일했다. 나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며 약간의 부담을 안고,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알게 되었다. 사장님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료, 식사, 카페 식구들 식사까지 다 챙기느라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사장님은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계속 찾으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 일쑤였다. 이전에 혼자 일할 때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였고,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니 적당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손님들 앞에서 딸이라며 어깨에 손 올리는 행위, 고생했다며 손을 잡는 행위, 동글동글해서 예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왜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하느냐,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느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부터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도 잘 안 하는 신체접촉까지 사장의 언행은 점점 거침이 없어졌고,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나보다 두 살 많은 사장님 조카가 나와 같은 시간대에 일했는

데, 사장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사장님이 일하고 있는 조카에게 몸 장난을 치며 레슬링 자세를 취하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성기를 만진 것이다. 그 순간 너무 놀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남자들의 놀이 방식인가 생각하며 넘겼지만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건 성추행과 희롱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조카한테 원래 이렇게 놀았냐고 물어봤다.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았다고 했지만 다 큰 지금에서도 저렇게 장난치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왜 거부를 못 하냐고 물었지만, 삼촌한테 어떻게 그러냐는 말이 돌아와 또 황당했다. 천천히 설득했다. 불쾌함이 있는 한 장난이 아니라고. 옆에서 보기에다 불쾌한 행위이니 거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진지하게 조카분에게 정중히 말한 다음부터, 삼촌에게 화도 내보고 힘도 써가며 점점 강하게 거부를 하는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장난은 나에게 돌아왔다. 이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성평등의 예인가? 나에게 다가와 인사로 목을 감싸며 넘어트리려 하는 행동에 너무 놀라 나의 온 운동신경을 끌어모아서 같이 장난치는 척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했다. 그때 가볍게 말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장난을 같이 친 줄 안 다음부터는 몸 장난이 더 심해지면서, 본인을 아빠라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빠 좋아?”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던졌다.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점점 웃지 않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사장님의 행동을 지적하며 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장이라 함부로 못했지만, 아빠가 좋냐는 질문엔 “저는 제 진짜 아빠가 좋아요.” 남자 필요하다는 질문에 “저 혼자도 잘 지내요.” 혹은 “알아서 할게요.” 등 단답형 대답으로 돌려드렸다. 이런 나의 태도에 사장님은 변했다는 반응을 하다가 결국 툭툭거리며 일을 시키는 것으로 심술을 부렸다. 하지만 업무로 날 괴롭히는 편이 훨씬 나았고, 편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두가 가족이라 아무도 그의 잘못된 언행이나 선을 넘는 행동을 제지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아내분은 그저 웃으면서 ‘장난이 좀 짓곳으시다’라는 말로 나를 달래려고 하셨다. 그리고는 본인이 힘들다는 기색을 표하며 나의 입을 막으셨다. 나는 그만두기로 결정 내렸다.

## 말수록 편한 사이

성차별 없는 분위기,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인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구성원 사이에 예의를 지켜야 하며 결코 편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 편하게 일하는 것을 선

호했다. 일도 힘든데 함께 일하는 구성원끼리 사이가 어색하거나 거리가 느껴지면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하루 절반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뎌야 할 것이고, 그게 각박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깝고 편한 분위기 또한 단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꼭 존재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한 명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며 불편을 느껴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일쑤다. 분위기를 공적으로 만든다면 분위기를 타서라도 말조심 행동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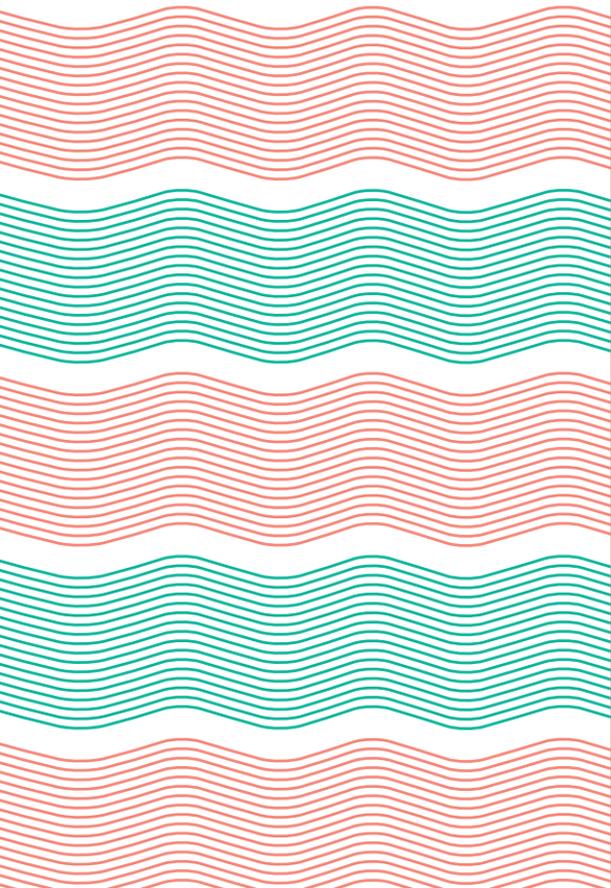
일터는 친목을 위한 곳이 아니다. 편해지면 안 되는 곳이다. 본인의 언행으로 일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에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성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사적으로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 직장에서는 옳지 못한 언행이다. 하지만 아직 사회는 어디까지가 성적 영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당하는 이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또한 자기합리화로 여러 차례 넘겨왔다.

성적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회의 도중에 잠자면 안 된다고 누구나 얘기할

줄 알면서, 성적 농담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건 왜 아니라고 얘기  
하지 못하고 숨기기 바쁜지 모르겠다. 가족 같은 회사가 최악이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가족은 각자 집에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자율적인 분위기와 자유  
로운 분위기를 착각하지 않고, 좀 더 공적인 자세를 갖춘 분위기를  
만들어 쾌적한 업무 환경이 보편화되기를 희망한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속앓이를 넘어 연대로

늘설렘



“뽀뽀해주면 비켜주지.”

들은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잊히지 않는 말이다. 가끔은 내가 정말 잘못 들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조차 않는다. 직장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갔을 때 행사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거의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선배가 했던 이야기다. 그 선배가 문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길래 통행이 어려우니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말했더니 이런 답을 듣게 된 것이다. 곁에는 선배, 동료들 꽤 여럿이 있었는데 누구는 어색하게, 누구는 진심으로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문제 삼지는 못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지만 그를 상사가 아니라 선배라고 불렀던 이유는 나의 직장이 연령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도 띠동갑이 있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온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 또 학생운동 안 해본 사람을 찾기가 드물 만큼 깨어있는 동료들이 많은, 수평적인 조직이었다. 그런 곳에서 들은 말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일은 당시 나에게 꽤 오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봐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는 동료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와 상의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동료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한 선배에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네가 색기가 있어서 그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였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한 선배는 내가 무척 존경하는 선배였고, 이런 나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되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선배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선배는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다 교도소에 갔다 온 전력이 있는 선배다. 그때까지 나는 정치적 진보성과 젠더 감수성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충격 그 자체였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또래 동료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혹시 일하다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취합해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을 꽤 길게 작성해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나는 성희롱을 당하는 대상을 ‘젊은’, ‘여성’에 한정 짓고 내 또래 여성 동료들에게만 보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나의 커다란 선입견이 반영된 분류였다. 성희롱은 나이가 많은 여

성에게도 해당되고,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여기저기서 답변이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일은 좀 더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이 함께 쓰여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메일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바로 답변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혹은 깊은 문제를 가지고 그 동료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가늠이 안되었다.

대학 때 교양 수업으로 여성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여성 단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활동가였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학 수업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어 첫 월급을 받고 나서 선생님이 계시는 여성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가입 동기를 쓰는 칸이 있어서, 몇 년 전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가입을 결심했었는데 이제야 가입한다는 말을 남겼다. 며칠 뒤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억해주고 정기후원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고, 그 뒤로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동

료들의 의견을 받아보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오셔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주시라. 단, 상황 설명과 멘트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걸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대본을 구성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성희롱 예방 교육 준비를 위해 인사팀을 찾아가게 되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듣는 교육이다. 특별한 계획이나 추진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인사팀에 가서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강사님에게 우리 조직에서 누군가가 한 말들을 바탕으로 대본을 짜서 드릴 테니 교육을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인사팀장은 내용을 듣더니 혹시 ○○팀장이 한 말이 아니냐며, 자신이 그 팀장을 10년 넘게 보아왔는데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관대함 넘치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오랜 시간 대화를 했지만, 나의 계획은 관철되지 않았다. 결론은 조직적인 ‘정서’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를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그들을 겨냥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시간이 흘러 조금 더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동료들이 보내온 메일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정은 결코 아니었다. 이 과정을 겪으며 한번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혼자 속앓이를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혹 전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훨씬 더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성평등한 일터는 요원한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할 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 부록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면?

---

### 1. 내가 처한 성희롱 상황을 인식하고 기록해요.

-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기록 남기기
- 증거 수집하기  
일기, 온라인 비공개 게시물, 가족이나 친구와의 카톡, 비밀유지가 가능한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 내 몸과 마음의 상태, 회사 생활 등 주변 상황 살피기

### 2.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요.

-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  
나의 권리와 내가 겪은 일의 법적 규정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합의, 내부 절차를 통한 행위자 징계, 행위자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이 있어요.
-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구체적인 대응 목표 설정하기

### 3. 결정한 목표에 따라 대응 방식을 선택해요.

- 사내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취업규칙 내 성희롱 규정을 찾아보고, 사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믿을 만한 상사나  
동료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 사내 해결이 어려울 때 대응하기

진정, 고소 등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보하기

내가 가진 자원과 한계를 점검해 보세요.

- \* 자원 : 증거, 제도, 동료, 전문 상담 기관 등

- \* 한계 : 고충 처리 기구의 부재,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

#### 4. 문제 제기 시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 내 몸과 마음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 회사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요구하기

행위자와 분리배치, 유급휴가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에 명확한 조치, 가이드라인 요구하기

출처: 일로 만난 사이에도 성평등이 필요해요. 성희롱 없는 직장을 위한 예방·대응 안  
내서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서울지역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기관 안내

기관명	전화상담	상담 운영시간	홈페이지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sup>+</sup>	02) 3141-9090	평일 10:00~17:00 점심 12:00~13:00	www.equaline.or.kr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가능
(사)노동희망 <sup>+</sup>	070) 8279-1598	평일 09:00~18:00	www.laborhope.com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가능
(사)여성노동 법률지원센터 <sup>+</sup>	0505) 515-5050	평일 13:30~17:00	yeono0515.mycafe24.com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02) 706-5050	월수금 10:00~17:00 점심 12:00~13:00	www.womenlink.or.kr ※ 이메일 상담 가능 eq5050@womenlink.or.kr

- \* <sup>+</sup>기호 표기, 2021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기관
- \* 2021년 기준 전국 각 시도에서 21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

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쳐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에세이 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기획 **와이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편집 류소연, **와이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디자인 주승리

펴낸이 류소연

펴낸곳 허스토리

등록 2016년 9월 29일 제 2016-000049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7, 2079호

전화 070-8680-8856

대표메일 her.listeners@gmail.com

홈페이지 herstory.kr

인쇄 및 제책 천일문화사

ISBN 979-11-91778-02-1 (0380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와이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용된 종이

표지 매직콤마 220g, 내지 미색모조 100g